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년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연구사업 제목

중국의 탈집체 농촌개혁과 북한에 대한 함의:
大河人民公社(鎮), 1970-2003

연구사업 참여자

연구책임자: 장경섭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참여연구원: 박 우 (한성대학교 조교수, 사회학)
안성호 (절강대학 부교수, 문화인류학)
허설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윤병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중국의 탈집체 농촌개혁과 북한에 대한 함의
大河人民公社(鎮), 1970-2003

1장. 탈집체 사회주의와 중국 농민: 역사·이론적 맥락과 大河 사례연구

2장. 대하인민공사(향) 가정생산책임제(報幹到戶) 20년의 변화

3장. 집체농업과 가족농업의 사회적 성격과 경제적 효과

4장. 농가경제와 농촌산업화

5장. 복지체제의 탈사회화: 집체복지와 가족복지

6장. 농촌개혁과 계획생육(計劃生育)

7장. 탈집체 개혁과 농촌사회의 계급적 재구성

8장. 탈집체 농촌개혁과 여성의 지위 변화

9장. 탈사회주의 농촌개혁: 중국 경험의 북한에 대한 함의

통계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부록: 2003년 대하향 5개촌 농가 사회경제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1장. 탈집체 사회주의와 중국 농민: 역사·이론적 맥락과 大河 사례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毛澤東 사후 중국공산당 내부의 치열한 권력투쟁을 거쳐 등장한 중국의 실용주의 정권은 개혁정책의 시발로 농업 생산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되어 오던 사회주의 집단농업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 개별 가족 단위의 자영농업으로 점차 대체되어 갔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는 곧 농업생산물 구성 및 농촌지역 산업·고용 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에 식량자급이라는 정치적 원칙을 지향했던 농정목표는 생산력 제고와 자원 배분의 효율화라는 경제적 원칙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러한 목표 수행의 주체도 국가 통제 하의 집단생산체에서 자율적 경제주체로서의 농민가족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본적 농업 생산체제의 전환은 농촌지역 전체에 엄청난 경제·사회·정치적 변화를 몰고 왔다. 이 가운데 특히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급격한 향상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변화는 즉각 범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이를 이전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에 대한 반증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경제의 활력은 중국 정부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농가·마을 주도의 농촌산업화에서 찾아졌고, 이는 도시 산업개혁의 고질적 부진을 완충하며 국가경제 전체의 급성장세를 추동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중국의 농촌 개혁은 그 집합적 경제성과에 기초해 초창기부터 탈사회주의 전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좀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개혁에 대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비판적 평가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농촌 집단생산체들의 해체는 불가피하게 집단적 사회보장 장치들의 약화나 붕괴를 야기했고, 가족단위 경제활동의 부활은 가족노동력으로서 자녀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한동안 산아제한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농민-간부 사이뿐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족 단위 자영농업이 반드시 중국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된 식량 부족사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농촌 비농업부문의 폭발적 성장세도 점차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국의 농촌개혁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그것이 생산체제 전환을 위해 채택된 국가정책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농촌개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세기말 중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환경에서 농민들이 가졌던 미시적 차원의 욕구, 행태, 자원이 인구, 산업구조, 도농관계 등 거시적 경제조건들과 어떻게 맞물렸고, 국가의 개혁정책이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미시-거시 연계적 분석전략이 필요불가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적·분석적 입장에 의거해서, 본 연구는 중국 하북(河北)성 성도 석가장(石家莊)시 인근 대하인민공사(大河人民公社; 현재 大河鎮)에 대한 1970-2023년 기간의 지역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과정, 내용, 성격, 결과에 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 중국 농촌개혁의 핵심적 측면 들인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2) 농가전략으로서 농촌 산업화의 성격, (3)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복지 증축 문제, (4)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구조적 (충돌) 관계, (5) 사경제 확산에 따른 불평등화 등을 대하 지역의 조건과 추세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찰하는 분석전략으로서 (1)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등의 거시정책적 변수, (2) 기초 생산·생활 조직 형성, 부문별 생산동기 확립, 사적 지원·부양 관계 등의 미시조직적 변수, (3) 인구·물리적 여건 등 환경변수를 함께 검토하고, 그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전략: 미시-거시 현상의 연계

주류 사회과학 일반에서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사회관계·행위에 대한 연구가 서로 분리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학문적 설명이 부분화되거나 불완전해지는 경향이 오랜 기간 심화되었다.¹⁾ 그동안 사회과학의 경향은 거시적 사회현상과 미시적 사회현상을 별개 차원의 탐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관련된 연구활동도 서로 분리된 상태로 진행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로 여러 학문들 사이 및 각 학문 내부에서 필요 이상의 영역 분절이 이루어지고, 연구 전문화의 미명 하에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파편화되는 문제마저 야기되었다.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거시적 차원에서 출발하든, 미시적 차원에서 출발하든 다른 차원으로 연결시켜 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서 거시적 현상과 미시적 현상을 한 가지 분석틀을 사용해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도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거시적 사회현상이 구체적 개인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또 그들의 미시적 사회행위와 관계들에 의해 어떻게 거시적 사회구조로 재생산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²⁾ 이러한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거시적 변수들과 미시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균형적으로 인식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거시적 변수들과 미시적 변수들이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뿐 아니라,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하거나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에 관한 연구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하는 작업과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각각 미시 결정론과 거시 결정론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 거시적 현상은 사회 전체나 각 집단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적·구조적 조건의 영

1) 20세기의 사회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3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심리적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사이의 대립이 꼽힐 것이다.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관해, 러너(Daniel Learner), 인켈레스(Alex Inkeles) 등 심리적 근대화론자들이 해당 지역민 개개인의 전근대적 심리상태라는 초미시적인 측면을 주목한 데 대해, 프랑크(Andre Frank), 산토스(dos Santos) 등 종속이론가들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 사이의 (신)식민주의적 착취관계라는 초거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러한 종속이론적 설명은 다시 에반스(Peter Evans) 등 북미 실증주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다시 미시행태론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

2) 예를 들어, Alexander, Giesen, Munch, and Smelser, eds. (1987); Joan Huber, ed. (1991); Collins (1981, 1992); Anthony Giddens (1979, 1984); Mayhew (1980, 1981); Hilbert (1980); 김용학 (1992). (구)사회주의권의 개혁에 관련한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 분석에 관한 예로, Rose (1993).

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사회관계나 행위로 실현되지 않고서는 존재성을 가질 수 없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관계나 행위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미시 결정론적 시각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을 분석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그 현상에 대해 전적으로 거시적인 설명을 도출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미시적 현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관련된 사회관계나 행위의 특수성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야기되는 현상의 다양성과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에 대한 탐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본서는 중국의 탈집체(脫集體) 개혁이라는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사회학적 입장에서 탐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때 미시적이라 함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의 제한된 효력을 갖는 행위와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고, 거시적이라 함은 분석 대상인 사회적 단위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 행위·관계·상태를 지칭한다.³⁾ 그런데 미시적 기초에 대한 탐구는 비록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심리주의’(psychologism)에 내재된 것과 같은 미시 결정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⁴⁾ 이는 또한 개인 차원의 현상학적인 ‘생활세계’(life-world)를 독립적인 분석대상으로 삼는 가핀켈(Harold Garfinkel)류의 민속지적 방법과도 구분된다.⁵⁾ 연구자의 입장은 오히려 거시적 사회현상이 미시적 사회관계와 행위들의 결합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의 규칙성이나 유형을 밝히는 ‘분석적 구조주의’(analytical structuralism)에 근거한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미시적 행위와 관계가 거시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변화되는 측면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밀즈(C. Wright Mills)가 주장하는, 생활세계의 개인 수준의 의식을 넘어선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포기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시적 기초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사회관계와 행위 유형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다. 거시적 사회현상을 미시적으로 실현시키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rational actor)임이 인정되지만, 그들의 합리성은 주로 그들의 독특한 존재구속성과 인식구조에 의해 구성되는 구체적 의미를 통해서만 이해된다.⁶⁾ 따라서 합리

3) 거시와 미시에 관한 다양한 개념화의 예로 먼치·스멜서(Munch and Smelser, 1987:356-357)의 설명 참조.

4) 심리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구분에 관해 위플러·린덴버그(Wippler and Lindenberg, 1987: 140-142)의 논의 참조.

5) 필자의 입장은 이 방법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차원의 상징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에 있어 민속지적 방법의 위치에 관해서 힐버트(Hilbert, 1990)의 논의 참조.

6) 합리적인 행위자의 최소한의 조건은 자율적인 의식세계를 유지하여 무의식적 심리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Elster, 1990:22). 이때 자율적인 의식세계는 사회적으로 체득된 문화적 인식도구들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Alexander, 1987:313). 따라서 행위 합리성은 베버(Max Weber)적 ‘이해(Verstehen)’ 또는 이를 발전시킨 기어츠(Geertz, 1973)의 집단민속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사이먼(Herbert Simon)이 ‘상대만족(satisficing)’의 개념을 통해 지적하듯이 행위를 위한 정보의 접근 및 이해 차원의 제약도 존재구속성에 의한 합리성의 상대화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Elster, 1990:42-43).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지역적, 사회영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의 의식세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합리성에 대한 실증주의적 이해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회학에서 제시되는 합리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기든스(Giddens, 1987:227-229)의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의 핵심적 행위 및 질서 원리로서 합리성의 성격과 한계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으로 쿡·레비(Karen S. Cook and Margaret Levi, eds., 1990)의 *The Limits of Rationality* 참조.

적인 행위는 오직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뿐이며 특정한 가치기준에 의거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⁷⁾ 물론 특정한 사회체제 하에서 또는 역사적 환경에서 다수의 사회성원들이 갖는 보편적 존재조건이나 인식구조가 있어서 여기에 기초한 행위 합리성을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거시 현상들의 미시적 기초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객관화된 행위 합리성을 도출할 수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자의 입장은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개별적 효용 극대화(individual maximization)의 합리성에 기초하지는 않는다.⁸⁾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은 나라에 따라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적 경제활동의 허용과 시장기제의 도입이라는 자유주의적 지향성(liberal orientation)을 띠어왔다. 따라서 개혁은 그 정의상 다양한 비국가적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행위와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제고시킨다. 반면에 과거 중앙지령경제(central command economy)에 일반적이었던 정치적으로 사전 결정된 거시적 경제지표들의 관료제적 통제에 의한 실현 체계는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간다.⁹⁾ 물론 개혁 자체가 실용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거시적 목표를 갖고 시도하는 것이지만, 개혁의 구체적 과정은 더 이상 거시적 정책 결정과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¹⁰⁾

7) 이와 관련해 앞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대립의 예로서도 언급된 근대화론적 서구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할 수 있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을 한때 흥미했던 근대화론은 서구 자본주의 진영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의 표현인데, 시장 상황(market situation)에 충실한 개인적 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을 이념형(ideal type)을 넘어선 현실적 보편형으로 상정했다. 모든 사회적 상황을 개별적 이윤 추구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기적인 행위 및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최선의 자유·복지 증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배치되는 다른 문화권의 행위 및 관계 원리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저발전의 원인으로 매도당했다 (예를 들어, Inkeles and Smith, 1974). 이러한 시각이 서구 지배 하의 제3세계 상황에 적용되면, 결국 과거의 식민주의나 현재의 신식민주의가 변호되는 결과가 된다. 종속이론 등 이른바 구조주의적 제3세계 연구에서 한동안 미시적 행위나 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철저히 거시적 변수들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이러한 근대화론에 의한 미시적 현상의 왜곡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다.

8) 사이먼(Herbert Simon)이 지적한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하는 경제학적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Akerloff 1970; Akerloff and Dickens, 1982). 나아가 본고와 같이 공동연구의 결과로 발표된 논문 속에서 이천표 교수(1993)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아 이기적이라고 보는 경제학의 사람에 대한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없는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 . . 결국 경제학에서의 개체에 대한 인식방법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이렇게 잘못된 인간관을 갖고 개체를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회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 경제학에서의 낙관론과 그것의 근거에 있는 미시적 기초는 경제학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아집에 불과할 수가 있다” 라고 지적한다.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 theory)’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의 하나로 기든스(Giddens, 1987)의 논의 참조. 특히 아래에 다루어질 중국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개혁이라는 근본적 체제전환(system transition)의 상황은 경제학에서 전제되는 개별 행위자의 한계적 상황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경제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기초로 한 한계적 합리성은 체제 개혁의 와중에서 좀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종합적 합리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9) 중앙지령경제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 설명으로 코르나이(Janos Kornai, 1992)의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참조..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실용주의적 개혁은 특정한 유형의 비국가적 경제 조직 또는 행위자들이 형성되고 이들로부터 특정한 방향의 행위와 상호관계가 도출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장경섭, 1993b). 거시적 경제 통제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국가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민간경제)에 대해 교육·홍보·지도·유인체계 제공과 같은 다양한 간접적 노력을 펼칠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치적 강제와 행정적 통제에 의존한 정책목표의 직접적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조직·제도·사회관계 가운데 국가의 거시적 정책목표 실현에 이로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비국가적 경제주체들이 추구하는 미시적 합리성 속에서 국가경제 운용상의 거시적 합리성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농촌의 경우로 되돌아가 보면, 1978년 말에 鄧小平 주도로 개혁이 공표된 후 인민공사(人民公社)가 해체되고, 농업생산과 사회복지 등 농민생활의 핵심 부문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원리가 농민들의 사적 활동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다. 즉 국가에 의해 주요한 정치·경제·사회 활동의 원칙이 정해지고 또 이에 따라 사회변동의 기본방향이 결정되던 상황에서 농민들의 ‘자발적’ 행위와 사회관계에 의존해 경제 및 사회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 개개인이 중국 농촌의 정치·사회·경제 환경을 어떻게 인식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통해 대응해 나갔으며, 또 국가가 이러한 미시적 차원의 현상에 어떻게 개입했느냐에 따라 중국 농촌의 거시적 사회·경제 발전의 방향이 정립되고 변화되어 온 것이다.

3. 연구지역: 大河人民公社(현 大河鎮)

이 연구의 중심 분석지역인 大河人民公社(현 大河鎮)는 河北省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성도(省都)인 石家莊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교 농촌지역이다. 大河에서는 1979-80년 Steven Butler(정치학), 1986년 Louis Putterman(경제학)에 의해 각각 1970-79년 및 1980-85년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회·경제 서베이 및 필드관찰이 이루어졌다. 본 과제 연구책임자는 1989-90년에 Louis Putterman의 위 두 조사 결과들에 대한 분석에 참여하였고, 이후 2003년에는 직접 中國社會科學院과 함께 大河의 5개 마을(大河村, 小河村, 雙合村, 賈村, 紙房頭村)에 대한 사회·경제 서베이 및 현지 면접·관찰을 수행했다. 이 5개 촌은 1980-85년 대하 서베이에서 가구·개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과 2000년 초반 사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책임자는 2013년에 다시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大河 서베이를 수행했지만 공산당 새 지도부의 등장에 맞물린 공공 연구환경 변화로 그 결과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했고, 2024년 추가 서베이 실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大河 조사자료에 대한 첫 종합분석과 1979-80년 및 1986년 조사자료에 대한 병행 분석을 중심으로 현지 면접·관찰 내용을 보충해서, 집체(集體)농업 말기에서부터 탈집체농업 이행기 사이의 중국 농촌, 농업, 농민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大河 5개 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2003년은 중국 농촌의 탈

10)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해 거시-미시 연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 외에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자주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Rosenbaum, ed. (1992), Chang (1992) 등 참조.

집체화 개혁으로서의 사영농업(가정생산책임제; 報幹到戶)이 전국적으로 20년을 경과한 시점이며, 이는 大河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중국 농촌의 탈집체화가 경제·사회적 차원의 구조적 효과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98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정책적 격변에 수반된 즉각적 조정 효과나 농민 반응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광둥, 상해 등 대외 경제개방의 특수효과를 누리는 일부 해안지방들을 제외하면 도시 산업경제는 아직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 자체 경제성장세는 물론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유발 효과를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大河를 일종의 교외지역으로 두고 있는 石家莊조차 河北省 성도로서의 정치·행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산업화나 경제성장도 부진했고, 大河 등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과 변화 유발 효과도 제한적이었으며 심지어 農民工(비공식 이촌노동자) 유입도 규모가 커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경(北京), 천진(天津), 청도(靑島) 등 대규모 산업경제 지역들의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전략적 불리함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大河 5개 마을 가구들에 대한 2003년 사회·경제 조사는 탈집체화 농촌 개혁의 일상적 실태와 구조적 효과를 (도시 경제개혁에 따른 외부 유발적 변화 효과가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특정 농촌 집체단위 (人民公社·鄉·鎮)를 대상으로 집체시대 후반부 및 탈집체화 이행·안착기를 아우르는 1970-79년·1980-85년·2003년 기간에 걸친 체계적, 객관적, 구체적 조사 자료를 연구자의 고유한 이론적 입장에 의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내나 중국뿐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상응하는 연구를 찾기가 어렵다. 연구책임자는 이미 1970-79년 및 1980-85년 大河 자료에 대한 일부 분석 결과를 *Worl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Economy and Society* 등 발전학(development studies),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사회학 분야 세계 정상급 학술지들에 발표한 적이 있으며, 2003년 大河 자료 분석을 함께 포함한 본 연구의 종합적 결과는 국내외에서 지대한 학술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2장. 대하인민공사(향) 가정생산책임제(報幹到戶) 20년의 변화

1. 서론

2003년은 중국 농촌의 탈집체화 경제·사회 개혁으로서의 보간도호가 전국적으로 20년을 경과한 시점이며, 이는 하북성 대하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중국 농촌의 탈집체화가 경제·사회적 차원의 구조적 효과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98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정책적 격변에 수반된 즉각적 조정 효과나 농민 반응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광둥, 상해 등 대외 경제개방의 특수효과를 누리는 일부 해안지방들을 제외하면 도시 산업경제는 아직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 자체 경제성장세는 물론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유발 효과를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른바 농민공의 다양한 경로의 비공식 순환과 이주를 통해 대다수 도시경제가 일부 농가들에게 보완적 소득원을 제공하였지만, 이조차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대하향을 일종의 교외지역으로 두고 있는 석가장조차 하북성 성도로서의 정치·행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산업(고도)화나 경제성장도 부진했고, 대하향 등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변화 유발 효과도 제한적이었으며 농민공 유입도 규모가 커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경, 천진, 청도 등 대규모 산업경제 지역들의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전략적 불리함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대하향 5개 마을 가구들에 대한 2003년 사회·경제 조사는 탈집체화 농촌 개혁의 일상적 실태와 구조적 효과를 (도시 경제개혁에 따른 외부 유발적 변화 효과가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대하 농가들의 인구·사회·경제적 실태

2003년 전수 조사된 5개 마을 302가구는 가족규모에서 4인(36.7%)이나 5인 이상(36.1%)이 대다수였고 약간의 3인 가구(15.3%)와 제한적인 2인 가구(7.5%), 1인 가구(4.4%)가 있었다. 가족구조에 있어서는 부부와 미혼자녀(50.3%)가 절반이었고, 부부와 기혼자녀(17.2%) 및 노부모, 부부, 미혼자녀(14.5%)가 나머지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가족규모와 가족구조의 분포는 5개 마을에서 대체로 비슷했으나 한 마을(매촌3대)에서 5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46.3%로 특별히 높았고, 노부모·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율이 6.3%, 8.6%, 14.7%, 20.0%, 26.5%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하의 농가들은 집체시대 및 (초기) 탈집체시대에 걸쳐 국가가 결정하는 생산(토지)제도 및 인구정책의 영향을 받아 상호간 편차가 크지 않은 가족규모와 가족구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나중으로 갈수록 인구정책(계획생육) 자체의 강제성 효과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산아제한이 없는 가정 하의 선호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89.7%로 절대다수였던 사실로 드러난다.

2003년 조사된 대하 농가들의 노동인력 분포는 2명(53.5%), 3명(21.8%), 4명(14.0%), 1명(7.8%), 5명(2.5%) 순이었으며, 이 분포는 가족규모 분포에 비해 마을별 편차가 크지 않

았다. 2명 비율은 마을별 최고 65.5%, 최저 45.9%, 3명 비율은 마을별 최고 27.9%, 최저 18.8%, 4명 비율은 마을별 최고 20.8%, 최저 10.0%였다. 가구별 남성 노동인력 분포는 1명(60.1%), 2명(34.2%), 3명(3.7%) 순이었고, 가구별 여성 노동인력 분포는 1명(74.1%), 2명(15.6%), 0명(8.6%) 순이었다. 대하의 농민들은 이처럼 소규모 농가 노동력을 동원해 한편으로 국가가 강제(보장)하는 가족 단위 곡물재배를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비농업) 자영업과 임노동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겸업농의 지위가 보편화되었다.

조사된 대하향의 농가들 가운데 외지에서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큰 아들(26명), 큰 딸(21명), 둘째 아들(10명), 둘째 딸(5명), 배우자(4명), 큰 손자(2명), 큰 손녀(1명) 순이었다. 배우자의 경우는 모두 하북성 내에서의 부업노동을 위해 외지 생활을 했지만, 자녀들의 경우 대다수가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가족과 따라 생활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대하향 농민들은 적어도 초기 탈집체시대에는 (서부 산간지대 및 주요 해안 경제중심지 인근지역 등에서 두드러지는) 대규모 이촌 행렬에 나서지 않았으며, 뒤이어 설명할 다양한 탈농 경제활동과 결합된 이른바 이토불이향(이토불이향)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는 상응하는 (강제적) 국가정책에 대한 인민적 동의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래의 설명처럼) 더 실질적으로는 석가장이라는 성도이자 지역 대도시 교외지역의 경제·사회적 조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부 가족구성원이 외지 거주를 하는 대신 인근 도시(특히 석가장)로 출퇴근하면서 다양한 비공식·비정규 부업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302가구 중 233가구에 달했다.

가구별 응답자의 2003년 기준 직업 분포를 보면 개체호(29.0%), 곡물재배업(19.3%), 농업노동자(14.1%), 가사노동자(10.7%), 향진기업 노동자(9.0%), 간부(3.4%), 사영기업가(2.1%), 양식업자(2.1%), 전문직(1.7%), 장인(1.4%), 퇴직자(1.4%) 순이었다. 개체호 비율은 쌍합(48.1%)에서 특히 높았고, 지방두(12.1%)에서 특히 낮았다. 곡물재배업 비율과 농업노동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았다. 지방두에서는 향진기업 노동자 비율(24.2%)과 간부 비율(9.1%)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큰 아들의 직업 분포는 개체호(18.5%), 향진기업 노동자(16.7%), 농업노동자(6.9%), 전문직(6.5%), 간부(6.0%), 곡물재배업(5.1%), 사영기업가(2.3%), 양식업자(1.4%)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곡물재배업 비율이 부모세대보다 크게 낮은 것은 아직 농지경작권을 물려받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였을 것이다. 응답자의 1980년 기준 직업 분포를 보면 (집체) 곡물재배업(64.8%), 개체호(4.9%), 농업노동자(4.5%), 향진기업 노동자(3.8%), 간부(2.8%) 등이었다. 1980년과 2003년 사이에 응답자의 직업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곡물재배업으로 64.5%에서 19.9%로 낮아졌으며, 대신 개체호가 5.0%에서 28.4%로, 농업노동자가 4.6%에서 14.2%로, 향진기업 노동자가 3.9%에서 8.9%로 높아졌다. 가사노동자 비율도 1.8%에서 11.0%로 높아졌는데, 이는 응답자의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 퇴직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집체조직의 해산에 따른 생활서비스 노동의 가사화에 수반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2003년의 대하 농민들은 국가에 의해 전국적 차원에서 강제(보장)되는 사영 곡물재배자로서의 지위를 가구(가족) 수준에서 공유했지만, 비농업 부문에서의 자영업과 향진기업 임노동을 새로운 주직업으로 영위(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고, 농업 부문에서도 임노동을 그렇게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가족구성원이 인근 도시(특히 석가장)로 출퇴근하면서 다양한 부업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302가구 중) 233가구에 달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비정규성과 비공식성으로 인해 주직업으로 간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들 통한 생활수준 향상이 약간이라는 비율이 55.8%(최고 마을 64.4%, 최저 마을 37.0%), 매우라는 비율이

17.6%(최고 마을 26.3%, 최저 마을 7.7%)에 달해 합하면 무변화라는 비율 25.3%(최고 마을 42.3%, 최저 마을 14.1%)를 훨씬 넘어섰다.)

그런데 대하 농민들 가운데 주직업으로서 곡물재배업을 꼽은 비율이 제한적인 것은 농가들의 경작(사용) 토지 대부분이 자급자족적 소비를 위한 구량지로서 여기에서 산출된 농산물들을 별도의 소득원으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 2003년 전수 조사된 5개 마을 302가구 가운데 구량지 경작 가구는 265가구로 평균 2.18무(최고 마을 2.28무; 최저 마을 2.10무)를 경작했고, 자류지 경작 가구는 126가구로 평균 0.28무(최고 마을 0.57무; 최저 마을 0.22무)를 경작했으며, 승포지 경작가구는 15가구로 평균 11.89무(최고 마을 18.22무; 최저 마을 3.00무)를 경작했다. 구량지는 대다수 농가가 경작했을 뿐 아니라 토지 비중이 높았고 마을들 사이에 농가별 평균 경작면적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또한 그 사용기한이 전부 30년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는 자류지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승포지는 사용기한이 마을별로 다양했는데, 대하 마을(2농가)은 평균 15.5년, 쌍합 마을(2농가)은 평균 2년, 나머지 마을들(각각 5농가, 1농가, 1농가)은 모두 1년이었다.

대하 농민들 가운데 탈집체화 개혁 과정에서 가구별로 경작권이 안배된 토지를 마을에 상납하거나 다른 가족원에게 넘기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즉 87.4%(242가구)가 스스로 경작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마을별로 최고 100%(소하)에서 최저 81.1%(쌍합) 사이에서 분포되었다. 전부 마을에 상납했다는 경우도 5.1%(14가구)였는데, 마을별로 최고 13.4%(대하 9가구), 최저 0%(소하 0가구)였다. 마을에 토지를 상납한 시기는 대하 1996년(4가구)과 1993년(1가구), 매촌 1998년(2가구)과 1994년(1가구), 쌍합 1996년(2가구), 지방두 2001년(1가구)으로 다양했다. 이상의 실태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2003년 기준으로는 중국 농촌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 기반이 구량지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하 농가들의 생산성, 소득구성, 저축·부채

위에서 설명한 농촌 체제개혁에 수반된 직업구성과 생산활동의 변화는 대하 가구들의 주요 소득원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다양한 근로 소득을 꼽은 비율이 평균 84.2%(최고 마을 91.4%; 최저 마을 79.2%)에 달했으며, 농업 소득은 8.6%(최고 마을 15.2%; 최저 마을 2.9%), 양식업 소득은 7.2%(최고 마을 11.5%; 최저 마을 2.9%)였다. 그런데 주요 소득원으로서 농업 소득을 꼽은 비율이 제한적인 것은 대하 농가들의 경작(사용) 토지 대부분이 자급자족적 소비를 위한 구량지로서 여기에서 산출된 농산물들을 별도의 소득원으로서 인식(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는 주직업으로서 곡물재배업을 지적한 비율이 제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된다.

대하 5개 마을 285개 가구들의 2002년의 전체 및 부문별 평균 가구소득 액수와 구성비(괄호속)를 살펴보면, 전체 소득은 평균 12832.8위안, 농업소득 935.8위안(7.29%), 지역기업 근로소득 2747.5위안(21.41%), 개체호 소득 4060.4위안(31.4%), 기업경영 소득 1751.9위안(13.7%), 양식업 소득 537.5위안(4.19%) 등이었으며, 타지에서의 노동소득은 87.72위안(0.68%)으로 (평균적으로는) 매우 적었다. 집단복지 소득(1.52위안, 0.011%), 가족계획 소득(2.10위안; 0.016%) 등 사회정책적 수혜규모는 거의 무시될 수준이었다. 마을별로는 농업소득이 지방두에서 매우 두드러졌고 쌍합도 나머지 마을들에 비해 뚜렷이 높았다. 지역기업 근로소득은 농업소득보다 오히려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지방두가 여기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개체호 소득은 쌍합, 대하, 소하 마을에서 뚜렷이 높았고, 기업경영 소득도 비슷하게 대하, 소하, 쌍합 마을에서 두드러졌다. 2002년의 부문별 가구소득을 각 해당 가구들에 국한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소득(193가구)은 평균 1381.9위안, 지역기업 근로소득(104가구)은 평균 7529.3위안, 개체호 소득(105가구)은 평균 11021.0위안이었다. 소득 종류별로 포함된 농가들의 숫자는 차이가 컸는데, 농업소득은 대다수 농가가 포함되었지만, 지역기업 소득과 개체호 소득은 각각 전체의 절반 정도 농가만 포함되었다. 소득 구간별로 대하 5개 마을 가구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확인요] 총소득의 분포는 5000위안 이하 17.8% (51가구), 5000-10000위안 19.9% (57가구), 10000-15000위안 20.6% (59가구), 15000-20000위안 17.8% (51가구), 20000-25000위안 11.9% (34가구) 등으로 구간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러한 소득구간별 분포를 부문별로 살펴볼 때, 부문별 해당 가구들 사이에서도 농업소득, 지역기업 근로소득, 개체호 소득이 소득구간별로 고르게 나타났다.

대하 농가들의 2002년도 가구별 농작물 생산량(근) 분포는 3000-4000 구간에 36.2%가 몰려 있고, 2000-3000 구간 20.1%, 4000-5000 구간 18.6%, 1000-2000 구간 11.5% 순으로 분포되었다. 마을별로 보면, 쌍합과 지방두에서 3000-4000 구간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고, 소하의 경우는 여러 구간에 매우 골고루 분포되었다. (3장에서 분석된) 대하 5개 마을 농가들의 2002년 가구별 농업소득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간추리면, 가구별 농업생산 관련 지출액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가구의 노동력, 경작면적, 부양비, 승포지(비율)는 분명한 효과가 없었다. (4장에서 살펴봤지만) 가구의 노동력 규모는 (비농업 부문 생산활동 촉진을 통해) 비농업 가구소득의 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작농지 중 (계약재배) 승포지 비율도 역시 가구소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승포지 경작 농가가 워낙 드물고 그 평균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하 농가들의 농업소득은 토지나 노동보다는 주로 자본적 지출에 의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의거해 상승하였다. 2002년 가구별 농작물소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비슷했는데, 가구별 농업생산 관련 지출액, 혹은 자본적 지출에 의한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가 가구의 농작물소득 증가로 이어졌으며, 아울러 가구 경작면적 크기도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보였다.

(3장에서 분석된) 대하 5개 마을 농가들의 2002년 가구별 총소득 및 비농업소득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간추리면, 대다수 농가에서 비농업소득의 압도적 중요성을 반영해, 총소득과 비농업소득은 그 결정요인들이 대동소이했다. (또한 비농업소득이 유독 제한적인 매춘을 외에는, 농가 총소득 및 비농업소득에 대한 마을(생산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농가의 경작면적, 농업생산지출, 승포지 비율 등 농업적 조건들은 총소득과 비농업소득에 대해 중요한 효과가 없었고, 가구원 교육수준과 (이미 형식화된) 가족 배경으로서 계급성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가구노동력 규모는 총소득 및 비농업소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데, 이는 농촌개혁 시작 단계부터 농촌 상공업 성장이 생산조직 탈집체화에 수반된 가족의 제도적 자율성에 의해 촉발·견지되었다는 본서 5장의 논지에 합치된다.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로부터 농가의 제도적 자율성은 생산체제에 대한 정책적 전환과 아울러 그 인적 기반으로 적절한 가족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농민들의 출산욕구 증가 및 남아 선호(확보)를 초래해 개혁기에도 한동안 지속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정면 충돌했다.

2002년 기준 대하 농가들의 연간 가구지출은 대다수 5000-10000위안 (40.4%), 5000위안 이하 (31.3%), 10000-15000위안 (19.3%)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을들을 비교하면 매춘 농

가들의 5000위안 이하 비율(45.2%)이 특히 높았고, 지방두 농가들의 10000-15000위안 비율(33.3%)이 특히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마을들 사이의 차이가 심하게 두드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경영 차원의 지출을 보면, 대다수 농가(220가구)가 보고한 농업생산 관련 지출은 1000위안 이하가 대다수인 81.4%였고, 1000-2000위안이 14.1%였다. 마을별로는 1000위안 이하가 대하(90.6%)와 쌍합(88.5%)에서 가장 많았고 매촌(68.2%)과 지방두(71.0%)에서 가장 적었다. 지방두 농가들의 경우는 2000-3000위안(9.7%)과 3000-4000위안(9.7%)에도 상당히 존재했다. 토지세 납부(117가구)는 1000위안 이하가 93.2%로 대다수였고, 마을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사영기업 사업지출은 대하, 매촌, 쌍합에서 소수(합해서 16가구)이지만 보고되었는데, 10000위안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대하(4가구), 매촌(1가구), 쌍합(2가구)에 일부 있었지만, 매우 영세한 지출 규모를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 개체호 사업지출은 훨씬 많은 가구(55가구)에서 보고되었는데, 대체로 농업생산 지출보다는 규모가 커서 1000위안 이하는 16.4%에 불과했고, 1000-2000위안이 23.6%, 2000-3000위안이 21.8%, 3000-4000위안이 7.3%, 4000-5000위안이 9.1% 등으로 보고되었고, 10000위안 이상도 12.7%가 보고되었다. 마을별로는 매촌의 개체호들이 소액구간에 집중되었고, 대하의 개체호들 가운데 지출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

의식주, 교육 등 비사업지출은 사업지출보다는 여러 구간에 고르게 퍼져서 분포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의식주 지출(226가구)은 1000-2000위안(30.5%), 2000-3000위안(27.0%), 1000위안 이하(19.5%), 3000-4000위안(9.3%) 순으로 분포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 지출(129가구)이 1000위안 이하(38.8%), 1000-2000위안(21.7%), 3000-4000위안(9.3%), 2000-3000위안(7.8%), 5000-6000위안(7.0%) 순이었다. 마을들을 비교하면, 쌍합 가구들 가운데 의식주 지출이 1000위안 이하(7.8%)가 매우 적었고 3000위안 이상의 구간들에 다른 마을들보다 많이 분포되었다. 마을별로 교육비 지출은 1000위안 이하가 소하(63.6%)에서 매우 많았고 대하(18.5%)에서 가장 적었으며, 5000위안 이상의 구간들에 대하와 쌍합의 가구들이 다른 마을들보다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 경조사 지출(152가구)은 1000위안 이하가 88.8%로 대다수였다. 외지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생활, 교육, 사업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하 가구들의 연간 소득과 지출의 차이로 계산되는 순소득은 1000위안 구간으로 따질 때 매우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10000위안 이상 가구들이 271가구 중 69가구로 25.5%나 되었다. 순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영(0)인 경우는 각각 14.0%(38가구)와 11.4%(31가구)로 둘을 합하면 10000위안 이상의 고수준 순소득 가구들과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연간 순소득으로 따질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은 (10000위안 이상) 고소득 집단과 여유소득 결여 집단이 서로 합하면 대하 가구들의 절반을 넘긴 것인데, 이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격차나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마을별로는 매촌 가구들 가운데 순소득 10000위안 이상 비율이 12.9%에 머문 반면, 마이너스와 영(0)인 비율이 각각 19.7%와 29.6%에 달해, 이 마을 농가들의 상대적 빈곤 상태가 두드러졌다.

대하향 농가들 가운데 은행에 저축이 있는 경우는 164가구였으며, 2003년 기준 저축액은 10000-15000위안(20.7%), 20000-25000위안(18.9%), 30000-35000위안(14.0%), 50000위안 이상(18.9%)인 구간들에 집중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분포가 조사된 5개 마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개인에 대한) 부채가 있는 대하향 농가들은 32가구에 머물렀는데, 그 규모도 5000위안 이하(21.9%), 5000-10000위안(15.9%),

10000-15000위안(21.9%), 20000-25000위안(15.6%) 등으로 대다수 크지 않았다.

이상의 가구 수입·지출 실태 등을 기초로 대다수 대하향 농민들은 생활 상태와 수준에 뚜렷한 변화를 겪어 왔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생활수준이 어떠한지를 물었을 때, 294명 응답자 중 190명(64.6%)이 조금 좋아졌다, 62명(21.1%)이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7명(2.4%)만이 조금 나빠졌다, 35명(11.9%)이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위에서 2002년 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대하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경제적 격차나 불평등이 존재했지만, 각자의 최근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보편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꼈다. 이러한 자기 과거 비교적인 생활수준 평가에 병행해 대하 농민들은 마을내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수준 차이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덜 민감하게 느꼈는데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290명 중 183명(63.1%)이나 되었고, 소하와 지방두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5.7%와 87.9%에 달했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도시인들과 비교해 평가할 때는 본인이 조금 혹은 많이 높다는 비율은 각각 5.5%와 5.1%에 그쳤고, 조금 낮다는 비율이 47.4%에 달했고 32.0%는 차이 없다고 답했다. 마을별로는 매촌 농민들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도시인들보다 조금 낮다(71.3%), 매우 낮다(12.5%)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조금 높다(0%), 매우 높다(1.3%)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지방두 농민들은 가장 긍정적이어서 60.8%가 차이 없다, 18.2%가 조금 낮다, 6.1%가 많이 낮다고 답했다. 대하향 농민들 가운데 현재 성인 자녀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자신의 젊을 때와 비교해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0.2%(254명 중 229명)나 되었고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 8.7%(22명)를 합하면 거의 모두를 차지했다.

대하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5년 후의 생활수준이 현재에 비해 조금 혹은 많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 275명 가운데 각각 52.4%(144명)와 42.5%(118명)를 차지했으며, 모든 마을에서 긍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현재의 본인 생활수준보다 조금 혹은 많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 268명 가운데 각각 30.2%(81명)와 67.5%(181명)를 차지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이었다. 자신과 자녀의 삶에 대한 대하 농민들의 이러한 긍정적 미래 전망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도시인들과의 생활수준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즉 5년 뒤 도시인에 비한 농민의 생활수준 전망에 대해 응답자 238명 중 58.4%(139명)와 28.2%(67명)가 각각 조금 혹은 많이 낮을 것으로 답했으며, 마을별로는 매촌 농민들 중 27.3%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대다수 대하 농민들은 1970년대 말부터의 개혁 기간 전반에 걸쳐서는 농민-도시노동자 생활수준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차이에 대해 응답자 267명 가운데 67.4%(180명)가 약간, 17.2%(46명)가 매우 감소했다고 답했고, 12.7%(34명)가 약간 증가했다고 답했다. 마을별로 두드러진 부분들을 보면, 소하 농민의 48.5%, 지방두 농민의 40.6%가 매우 감소했다고 답했고, 매촌 농민의 27.1%가 약간 증가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 293명의 39.2%(115명)가 농촌이 좋아 계속 머물겠다고 했고, 15.4%(45명)가 도시에서의 성공 기회에 부정적이어서 농촌에 머물겠다고 했으며, 10.9%(32명)가 농촌에서의 일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했으며, 다만 24.9%(73명)가 돈을 벌어 도시에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막상 도시인들의 소득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 294명 중 56.1%(165명)가 잘 모른다고 했고, 34.7%(102명)가 조금 안다고 답했다. 그리고 도시인들이 농민들보다 잘 산다면 그 이

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1순위로는 응답자 172명 중 37.8%(65명)가 도시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35.5%(61명)가 국가가 도시노동자들에게 여러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22.7%(39명)가 도시노동자들이 농민들보다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순위로는 55.0%(83명)가 국가가 도시노동자들에게 여러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33.1%(50명)가 도시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4. 대하 농민들의 사회적 지향과 도-농 관계 및 격차 인식

앞선 절에서 대하향 농민들은 대다수가 개혁기나 최근 수년간 생활형편이 나아졌으며 도시노동자들과의 생활수준 격차도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계속 농촌에 머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이들이 농민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태도, 기회, 의무에 대해 어떤 구체적 생각이나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대하향 등 중국 농촌지역의 21세기적 변화와 발전에 대해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농민들은 농촌에 있어야 여러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291명 중 38.8%(113명)가 약간 찬성, 12.7%(37명)가 매우 찬성, 36.1%(105명)가 중간적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적어도 부정적 입장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는 마을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입장에 병행해, 대하 농민들은 자신들이 농촌의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280명 중 44.6%(125명)가 약간 찬성, 20.4%(57명)가 매우 찬성, 25.7%(72명)가 중간적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부정적 입장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매촌 농민들의 경우 약간 반대 입장이 21.8%에 달했으며, 지방두 농민들은 약간 찬성이 50.0%, 매우 찬성이 30.0%로 각각 부정적 분위기와 긍정적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했다.

그런데 대하 농민들에게 농업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293명 중 23.9%(70명)가 약간, 10.6%(31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4.1%(100명)는 중간적 입장이었으며, 23.9%(70명)가 약간, 7.5%(22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해, 매우 흥미롭게도 거의 정확히 긍정, 중간, 부정 입장으로 3분 되었다. 그러나 마을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어, 소하에서는 55.9%가 중간, 각각 17.6%씩 약간 긍정과 매우 긍정의 입장을 보여 전체적으로 부정의 분위기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지방두에서도 18.2%가 중간, 66.7%가 약간 긍정, 9.1%가 매우 긍정의 입장을 보여 전체적으로 긍정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매촌에서는 36.3%가 중간, 47.5%가 약간 부정, 8.8%가 매우 부정의 입장을 보여 전체적으로 긍정의 분위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쌍합에서는 44.3%가 중간이었지만 나머지에서 긍정의 분위기가 약간 강했고, 대하에서는 16.4%가 중간, 나머지는 긍정과 부정 비율이 거의 동일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농업을 통해 부유해질 가능성에 애매한 입장인 대하의 농민들은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상공업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즉 농민들은 상공업 대신 농업에 집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81명 중 57.7%(162명)가 약간 반대, 10.7%(30명)가 매우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여기에 중간 입장인 19.2%(54명)까지 더하면 분명한 동의 비율은 극히 낮았다. 마을별로는 쌍합에서 약간 찬성 15.5%, 매우 찬성 21.1%, 중간 입장 18.3%, 약간 반대 36.6%, 매우 반대 8.5%로 찬반이 엇비슷하게 양분되었지만, (소하에서 중간 입장이 45.7%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마을들에서는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대다수가 농촌에 그대로 남겠다는 대하의 농민들은 농업 자체보다는 다양한 상공업 활동을 통해 생활수준을 높여보려는 기대와 의지를 가졌다. 대하향 농민들의

이러한 이토불이향의 입장은 대하향이 석가장이라는 대도시의 근교지역이라는 경제·사회적 조건에 의해 그 현실성이 결정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방대한 중국의 복잡다양한 농촌지역들을 일반적으로 대표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하향 농민들 대다수가 농촌 체제개혁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활동 다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혁정책이 불러온 시장경제체제에서 스스로가 타산적(합리적?)이지 못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다. 관련 내용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 288명 중 약간 동의가 30.9%(89명), 매우 동의가 10.4%(30명)로 중간 입장인 31.9%(92명)까지 감안하면, 농민들이 시장경제의 성공적 주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마을별로는 대하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부족한 경제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간부 지시나 의견에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288명 중 20.1%(58명)가 약간 동의, 4.2%(12명)가 매우 동의, 29.9%(86명)가 중간 의견, 36.5%(105명)가 약간 반대, 9.4%(27명)가 매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이 훨씬 많았다. (마을별로는 소하에서 약간 반대 68.6%, 매우 반대 14.3%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지방두에서 42.2%의 중간 입장을 제외하고 찬반이 거의 동일하게 양분되었다.)

개혁기 대하 농민들은 스스로 시장경제적 성공을 위한 자격이 충분하거나 지역 간부들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자격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지만, 지역공동체의 사회·도덕적 주체로서는 (도시인들에 대비해서) 매우 강한 자긍심을 표명했다.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293명 중 38.6%(113명)가 약간 동의, 21.8%(64명)가 매우 동의를 표명해, 중간 입장인 33.4%(98명)까지 제외하면, 극소수만이 그러한 자긍심을 부정했다. (마을별로는 대하와 소하에서 중간 입장이 절반에 가까워 그 자긍심이 상대적으로 약간 약했다.) 나아가 이들은 (도시인들에 대비해서 더 순박하고 착하다는) 자신의 인간적 순수성에 대해서는 부정은 물론 중간 입장도 별로 없이 거의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다.

다만 자신들의 이러한 사회적·인간적 자긍심이 도시인들에 의한 농민 존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자 288명 중 14.9%(43명)가 약간 동의, 3.1%(9명)가 매우 동의를 표명한 데 비해 38.9%(112명)가 약간 부정, 7.6%(22명)가 매우 부정을 표명함으로써 도시인의 농민 존중에 대한 기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마을별로는 편차가 커서 지방두에서는 46.9%가 중립, 37.5%가 약간 동의, 3.1%가 매우 동의를 표명해 부정적 기대가 매우 드물었고, 쌍합에서는 32.9%의 중립 입장을 제하면 나머지는 찬반이 비슷하게 양분되었다.) 흥미롭게도 대하 농민들의 (도시인들에 대비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매우 유사하게 분포되었다. 즉 도시인에 비교한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할 때, 응답자 292명 중 11.6%(34명)가 약간 높음, 4.1%(12명)가 매우 높음 의견을 표해, 44.5%(130명)의 약간 낮음, 12.7%(37명)의 매우 낮음 의견보다 훨씬 낮았다. 도·농간 사회적 지위 차이에 대한 대하 농민들의 이러한 평가에 (직전에 살펴본) 도시인들의 농민관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두 문제 모두가 앞선 절에서 살펴본 도시노동자와 농민 사이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소득·생활 수준 격차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인식과 객관적 정황을 결정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 대하 농민들의 자녀 직업·이주·결혼관

앞선 3절과 4절에서 다각도로 살펴본 대하 농민들의 경제·사회적 실태와 의식은 그 자녀들의 직업, (도시)이주, 혼인에 관한 태도에 긴밀하게 반영되어 있다. 탈집체 체제개혁의 결과 농촌의 경제·사회적 중심 제도(조직)로 기능하는 농가에서의 세대간 기대, 규범, 관계는 중국 농촌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농민들 자신의 그리고 자녀들의 앞으로의 경제·사회적 기회와 활동에 대해 국가(공산당)의 정치·정책적 입장과 결정이 절대적인 규정력을 갖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등소평 개혁의 시발점이 농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방안과 자원의 고갈에 대한 자인(自認)이었기 때문에 농촌개혁이 궁극적으로 농가의 가족(가구) 단위 경제·사회적 자율성의 확립(복원)으로 귀결되었고, 심지어 그 자율성이 일시적인 농업생산성 향상보다는 (등소평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한) 농가경제의 지속적인 비농업적 다변화를 통해 세계 최대 농촌 인구의 생계유지와 생활향상을 가능케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농촌, 나아가 중국 전체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농가들의 세대간 관계 규범과 전략이 갖는 집합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예측될 수 없다.

대하 농민들에게 희망할 수 있다면 원하는 자녀 직업을 물었을 때, 우선 아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252명 중 1순위로는 40.5%(102명)가 당·국가 간부, 36.1%(91명)가 사영기업가를 압도적으로 선호했고, 그외 개체호(6.3%), 교사(5.6%), 전문직(5.2%), 도시기업 노동자(3.2%), 향진기업 노동자(2.4%)를 들었으며, 233명이 응답한 2순위로는 당·국가 간부(34.8%), 전문직(25.8%), 교사(15.5%), 사영기업가(15.0%), 개체호(4.3%), 향진기업 노동자(2.1%)를 들었다. (1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마을별로는 당·국가 간부에 대한 선호가 대하(52.8%)와 매촌(51.4%)에서 특히 높았고, 사영기업가에 대한 선호가 소하(47.6%)와 쌍합(48.0%)에서 특히 높았으며, 지방두에서는 당·국가 간부(24.2%), 사영기업가(24.2%), 교사(18.2%), 전문직(12.1%), 개체호(9.1%), 향진기업 노동자(6.1%) 등 다양한 선호를 보였으며, 유일하게 농민(6.1%)을 꼽기도 했다.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농민들조차 사영기업가 아들을 두어 세대간 직업(계층) 상승을 하고 싶은 공격적 소망을 표했지만, 동시에 당·국가의 권력이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간부 아들을 두고 싶은 고전적 소망도 표했다. 아들에 대한 경제·정치적 출세 욕망에 비하면 그 외의 직업들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고, 심지어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해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다.

딸에 대해서는 응답자 223명 중 1순위로는 39.0%(87명)가 당·국가 간부, 31.8%(71명)가 교사를 월등히 선호했고, 그외 전문직(9.9%), 사영기업가(8.5%), 도시기업 노동자(4.5%), 개체호(4.0%) 등으로 답했으며, 향진기업 노동자(1.3%)와 농민(0.9%)에 대한 선호는 극히 드물었다. 204명이 응답한 2순위로는 전문직(45.1%), 교사(29.9%), 당·국가 간부(10.8%), 개체호(4.9%) 등으로 답했다. (1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마을별로는 당·국가 간부에 대한 선호가 (아들과 마찬가지로) 대하(51.9%)와 매촌(42.9%)에서 월등히 높았고, 매촌에서는 교사(44.4%)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으며, 소하에서는 전문직(41.2%)에 대한 선호가 유달리 높았으며, 쌍합에서는 당·국가 간부(35.1%), 교사(24.6%), 도시기업 노동자(14.0%), 사영기업가(12.3%), 전문직(7.0%) 순으로, 지방두에서는 교사(31.3%), 전문직(25.0%), 당·국가 간부(21.9%), 사영기업가(12.5%) 순으로 각각 가장 다양한 선호를 보였

다. 대하의 모든 마을에서 농민들은 간부 아들뿐 아니라 간부 딸을 두고 싶은 강한 소망을 보였고, 딸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보편적으로 많았다. 일부 마을들에서는 딸이 전문직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았다. 대하 농민들에게 자녀의 당·국가 간부로서의 출세는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소망이며, 이는 대다수 지역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울러, 대하 농민들에게 만일 자녀가 도시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떤 입장이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아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245명 중 51.8%(127명)가 간섭 않을 것, 26.9%(66명)가 적극 찬성, 19.6%(48명)가 대체로 찬성이라고 답해, 거의 모두가 직·간접적 지지 의사를 표했다. 마을별로는 소하 농민들이 대체로 찬성(30.8%)과 적극 찬성(34.6%)의 좀더 분명한 찬성 의사를 표했고, 지방두 농민들은 불개입 입장(75.8%)이 지배적이었다. 아들의 도시 진출에 대한 대하 농민들의 지배적 찬성 입장은 그 이유로 응답자 89명 가운데 83.1%(74명)가 도시의 풍부한 교육·취업 기회를 들었으며, 노후생활(6.7%), 자녀양육(5.6%), 결혼문제(4.5%)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이었지만, 매촌에서 자녀양육(21.1%)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쌍합과 지방두에서는 노후생활(각각 15.6% 및 14.3%)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딸에 대해서는 응답자 236명 중 55.9%(132명)가 간섭 않을 것, 23.7%(56명)가 적극 찬성, 17.4%(41명)가 대체로 찬성이라고 답해, 아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가 직·간접적 지지 의사를 표했다. 마을별로는 소하 농민들이 (아들에 대해서와 유사하게) 대체로 찬성(34.6%)과 적극 찬성(26.9%)의 좀더 분명한 찬성 의사를 표했고, 지방두 농민들은 불개입 입장(87.9%)이 더욱 지배적이었다. 딸의 도시 진출에 대한 대하 농민들의 지배적 찬성 입장은 그 이유로 응답자 67명 가운데 83.8%(67명)가 도시의 풍부한 교육·취업 기회를 들었으며, 결혼문제(7.5%), 노후생활(6.3%), 자녀양육(2.5%)에 대한 고려는 아들에 대한 경우와의 순서 차이는 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부차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이었지만, 쌍합에서 결혼문제와 노후생활(각각 13.5%)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6. 요약과 평가

보간도호, 즉 중국 농촌의 생산체계적 탈집체화가 20년간 진행된 2003년에 조사된 하북성 대하향 5개 마을의 인민 생활은 개혁 초기에 설정 혹은 발생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장기적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선 국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립된 집단소유 농지의 가족 단위 경작체제가 그 비효율성 대한 고민 및 합리적 재조직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큰 수정 없이 견지되고 있었고, 이는 그 20년 이후인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북경 개혁 지도부의 계획이나 예상과는 무관하게) 농업 탈집체화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지역 농가들 주도의 ‘아래로부터의 산업화’는 초기의 전국적 동력이 지역별로 차등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하가 속한 하북성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러한 농가 주도적 산업화가 국가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결정적으로 완충하며 시간을 벌여주고 지역에 따라 도시 산업개혁에 대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오늘날의 산업국가 중국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하를 포함한 각지의 농가들은 (여전히 경직된 거주·직업상 도농분리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복합적 산업화에 연계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함으로써 이토불이항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도 광의의 산업화 주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오늘날 중국 농가들은 생계소비 자족을 위한 농업생산을 게을리하지 않지만 경제·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농업부문 생산활동에 진력해 왔고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대하나 다른 지역들에서 농업의 가정생산책임제가 오늘날까지 견지되고 있는 것은 그 제도의 농업생산성 제고 혹은 지탱 효과보다는 경제조직 체계상 농가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노동·자본 안배를 가능케하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질적인 사회(보장)정책적 공백상태에 대한 가족적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의존적인 농촌 개혁(방임?)은 1950년대에 농촌 사회·경제의 전면적 집체화를 추진할 당시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부활시키는 부작용을 피해갈 수 없음이 대하나 다른 지역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개혁기 중국의 (국제적 차원에서도 문제시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화는 상당 부분 가족 의존적인 농촌 생산·복지 체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농가들 사이의 소득·생활수준 불평등 확대와 및 차별적인 국가의 경제·사회적 지원에 따른 도농간 불평등 심화를 반영한다. 아울러 가족 의존적인 농촌 생산·복지 체계는 강압적 산아제한을 중심으로 한 경직된 인구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는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농민가족의 가정생활, 젠더질서, 세대승계는 심각한 교란을 겪었다. 대하 지역 농가들의 경제·사회·인구(학)적 실태는 중국 농촌의 가족 중심적 탈집체화가 초래하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3장. 집체농업과 가족농업의 사회적 성격과 경제적 효과

1. 집단농업과 사영농업

개혁 이전의 중국 농촌에는 人民公社에 의한 이른바 集體經濟가 유지되었다. 원래 人民公社는 1950년대 후반 大躍進 기간에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확충과 농촌공업 생산의 확대를 위해 농민노동력 동원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한국의 군단위 정도의 지역을 대상으로 급작스럽게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재(人災)와 천재(天災)가 겹쳐 大躍進이 엄청난 재앙만 초래한 채 실패하자 1960년대 초반에 들어 대대적 체제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소속 가구가 평균 5천호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대규모인 人民公社에 대해 생산조직으로서의 비효율성과 생활조직으로서의 비적합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人民公社는 그 규모가 이전의 약 3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고 하부조직으로서 生産大隊와 生産隊를 두어 핵심적 생산·분배 기능을 내려 보내는 이른바 三級制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비농업부문의 생산기능은 대폭 축소되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三級制 구조 하에서 최하부 단위인 生産隊가 평균 약 30-40여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단적 농업생산을 실시하게 되었다. 각 生産隊는 국가에 대한 의무수매량을 제외한 수확물의 분배를 개별 노동자가 작업한 시간만큼 얻는 작업점수(工分)와 가구별 식구수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시행했다 (<표3-1> 참조). 그리고 농민가족은 노동력 공급과 생계소비의 기본단위로 기능했으며, 자체 소비를 위한 소규모 텃밭(自留地)도 경작했다.

<표 3-1> 大河지역 生産隊들의 식량 분배 방식, 1970-82

연도	家庭人口 분배 %			工分 분배 %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1970	74.8	60.0	100.0	25.2	0.0	40.0
1971	73.8	60.0	100.0	26.2	0.0	40.0
1972	74.2	60.0	100.0	25.8	0.0	40.0
1973	74.8	60.0	100.0	25.2	0.0	40.0
1974	75.2	70.0	100.0	24.8	0.0	30.0
1975	76.5	70.0	100.0	23.5	0.0	30.0
1976	74.8	70.0	100.0	25.2	0.0	30.0
1977	74.1	70.0	80.0	25.9	20.0	30.0
1978	72.3	70.0	80.0	27.7	20.0	30.0
1979	71.9	70.0	80.0	28.1	20.0	30.0
1980	69.5	60.0	80.0	30.7	20.0	60.0

1981	68.3	57.0	80.0	32.1	20.0	60.0
1982 ^a	68.5	0.0	100.0	33.1	20.0	60.0

^a家庭人口 분배는 99개의 生産隊들이 보고하고 工分 분배는 93개의 生産隊들이 보고함.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共産黨의 암암리 정치적 지원과 지방의 자발적인 경제타개 노력이 합해져 기존의 생산조직 및 농업정책에 대해 중요한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함으로써 탈집단화의 맹아가 싹트게 되었다. 농산물 수매에 대한 대금지급 방식이 농민들의 편의를 좇아 다양해졌으며, 농산물 수매가가 거의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개인(가구)단위의 생산활동에 대해 갈수록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농작업 단위를 生産隊 이하로 하고, 생산성과 물질적 보상을 좀더 엄밀히 연계시키려 하고, 일부 농가들을 특수작물 재배나 일정 작업에 전문적으로 배치시키고, 텃밭 경작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다양한 경영방식의 변화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동시에 농업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자 이러한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종합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농업의 가구생산책임제이다.

<표 3-2> 大河지역 生産隊들의 聯産計酬 채택 추이, 1980-82 (畝)

	1980	1981	1982
生産隊별 평균 경작면적	339	335	307
家庭勞動力 기준 분배지	92	174	246
총 면적에 대한 %	27.1	51.9	80.1
채택 生産隊 %	35.4	44.4	99.0
가정당 분배 면적	1.67	4.06	4.77
家庭人口 기준 분배지	21	29	26
총 면적에 대한 %	6.2	8.7	8.5
채택 生産隊 %	21.2	27.3	30.1
가정당 분배 면적	0.43	0.61	0.56
生産隊 집단 경작지	226	132	35
총 면적에 대한 %	66.7	39.4	11.4
채택 生産隊 %	100.0	100.0	100.0
가정당 분배 면적	7.32	3.23	0.73

<표 3-3> 大河지역 生産隊들의 大包幹 채택 추이, 1983-85 (畝)

	1983	1984	1985
--	------	------	------

生産隊別 평균 경작면적	278	235	236
口糧地	88	74	70
총 면적에 대한 %	31.7	31.5	29.7
가정당 분배 면적	1.78	1.57	1.34
承包地	190	161	166
총 면적에 대한 %	68.3	68.5	70.3
가정당 분배 면적	3.71	3.23	3.18

가구생산책임제의 첫 단계로 1980년에 包產到戶라는 제도가 공인되어 1982년까지는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표3-2> 참조). 이 제도 하에서 集體單位(生産隊)는 몇몇 가구를 묶거나 혹은 개별 가구에 대해 (1) 국가수매를 위한 농산물 생산 목표량 (2) 生産隊로부터 제공될 농지·생산원료·생산자금 (3) 달성된 생산목표에 대해 부여될 작업점수(工分) 등을 정한 생산계약을 맺었다. 생산계약에 대한 농지 할당은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때로는 가구별 생계안정을 위해 식구수에 의거한 할당도 실시했다. 생산목표량이 초과 달성되거나 미달되면 계약농가들은 이에 따른 보너스나 벌칙을 받게 되었다. 즉 개별 농가들은 각자의 작업성과에 따라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包產到戶는 개별화된 경작과정과 생산목표 달성에 대한 개별적 책임 부여라는 면에서 개별적 가족농업에 근사했다. 그러나 토지 등 주요 생산수단의 집단 소유, 집단적(국가지도적) 생산계획, 수확물의 집단 수거, 작업점수(工分)에 의한 생산결과의 집단적 향유라는 차원에서는 집단경제의 성격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특성, 즉 工分 체계에 의한 생산결과의 집단적 향유는 包產到戶를 이후의 생산책임제로부터 구분짓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包產到戶 아래서 계약농가들은 생산목표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졌지만 그들이 부여받는 工分の 단위당 가치는 집단(生産隊) 전체의 경제적 성과에 의해 결정되었다. (단위당 工分の 가치는 매년 生産隊 전체의 순생산량을 전체 生産隊員들이 얻은 工分の 합계로 나누어 정해졌다.) 生産隊 전체의 생산량이 生産隊에 속한 모든 대원들의 작업량에 의해 결정되는 한 개개인의 경제적 상태가 이웃들의 작업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블레처(Blecher, 1985)는 이러한 작업과정과 보상체계 사이의 모순은 包產到戶의 큰 취약점이었고, 따라서 이 제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 단계의 생산책임제인 包幹到戶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 블레처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包幹到戶라는 좀더 획기적인 가구생산책임제는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처음 실험되다가 1983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골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3-3> 참조). 이 제도 하에서는 농지의 사용권이 식구수와 성인노동자수를 감안해 개별 농가에 할당되고 개별 농가는 생산물 중 국가세금과 지역납부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단(生産隊)에 의한 통합적 회계·분배 체계가 중단되게 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1983-85년 기간 사이에 人民公社-生産大隊-生産隊의 집단적 생산·행정체계가 鄉政府-村民委員會의 일반 행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生産隊 그리고 뒤이어 村民委員會가 集體 소유 농지의 사용권을 분배하는 책임을 가졌으나 여타 주요 생산수단

들은 개별 농가에게 불하되었다. 토지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일정치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15년으로 일괄 연장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토지소유를 제외하면 농업은 集體經濟에서 私營經濟로 기본 성격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 사영화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주민 전체에 대한 절대적 고용보장 원칙은 지켜졌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가족농업은 집단농업과 마찬가지로 조직구성원 전체에 대한 고용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 일정 농토를 나눠줌으로써 노동력 과잉의 중국 농촌에서 완전고용 상태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근거로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에서 여전히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식적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사영화와 더불어 비농업부문의 경영에 있어서도 개인, 가구, 자율지역집단 등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전에 공사나 대대에 의해 운영되던 集體企業들의 일부는 경영권과 소유권이 개인기업가나 新經濟聯合이라는 지역자율집단에 넘겨졌고 동시에 농민들의 이농과 근거리 이주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농촌시장도 다시 열리게 되었으며 소규모 상공업 중심지로서 鎮들이 규모와 수 양면에서 빠르게 팽창하게 되었다.

농촌경제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鄧小平 지도 하의 共產黨이 공식적으로 가구생산책 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각 지방에서의 농업 사영화 과정이 당이나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지시에 의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지방에서 사영화는 사실상 사후에 추진된 것이며, 또 다른 많은 지방에서는 사영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다음 장이 보여주듯이, 심지어 같은 人民公社 안에서도 生產隊에 따라 사영화의 내용과 추진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2. 대하 생산대들의 탈집체화 과정 및 농업생산성 효과 회귀분석

개혁 초반 농업의 제도적 전환기에 나타난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뚜렷한 향상은 집단농업의 어떤 조직적 결함을 농업 발전의 걸림돌로 함께 인식한 중국 지도자들과 서구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암묵적 가정은 그러한 집단농업의 결함이 가족농업에서는 자동적으로 극복되리라는 것이었다. 비록 농업 탈집단화의 생산성 제고 효과에 대한 기대는 개혁 정권의 선전과 서구 관찰자들의 열렬한 칭찬 속에 대중들에게도 분명한 현실처럼 인식되었지만, 그러한 효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구체적인 경험연구들은 드물었다. 사실, 농촌의 경제향상을 제도적 재구조화 효과로 주장한 몇몇 연구자들은 농산물 수매가 대폭 인상, 작물과 판로의 다변화 등 여타의 개혁 조치들의 경제적 효과를 농업 생산조직의 탈집단화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 설명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참고문헌). 한 연구에서 이러한 외재적 효과가 통제되었을 때, 농업 탈집단화는 거의 무시될 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였다 (Kim, S., 1990).

설사 일부 민속지적 기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집단농업의 조직결함들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더라도, 가족영농으로의 탈집단화에 긍정적 생산성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가족의 조직적 특성 자체에 대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집단경작 단위였던 생산대의 구성원이자 대다수가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이웃이었던 사람들보다 상호간 더 조화롭고 협동적이었다고 (분명하고 체계적인 표명은 없이) 막연히 단순 가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 없었다. 분명히, 가족농업의 조직적 원리로서 상호관계적 도덕성은 작업 유인력과 감시성 같은 미시경제학적 문제의식과는 병립하지 않는다. 따

라서 자유주의적 분석가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농작업에서 자발적으로 협동적이고 부지런할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농민)가족의 이러한 특질이 개혁기 중국에서 농업생산성 추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이론적으로 핵심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하 생산대들의 탈집체화 개혁 직전과 직후의 총농업소득 결정요인들에 대한 일련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여기에 제시된 분석 결과들은 농업조직의 탈집단화가 (혹은 이에 수반된 작업 유인력과 감시성 강화가) 대하에서 1985년까지 지속된 농업생산성의 뚜렷한 신장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다른 설명이 필요함을 적시한다. 시대적 비교를 위해, 먼저 개혁 이전 상황을 살펴보자.

<표3-4> 1970-79 대하 농업생산성 결정요인 (Dstn)

TABLE 5-9.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of Determinants of Gross Agricultural Output at Dahe under Collective Farming, 1970-1979 (n=639).

Independent variables ^a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OLS coef's)
	Gross agr'l output in current rmb
Laborpower	123.387***
Per worker labordays	9.021***
Cultivated area	13.950
Land quality	2905.169**
Capital stock	0.039
Agricultural expenditure	0.408***
% workpoint distribution	11.687
State procurement quota	0.224***
Demographic dependency	18515.689***
1971	318.626
1972	-1785.415*
1973	-4183.606***
1974	-1016.580
1975	-4537.908***
1976	-8721.451***
1977	-5190.562***
1978	-4929.087***
1979	1419.115
Constant	-13064.283***
Adjusted R-square	.892***

+p<.1, *p<.05, **p<.01, ***p<.001

^aLabor power is the total number of adult workers; per worker labordays is the average number of annual working days per worker; agricultural expenditure is the total annual expenditure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 current year prices; % workpoint distribution is the percent of grain distributed by workpoints (vis-a-vis grain ration); the reference year for year dummy variables is 1970; see Table 5-6 for description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1970년대의 집단농업 체제에서 생산대 수준의 농업생산은 총경작면적, 토질, 전체노동력, 작업일수, 농업지출 등 통상적인 생산요소 변수들에 의해 통상 기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덧붙여, (국가 수매를 위한) 총판매(상납)할당량이 클수록, 또 인구부양비가 높을수록 농업 총소득이 늘었다. 총판매할당량은 그 달성이 집체 간부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면서 생산대원들에게도 중대한 경제적 사안으로서 일종의 연간 생산목표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지역에서 자체 소비되거나 자율 처분되는 농산물 규모가 할당량 초과분

에 비례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집체기에 국가의 농산물 인위적 저가 통제가 사실이라면, 곡물의 국가수매가와 자체 소비효용의 심각한 차이로 인해, 수매할당량 초과 생산에 대한 농민들의 동기가 특별히 강했을 것이다. 물론 수매할당량 달성이 갖는 정치적 중요성도 결코 무시될 수 없었다.

그리고 노동연령 및 비노동연령 인구의 상대적 비율인 인구부양비가 전체 농업생산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생산대 영농이 가족농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계소비를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도덕적 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높은 인구부양 부담이 농업생산 노력을 강화시키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차야노브적 농민가족(Chayanovian peasant family)처럼 중국의 농촌 생산대도 식량의 집단적 자급 철칙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가족규모로 정해지는 가족별 기본 생계소요에 의한 식량 배분에 대한) 공분 기준의 식량 배분 비율이 농업 생산성에 미약한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효과를 미쳤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공분에 의한 식량 배분은 각 생산대원의 노력과 능력을 경제적 보상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중심 장치였다. 만약 생산대원들의 근면한 작업태도를 위한 집단적 압력이 별 무소용이었고, 각자가 게으름이나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면 (즉 무임승차가 팽배했다면) 생산된 식량의 일배 배분이 많을수록, 혹은 필요에 의한 배분이 적을수록 농업생산성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생산대원들과 평생을 같은 도덕·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에서 생활해 온 중국 농민들은 (도시적) 시장교환의 물인간적 장에서 단기적 개인 이익을 좇는 여느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행동했던 것이다. 중국 농민들, 혹은 적어도 대하의 농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느껴진 생계소비의 압박이 각자의 작업노력이 개별적 보상으로 잘 연결되는지의 여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생산성 결정 요인이었다.

〈표3-5〉 1980-82 대하 농업생산성 결정요인 (Dstn)

TABLE 5-10.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of Determinants of Gross Agricultural Output at Dahe under Lianchan Jichou, 1980-1982 (n=287).

Independent variables ^a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OLS coef's)
	Gross agricultural output in current rmb
Laborpower	100.329***
Per worker labordays	1.996
Cultivated area	63.130***
Land quality	822.895**
Capital stock	0.211*
Agricultural expenditure	0.596***
% family labor land	-53.601***
% family size land	-14.029
State procurement quota	0.168***
Demographic dependency	21442.691*
1981	2482.657+
1982	-754.819
Constant	-8450.636
Adjusted R-square	.801***

+p<.1, *p<.05, **p<.01, ***p<.001

^aThe reference year for year dummy variables is see Tables 5-6 and 5-9 for description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1980-1982년 사이에 대하에서 보산도호 체제가 실행되었을 때도 앞서 살펴본 1970년대 집체시대처럼 통상적인 생산 투입요소들이 농업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전체 경작면적, 노동력, 고정자본, 농업지출이 그런 중요한 생산요소들이었다. 또한 국가수매량이 많을수록 농업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 또한 1970년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980-82년 기간에 생산대 수준의 고정자본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그리고 아래에 살펴볼 이 변수의 1983-95년 기간의 생산성 증대 효과 소멸은)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개혁기 들어 집체 차원의 자본 축적과 기반시설 개선이 심각하게 위협받았고 나아가 수많은 지역에서 아예 중단되기까지 했다. 따라서 농업 생산대들의 고정자본은 대부분 집체 시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며, 그 생산성 효과가 개혁 초기에 실현되기도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의 녹색혁명 노력도 초기에 대규모 투하비용(sunk costs)을 요했는데, 그 성과는 이후 수십여 년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 중국 농업생산성의 안정적 유지는 상당 정도가 모택동 시대에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미루며 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해 장기 기획한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농업 탈집단화를 구성하는 제도적 요인들 중 두 가지, 즉 가족규모와 가족노동력에 각각 의거해 분배된 생산대 토지의 비율들은 농업생산성의 유의미한 촉진 요인들이 되지 못했다. 실제, 가족노동력에 의해 분배된 생산대 토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생산대의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여기에서 비교(준거) 토지유형은 생산대 집단경작지이기 때문에, 그 함의로서 가족노동력에 의거한 탈집체 농업은 집단농업보다 덜 생산적이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농가의 기본적 생계소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족규모에 의거한 토지 분배는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지는 않았다. 식량 자급을 위한 가족농업은 생산대 농업보다 덜 생산적이지 않았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에게 개별 할당된 농지는 (가족노동력이나 사적 이윤보다는) 기본 생계소요에 조응될 때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된 또 다른 발견으로, (집체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구부양비가 높을수록 농업생산성도 높았다.

<표3-6> 1983-85 대하 농업생산성 결정요인 (Dstn)

Independent variables ^a	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OLS coef's)
	Gross agricultural output in current rmb
Laborpower	178.871***
Cultivated area	44.822***
Land quality	-34073.243***
Capital stock	0.401***
Agricultural expenditure	0.629***
% contracted-out land	-10.399
State procurement quota	-0.861 ⁺
Demographic dependency	-8594.042
1984	10799.951***
1985	13445.194***
Constant	39268.948***
Adjusted R-square	.649***

⁺p<.1, *p<.05, **p<.01, ***p<.001

^aThe reference year for year dummy variables is 1983; see Tables 5-6 and 5-9 for description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1983년 이후의 보간도호 체제 하에서 경제상황은 점차 달라졌다. 생산대(마을) 수준에서 총노동력, 총고정자산, 총농업지출이 많을수록 전체 농업생산량도 커진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토질은 오히려 농업생산량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대 전체와 1980년대 초반에 집체적 토지 관리 하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정) 비례했던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즉, 집단적으로 수행·감독되었던 토지 관리가 중단되자 양질의 토질이 오히려 토지 사용에 있어 부주의하거나 과도한 경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또한 마을 인민들 사이에 양질 토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심한 다툼이 해당 토지를 좁은 띠 모양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 이른바 “국수가락 농업(noodle agriculture)” 문제가 토질이 양호한 생산대들에서 특히 심각해 그 경제적 이점들을 모두 상쇄해 버리는 역설이 생겨났던 것 같다.

또 다른 흥미로운 추세로, 지역별 곡물 국가수매 할당량이 농업생산량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는데, 이 역시 1970년대 전체 및 1980년대 초반과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두 가지 동시적 변화들이 관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첫째로 대간보호로 집단 생산조직이 와해됨에 따라, 지역별 국가수매 할당량 달성에 위해 이전처럼 강력한 사회·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기 어려웠고, 둘째로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 시장거래에 대한 국가 통제가 상당히 이완되었기 때문에, (4장에 자세히 분석하듯이) 농민들이 국가 수매용 곡물 생산보다 더 수익성 높은 경제활동을 추구하려 들었던 것 같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중국 정부는 곡물수매 정책이 농업생산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추세로, 일정한 농업노동력이 주어졌을 때 지역의 인구부양비가 더 이상 농업생산 노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 곡물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화된 농업생산 체제에서 집단적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압력을 가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 인구부양비가 집체시대만큼 농업생산을 위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 것은, 이 문제가 가구(가족)별로 서로 다양하게 체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체 수준의 집단적 물적 생존이 이전처럼 강력한 공동목표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갈수록 다변화되는 경제구조 하에서, 높은 인구부양비를 가진 가구들조차 이전의 생산대 시대처럼 단순히 곡물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양한 경제적 대응을 했던 것이다. (아래 4장의 분석에서, 대하의 생산대들 사이에서 인구부양비가 높을수록 농촌 상공업 부문으로의 다변화가 촉진되었음이 드러난다.) 중국의 탈집체화된 농업은 집단적 생존윤리에 의거한 생산노력 강화라는 핵심 동력을 구조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끝으로, 토지(사용권)의 상이한 분배용도가 상응하는 농업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는 농업개혁의 제도적 성격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을 수반한다. (가구별 생계자족을 위한 구량지에 대비해) 집체(촌)와의 농산물 생산계약에 의거해 초과 달성에 따른 개별적 이익 실현이 가능한 승포지의 비율이 높다고 특별히 농업생산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승포지와 구량지의 농지(사용권) 배분 형식의 공식적 차이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대하의 농민들이 개별 할당된 농지가 (가족규모를 반영한) 가족의 생계충족이 목적이든 (가족노동력 및 추가 경작의지를 반영한) 농산물 국가수매와 시장판매가 목적이든 결국 비슷한 강도의 노력으로 경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간도호 체제의 도입직후 시기를 보면, 농지의 개별 할당이 생계 필요에 의한 것이든 생산 역량·의지에 의한 것이든 농업생산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생산대 토지의 대부분은 대하에서나 중국 전역에서나 개별 할당의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가족규모에 의해 그 사용권이 배분되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가

족규모는 가구의 경영(생산)능력보다는 생계소요(피부양식구)에 대해 더 직접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토지가 승포지로서 배분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가구별 생계소요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승포지와 구량지 사이에 농업생산 노력의 실제 양태가 크게 달라질 수 없었다. 더욱이 일단 토지가 개별 할당된 이후는 결국 각 농가가 모든 생산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체 책임(수익)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당연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길 필요는 없었다. 앞서 살펴본 보산도호 기간에도 각 가구의 식량자급 의지가 (소득증가를 위한) 경영동기에 못지않은 농업생산성 결정요인이었다. 따라서 승포지를 (구량지와 마찬가지로) 가구규모(식구수)에 의거해 배분한 것은 정치적 안정성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하에서 (구량지에 대비한) 승포지 비율이 농업생산성에 특별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현상의 또 다른 배경이다.

이상의 발견과 설명은 하북성 대하인민공사(향), 나아가 중국 농촌에서 농업의 (가구단위) 개별생산책임제를 구성하는 제도적 요인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개혁기 농촌 경제상황, 특히 농업소득의 괄목할 향상에 대한 핵심적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실, 탈집체화 과정에서 농지사용 및 농업투자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심각한 생산요소 배분의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ies)으로 인해, 가구경작과 집단경작이 공존하던 1980-82년 기간에 가구노동력 기준의 가족영농은 생산대의 집단영농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 그렇다면 개혁 초기에 나타나는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 향상은 생산조직의 탈집단화와는 별개의 요인들이 찾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영농의 부활에 대해 미시제도적 농업생산성 분석을 넘어선 사회주의 체제의 거시구조적 전환과 국가-농민 관계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

3. 대하 지역의 탈집체 사영농업 20년

1983년 농업에 대한 보간도호 제도의 전국적 도입 이후 대하는 다른 대다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 사영농업의 장기적인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졌다. 대하에 대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진 2003년 기준으로 (집단소유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영농업은 이미 20년의 기간에 걸친 제도적 실행 역사를 갖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0년 후이며 본서 집필 시점인 2023년에도 그 제도적 틀은 지속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2장에서 설명했듯이) 대하 지역 마을(촌)들에서 농지 (사용권) 배분은 거의 대부분 각 가구의 자체 생계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춘 구량지로서 이루어졌고, 자류지(텃밭) 및 승포지(계약재배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맞물려 농작물의 직접적 국가 구매는 거의 무의미해졌다. 아울러 대하 농가들의 소득은 대다수 마을에서 다양한 비농업 부문들에 집중되었다.

<표3-7> 2002년 가구농업소득 결정요인

Dependent Variable: log 2002년 가구농업소득 (n=193) (단위: 위안)		
Regressor	Model(1)	Model(2)
가구노동인력수	0.042(0.075)	0.096(0.069)
경작면적	0.028(0.028)	0.013(0.028)
가구농업생산지출	0.000(0.000)**	0.000(0.000)*

승포지 비율	-0.414(0.391)	-0.341(0.367)
가구부양비	-0.169(0.398)	0.182(0.370)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312(0.284)
贾村队		0.142(0.099)
双合队		0.348(0.123)**
纸房头队		0.478(0.106)***
Constant	2.896(0.375)***	2.461(0.360)***
Adjusted R square	0.162	0.321

+: p<0.1, *: p<0.05, **: p<0.01, ***: p<0.001

Note: 경작면적=승포지+구량지+자류지(단위: 亩);

승포지 비율=승포지/경작면적;

가구부양비: 비노동인력수/가구원수

<표 3-7>은 조사된 대하 지역 5개 마을 농가들의 2002년 가구별 전체 농업소득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것인데, 가구별 농업생산 관련 지출액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가구의 노동력, 경작면적, 부양비, 승포지(비율)는 분명한 효과가 없었다. 이후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가구의 노동력 규모는 (비농업 부문 생산활동 촉진을 통해) 비농업 가구소득의 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대신 여기에서 분석한 농업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내 (노인·아동) 부양비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유로) 농업 가구소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경작농지 중 (계약재배) 승포지 비율도 역시 가구소득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승포지 경작 농가가 워낙 드물고 그 평균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하 농가들의 농업소득은 토지나 노동보다는 주로 자본적 지출에 의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의거해 상승하였다.

<표3-8> 2002년 가구 농작물소득 결정요인

Regressor	Dependent Variable: log 2002년 가구농업소득 중 농작물생산소득 (n=108) (단위: 위안)	
	Model(1)	Model(2)
가구노동인력수	0.034(0.084)	0.082(0.081)
경작면적	0.053(0.033)	0.057(0.034)+
가구농업지출	0.000(0.000)*	0.000(0.000)*
승포지 비율	-0.153(0.596)	-0.258(0.547)
가구부양비	-0.025(0.527)	0.005(0.485)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030(0.282)
贾村队		0.019(0.138)
双合队		0.397(0.163)*
纸房头队		0.323(0.133)*
Intercept	2.689(0.526)***	2.417(0.483)***
Adjusted R square	0.258	0.39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8>에서 2002년 가구별 농작물소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비슷하다. 즉 가구별 농업생산 관련 지출액, 혹은 자본적 지출에 의한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가 가구의 농작물소득 증가로 이어졌으며, 아울러 가구 경작면적 크기도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보였다. 가구 농업소득 가운데 순수한 농작물소득에 대해서는 가구 경작면적 크기가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농지의 정상적인 농업상 활용을 나타내는 중요성이 있다. 이는 호구제도에 의해 농촌 거주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강제되는 대하 혹은 중국의 농민들이 주로 가구규모(식구수)에 비례해 사용권이 배분되는 집단소유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해 왔음을 의미한다.

4장. 농가경제와 농촌산업화

1. 탈집체 개혁과 농민-국가 관계

3장에서 설명했듯이, 1980년대 鄧小平의 농촌 경제개혁은 집단농업이 가족농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얻어진 농업생산성 제고 효과에 의해 성공한 것으로 흔히 여겨졌으나 막상 엄밀한 농업생산성 분석의 결과들은 그러한 가상을 잘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생산은 불안정기에 들어갔고 오히려 농촌 비농업부문의 생산이 폭증함으로써 농촌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농촌 산업화의 기반은 물론 毛澤東의 자력갱생적 농촌공업 발전 노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기의 농촌 산업화가 개혁 이전의 농촌 산업화와 다른 점은 단순히 농촌에 몇 백만 개의 공장을 세우느냐하는 문제가 아니고 농촌기업 활동의 조직적 기반과 이를 둘러싼 국가-농민사회 관계의 구조적 성격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지역 개혁의 핵심 조치로서 실시된 개별 가구 단위의 농업생산 책임제는 농업생산 조직체로서 人民公社의 제도적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고 결국은 그 폐지를 가져왔다. 人民公社가 형식상으로는 각 지역 농민의 집단체였지만 그 운영상 국가의 정치·행정 작용을 위한 말단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농촌의 탈집단화는 국가의 농민사회에 대한 통제력 이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에 덧붙여 농촌인구에 대해 자유로운 농업생산 뿐 아니라 비농업부문의 이출을 가로막던 정치·행정적 규제들이 서서히 풀려가게 되었다. 농촌지역 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人民公社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거주이전 및 직업변동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궁극적으로 사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허용된 것은 농촌인구의 ‘자영농화’ 욕구뿐 아니라 ‘탈농민화’ 욕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섰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인구가 주로 부근의 小城鎮(소규모 시나 읍), 더러는 지방 대도시나 上海 같은 거대도시까지 밀려나옴으로써 1979년 19.0%이던 인구의 공식적 도시화율이 1990년에 26.4%에 이르게 되었다 ([中國統計年鑑] 2001). 여기에다 공식적 허가나 신고 없이 도시로 밀려든 무작정 이농인구까지 감안하면 개혁기 중국의 도시화 추세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농촌지역 생산구조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68.9%이던 농업의 비중이 1985년에 57.1%로, 1990년에 46.1%로 낮아진 대신, 공업의 비중이 1980년의 19.5%에서 1985년에 27.6%로, 1990년에 40.4%로 비농업부문의 급증을 주도했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생산계획이나 재정투자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민사회 자체에 의해 투자되고 조직화된 기업 활동이 소규모 경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촌개혁의 핵심이 농촌 비농업부문의 성장으로 옮겨간 것은 중국 농촌의 거대한 경제적 과잉인구 내지는 유희노동력의 존재를 감안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의 공식 통계상으로 농촌 또는 농업과 관련한 실업인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실업인구 통계는 오직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제3장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농촌인구가 비농업부문의 기업에 항구적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생산자로서의 지

위를 자동적으로 갖기 때문에 실업인구로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근거한다. 이러한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나 생산단위별 이윤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존재하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집계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농업 생산기술 수준과 경작면적을 감안할 때 잉여 농업노동력의 규모는 이미 1981년에 적정 농업노동력의 규모보다도 많아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농업노동력 가운데 도덕적 혹은 정치적 원칙에 의해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잉여노동력 비율이 1981년에 절반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농업부문에 이처럼 과도한 유휴노동력이 존재할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농촌지역 내의 비농업부문에 대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휴노동력을 아예 도시지역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중국의 현실에서 후자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개혁 이전에 자본 집약적 중공업 위주로 한 도시경제가 극히 제한된 ‘노동흡수력’(labor absorption capacity)만을 갖고 있었으며, 개혁기에 들어서 도시 國營企業 개혁의 핵심이 바로 각 단위 내 잉여노동력의 축출에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는 대안은 농촌지역 내에서 비농업부문의 대체고용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며, 중국은 1984년을 기점으로 바로 이러한 노력에 성공함으로써 농촌 유휴노동력의 점진적인 흡수에 덧붙여 농촌 경제 전체의 폭발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생산조직의 측면에서 이른바 鄉鎮企業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원래 농촌의 集體企業은 1983년까지는 社隊企業으로 불려졌다. 이는 人民公社나 生產大隊 단위에서 운영되는 集體企業이라는 뜻이었는데, 1984년부터 人民公社 체제가 공식적으로 해체됨으로써 이 명칭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4년부터 鄉鎮企業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鄉(면)이나 鎮(읍)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뜻이다. 鄉은 이전의 人民公社가 행정적 단위로 성격이 바뀌면서 개칭된 것이고, 鎮은 농촌지역의 상업·행정·교육 중심지가 성장한 인구밀집지로서 개혁기에 그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반(半)도시적 단위이다. 鄉鎮企業은 社隊企業과는 달리 소유구조가 全鄉·全村의 集體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個體戶, 私營企業 등 완전한 사적 소유도 있고, 부분적 주식합작, 國家企業과 외국기업의 자본합작 등 다양한 혼합소유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개혁 초기에는 鄉鎮企業을 자본주의적 요소로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鄉鎮企業 외에 鄉村企業이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이는 개혁 이전의 社隊企業에 대응하는 것이며, 엄밀하게 따지면 鄉과 村(마을) 단위의 集體企業들인 鄉辦企業과 村辦企業을 함께 지칭한다. 鄉村企業과 대비하여 鄉鎮企業은 鄉村企業들과 鎮 소재 기업들을 함께 포괄하는 범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용어가 공식 국가통계에서까지 혼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鄉鎮企業의 수, 참여노동력, 생산규모가 1984-85년경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비농업부문의 사적 기업활동을 용인하는 정책결정이 1984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부터 농촌지역 개혁의 원동력은 사영농업보다는 농촌상공업 쪽에서 찾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개혁기 鄉鎮企業의 성장이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동남해안지역들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지역차는 동남해안지역들이 교통·통신을 비롯한 각종 산업입지 조건이 좋고 농업 및 도시공업의 상태도 양호해 자본·기술·원료·판매 차원의 산업간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鄉鎮企業의 성장에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음식업 등 2·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화’가 꾸준한 성공을 거둠으로써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궁극적으로 농업 내부의 방대한 유희노동력 문제가 약간이나마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완전히 농업의존적이거나 행정지배적인 농촌경제 발전전략의 한계를 적어도 개혁기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개혁지도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즉, 농업사영화에 즉각적으로 뒤이어 村·鄉·鎮 단위에서 자율경영을 하는 비농업기업들에 의한 농촌 산업화가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층 정부단위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내려온 중앙정부의 지시도 존중하지만 지역사회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대변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들어 거시적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분권화가 장려되었기 때문에 농촌의 기층정부는 지역 농민사회를 제도적으로 대표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대표성이 특히 향진기업의 발전에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개혁기 농촌 산업화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사영농업의 도입과 다양한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그 과정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鄉鎮 산업화는 농민인구로부터 노동력뿐 아니라 생산자본, 경영조직, 나아가 상품수요까지 제공받음으로써 농민경제 내부의 토착산업화로서의 성격을 매우 강하다. 가족농과 농촌 산업화의 이러한 경제적 연계성은 국가가 농민사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사회를 활용해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소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몇 가지 초기 개혁조치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고 북경의 개혁지도부가 이러한 개혁조치들로 인해 그토록 폭발적인 농촌 산업화가 전개되리라고 예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2. 대하향 탈집체화의 향진산업화 유발효과 분석

개혁기 부활된 가족 단위 사영농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은 농업생산과 농촌경제 다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분석들에 의거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에서의 “가정생산책임제” 도입과 농촌 인민의 고용·소득 구성의 다변화 사이에 체계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제시할 농촌 탈집체화 초기 대하 지역 생산대들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소속 인민들의 빠른 경제활동 다변화가 자율적 가족농업 (재)확립에 분명히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표4-1〉 聯產計酬 시기 (1980-1982) 大河지역 生産隊들의
노동력 다변화 결정요인 (n=292)

독립변수 ^a	종속변수 (비표준화 OLS 계수)			
	전체 신형 노동력(%)	專業戶 노동력(%)	新經濟聯合 體노동력(%)	社辦/村辦 노동력(%)

畝당 노동력	-11.540	-.059	-.251	15.067**
토질	19.840***	-.014	-.075	3.110
노동자당 고정자본	.013	-.00007	-.0003+	.004
성원당 집체기금	-.048**	.0001	.0004	-.003
노동자당 식량수매량	-.013**	-.0000006	-.000005	-.006**
피부양인구비율	9.766	.018	.082	35.428***
勞働分地 비율	.013	-.0001	-.0006+	.027**
人口分地 비율	.076+	.0006*	.003***	.045*
1981	.002	.003	.013	-.758
1982	3.092	.018	.089*	-3.814***
상수	-.166	.036	.167	-21.456***
수정 R ²	.219***	.012	.051**	.295***

+p<.1, *p<.05, **p<.01, ***p<.001

^a畝당 노동력은 1畝(0.0667 ha)당 성인노동자 수; 토질은 양토를 1, 악토를 0.5로 가중계산한 토질 지수; 노동자당 고정자본은 성인노동자 1인당 전체 생산재의 현재가격(圓); 성원당 집체기금은 생산대 성원 1인당 저축된 집체기금(圓); 노동자당 식량수매량은 성인노동자 1인당 식량 국가수매 할당량(斤=0.5kg); 피부양인구비율은 전체 생산대 인구 가운데 비노동인구의 비율(%); 勞働分地 비율(%)과 人口分地 비율(%)은 집체경작지와 대비된 것임; 연도 가변수들은 회귀등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요인들의 각 연도별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비교기준 연도는 1980년임.

〈표4-2〉 大包幹 시기 (1983-1985) 大河지역 生産隊들의
노동력 다변화 결정요인 (n=293)

독립변수 ^a	종속변수 (비표준화 OLS 계수)			
	전체 신형 노동력(%)	專業戶 노동력(%)	新經濟聯合 體노동력(%)	社辦/村辦 노동력(%)
畝당 노동력	24.350*	16.429***	2.965	-55.427***

토질	-13.602*	-.224	-3.364*	-5.805*
노동자당 고정자본	.073***	.023***	.007**	.014**
성원당 집체기금	-.034	-.013	.007	-.059***
노동자당 식량수매량	-.026	-.007	-.005	.015
피부양인구비율	79.027***	41.808***	12.620**	-17.724*
承包地 비율	.056	-.007	.0008	.014
1984	2.568	-1.550	-.446	.495
1985	4.618+	.036	-.071*	.166
Constant	-33.439**	-28.067***	-5.306+	39.311***
Adjusted R2	.282***	.217***	.074***	.390***

+p<.1, *p<.05, **p<.01, ***p<.001

^a承包地 비율(%) 口粮地和 대비된 것임; 연도 가변수들의 비교기준 연도는 1983년임; 다른 독립변수들에 설명은 표 5-5 참조.

<표4-1>는 1980-82년 사이 보산도호 기간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생산대 토지는 가구규모(식구수)나 가구노동력(생산연령인구)에 의거해 그 사용권이 배분되거나 생산대 차원의 집단경작을 위해 남겨졌다. 가구규모에 따른 배분은 각 농가의 생계수요를 반영하는 취지였고, 가구노동력에 따른 배분은 각 농가의 경작능력을 반영하는 취지였다. 생산대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구규모에 따른 농지(사용권)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농가별 특화생산, 신경제연합 참여, (인민공사나 마을 소속) 집체기업 고용 등 새로운 (비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인민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구규모에 따른 농지 배분은 각 농가의 독자적 생계수요 만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자율성 제고는 궁극적으로 가족노동력의 산업부문적 다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대하 생산대들의 가족노동력에 따른 농지 배분 비율의 증가는 소속 인민의 집체기업 고용 비율의 증가로만 이어졌고, 신경제연합 참여 비율을 오히려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가족노동력에 따른 농지(사용권) 배분은 가족별 농지 면적과 노동력 규모 사이의 연계정보다는 국가에 대한 농업생산 의무 부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경제연합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높은 노동력-토지 비율과 인구부양비 등 사회생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산대의 (혹은 그 상위 집체의) 간부들은 인민공사나 마을 단위 집체기업의 (비농업 부문)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며, 반면 국가에 대한 곡물수매 할당량이 클 때는 이러한 노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체기업 고용을 둘러싼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서 이 시기에 인민공사나 마을 단위 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탈집체화가 본격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4-2>에 제시된 1983-85년 보간도호 시기의 상황은 생산대(마을) 차원 노동인구의 부문별 구성과 제도·생태적 조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보간도호 하에서 집단소유 농지의 농가별 사용권 배분은 구량지나 승포지로서 이루어졌다. 구량지 배분은 각 농가의 곡물 생계수요를 반영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보산도호 기간의 가구규모(식구수)에 따른 농지 배분과 같은 성격의 제도였다. 승포지 분배는 곡물의 국가수매분 생산과 지역(집단) 소요 충족을 둘러싼 기초 지방정부와 각 농가 사이의 협상을 반영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구량지와 승포지 모두 대체로 가구규모(식구수)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지의 공식적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농가의 자율적 생산 노력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생산대 차원에서 구량지와 승포지의 상대적 비율이 소속 인민 경제활동의 부문적 다변화에 특별한 차이를 초래하지 않았다.

반면, (개별 농가들이나 소속 집체의 재정적 능력을 반영하는) 노동자 1인당 생산자본 규모는 소속 인민의 농가별 특화생산, 신경제연합 참여, 집체기업 고용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소속 마을의 높은 노동력-토지 비율과 인구부양비라는 사회생태적 압력에 대해 이제 생산조직으로서 전면 자율화된 농가들 차원에서 농가별 특화생산과 신경제연합 참여와 같은 경제활동 다변화를 통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의 농촌산업화가 이제 농가들의 자율적 노력에 기초해 개별적 혹은 협력적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4-3> 1980-82년 JDS 대하 신산업 소득 결정요인 (JDS)

TABLE 6-10.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of Determinants of New Rural Industrial Income at Dahe under Lianchan Jichou, 1980-1982 (n=208).^a

Independent variables ^b	Unstandardized OLS coefficients
Per mu labor	-18951.398
New industrial LF	219.011 ⁺
New industrial land	84.685 ^{***}
New industrial expense	-0.199
State procurement quota	0.321 ^{***}
Demographic dependency	-13458.653
% family labor land	0.453
% family size land	-0.115
1981	-4343.973
1982	-739.161
Constant	-16313.760
Adjusted R-square	.269 ^{***}

⁺p<.1, *p<.05, **p<.01, ***p<.001

^aIncomes (in current prices) generated from specialized household production, New Economic Associations, commune and brigade-run enterprises.

^bNew industrial LF, New industrial land, and New industrial expense are respectively adult labor, land, and expenses (in current prices) employed in the above three types of non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ference year for year dummy variables is 1980; see Tables 5-6 and 6-8 for description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표 4-4〉 1983-85년 JDS 대하 신산업 노동 결정요인 (JDS)

TABLE 6-11.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of Determinants of New Rural Industrial Income at Dahe under Da Baogan, 1983-1985 (n=253).^a

Independent variables ^b	Unstandardized OLS coefficients
Per mu labor	-102559.795**
New industrial LF	-92.455
New industrial land	-14.465
New industrial expense	1.599***
State procurement quota	-2.666
Demographic dependency	5855.966
% contracted-out land	-9.438**
1984	17640.025**
1985	19739.106**
Constant	142055.748***
Adjusted R-square	.471***

+p<.1, *p<.05, **p<.01, ***p<.001

^aIncomes (in current prices) generated from specialized household production, New Economic Associations, township and village-run enterprises.

^bNew industrial LF, New industrial land, and New industrial expense are respectively adult labor, land, and expenses (in current prices) employed in the above three types of non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ference year for year dummy variables is 1983; see Tables 5-6 and 6-9 for description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표 4-3〉과 〈표 4-4〉에 생산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제시된 농촌의 새로운 산업(상공업)소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는 가족 단위 사영농업 (재)확립의 농촌 산업적 효과는 주로 초기에 농가 노동력의 부문간 다변화와 이후 그것의 소득효과를 통해 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보산도호(1980-82) 기간의 탈집체적 농업생산 방식이 직접적으로 새로운 산업소득 증가로 이어져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산업활동으로의 노동과 토지 할당 증가가 새로운 산업소득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발했다. 보간도호(1983-85) 기간에는 새로운 산업 지출 증가가 새로운 산업 소득 증가로 이어졌으며, 높은 승포지 비율이 (혹은 낮은 구량지 비율이)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후자의 추세는 이 시기에 구량지 분배에 수반된 농가들의 경영자율성 강화가 비록 농가노동력의 부문 다변화를 직접 촉진시키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산업활동 소득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끌어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제시된 대하의 초기 농촌개혁 경험을 요약하면, 가족 단위 자율적 영농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도입한 생산대들은 경제 부문적 다변화에서도 뚜렷하게 앞서 나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중국 농촌에서 농업-상공업간 산업적 연계는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다부문적 생산조직으로서의 농가들의 개별적 혹은 상호협력적 노력의 중심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대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전역에 걸쳐 발현된 것이며, 이것이 1980년대 중후반에 농업과 도시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전대미문의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었던 핵심적 기반이었다.

3. 탈집체화 20년 경과 시점 대하향의 농가경제 다변화 결정요인: 이토불이향(離土不離鄉)의 구조화

농촌 생산조직의 탈집체화 20년 시점인 2003년 전후로 농촌산업화는 더 이상 중국 경제의 가장 중심적 동력으로 보기도 어렵고,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 갈수록 구조화되었다. 대하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는 마찬가지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가의 경제활동과 소득획득은 비농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2003년 조사된 대하 다섯 마을 농가(n=285)들 가운데 2002년 기준 가구별 전체소득에 대한 비농업부문 점유율이 80-100% 사이인 비율이 78.2%에 달했고, 50-79% 사이인 비율이 10.9%, 그리고 (농업 중심 가구로 볼 수 있는) 0-49% 사이인 비율도 10.9%였다. 본서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하의 285가구들의 농업소득은 평균적으로 935.82위안이었는데, 이는 전체 소득의 7.29%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신 가구별 개체호 소득과 기업노동 소득 평균이 각각 4060.25위안과 2747.54위안으로 전체 소득의 31.4%와 21.41%를 점해 가장 중요한 두 소득원이었고 합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그 외 기업경영 소득(1751.93위안; 13.65%)도 농업소득을 넘어섰으며, 상공업보다는 농업처럼 1차산업 성격인 양식업 소득(537.54위안; 4.19%)이 농업소득을 뒤따랐는데, 이 두 부문은 제한적 참여 분포를 감안할 때 실제 해당 가구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대하의 인민들은 개혁 초기부터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정책 기조였던 이토불이향(離土不離鄉)을 농촌 탈집체화 20년의 시점에도 견지하고 있었으며 그 20년 후인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하북성 성도 석가장의 경제·사회·물리적 팽창으로 대하는 그 행정적 지위의 분리와는 별개로 갈수록 대도시 교외지역 혹은 주변부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하 인민들에게 이토불이향의 경제·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기본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4-5> 2002년 대하 농가 총소득 비농업소득 결정요인

Regressor	Dependent Variable	
	log연간가구소득 (N=285)	log연간가구비농업소득 (N=265)
가구노동인력수	0.191(0.083)*	0.148(0.075)+
경작면적	-0.010(0.028)	-0.001(0.025)
가구농업생산지출	-2.066E-5(0.000)	-5.551E-5(0.000)
승포지 비율	-0.540(0.376)	-0.529(0.333)
가구부양비	-0.221(0.409)	-0.507(0.370)
핵가족 여부	0.029(0.090)	-0.032(0.082)
가구교육수준	-0.001(0.012)	0.000(0.011)
1980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51(0.080)	-0.082(0.074)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155(0.296)	0.078(0.261)

贾村队	-0.360(0.093)***	-0.440(0.085)***
双合队	-0.158(0.127)	-0.057(0.115)
纸房头队	-0.009(0.109)	-0.086(0.097)
Constant	4.103(0.449)***	4.323(0.405)***
Adjusted R square	0.210	0.341

+: p<0.1, *: p<0.05, **: p<0.01, ***: p<0.001

Note: 종속변수인 연간가구소득은 설문문항: Q71을 통해 측정한 것임. 구체적으로 연간가구소득은: (1) 농업소득, (4) 기업근로소득, (5) 기업경영소득, (6) 개체호소득, (7) 타지알바소득, (10) 토지임대소득, (11) 양식업소득, (12) 기타 소득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연간가구농업소득은 (1) 농업소득, (11) 양식업 소득을 포함, 연간가구비농업소득은 (4) 기업근로소득, (5) 기업경영소득, (6) 개체호소득, (7) 타지알바소득, (10) 토지임대소득, (12) 기타 소득 등 항목을 포함하였음.

설명변수에서 가구교육수준은 응답자와 응답자의 배우자 2인의 교육년수 합계

<표4-5>는 대하 농가들의 2002년 연간 총소득 및 비농업소득에 대해 가구별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선 이미 지적한 대다수 농가에서 비농업소득의 압도적 중요성을 반영해, 총소득과 비농업소득은 그 결정요인들이 대동소이했다. (그리고 비농업 소득이 뚜렷이 제한적인 매촌을 제외하면 농가 총소득 및 비농업소득에 대한 마을(생산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농가의 경작면적, 농업생산지출, 승포지 비율 등 농업적 조건들은 총소득과 비농업소득에 대해 중요한 효과가 없었다. 아울러 가구별 (노인, 아동) 인구부양비와 가족구조(핵가족 여부)도 별다른 소득 효과가 없었다. 또한 가구원 교육수준(응답자 및 배우자 교육년수 합계)과 (이미 형식화된) 사회·정치적 가족배경으로서 계급성분도 총소득과 비농업소득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별 특성들 가운데 가구노동력 규모가 총소득 및 비농업소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는 농촌개혁 시작 단계부터 농촌 상공업 성장이 생산조직 탈집체화에 수반된 가족의 제도적 자율성에 의해 촉발·견지되었다는 본 장 앞선 절들의 분석결과와 논리적으로 합치된다. 즉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로부터 농가의 제도적 자율성은 생산체제에 대한 정책적 전환과 아울러 그 인적 기반으로 적절히 가족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농민들의 출산욕구 증가 및 남아 선호(확보)를 초래해 (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개혁정책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지속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켰다. 즉 가족 중심 생산활동을 (부문별로 정책의도는 달랐지만) 전방위적으로 활성화시킨 농촌 경제개혁 정책과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한계를 인위적 산아제한으로 완충시키고자 지속된 인구정책 사이에 직접적 모순이 생겨난 것이다.

<표4-6> 2002년 대하 개인 비농업 진출여부 결정요인

Regressor	Dependent Variable: (개인)비농업직 여부 (비농업직=1, 농업직=0)	
	Model(1)	Model(2)
성별_남성 여부	0.578(0.394)	0.361(0.438)
연령	-0.071(0.019)***	-0.081(0.021)***
교육년수	-0.022(0.070)	-0.035(0.074)

정치면모_당원	0.521(0.529)	0.558(0.565)
핵가족 여부	0.316(0.353)	0.169(0.371)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926(0.404)*	-0.891(0.430)*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430(0.605)
贾村队		-1.447(0.487)**
双合队		0.344(0.545)
纸房头队		-0.405(0.665)
Constant	4.667(1.380)**	5.910(1.558)***

+: p<0.1, *: p<0.05, **: p<0.01, ***: p<0.001

Note: 비농업직 여부는 Q84: “2003년 귀하의 직업유형은?” 문항을 통해 측정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Q84_2: 농업고용노동자, Q84_3: 기업고용노동자, Q84_4: 개체호, Q84_5: 사영기업가, Q84_6: 간부, Q84_7: 농촌장인, Q84_8: 전문가, Q84_12: 기타 직업 등 항목이 포함됨. (비고: 가사와 퇴직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4-6>은 2003년 대하 조사에서 응답자 개인 차원의 비농업부문 진출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것인데, 연령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비농업부문이 주직업이 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처럼 젊을수록 비농업부문 진출이 활발했다는 것은 사실 세계 전역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울러 가족적(과거) 계급배경으로서 빈농·하농 지위가 비농업부문 진출의 저하로 이어졌는데, 이 효과는 바로 체계적인 설명이 어렵지만 선대 가족의 빈곤 경험이 시장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소극성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성별, 교육년수, (공산)당원 여부, 가족구조(핵가족)는 비농업직 진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교육년수와 성별의 제한적 효과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하 인민들의 비농업 활동이 대부분 이토불이향 범위에서 이루어진 자영업이나 하위 산업노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을별로는 (위의 가구 총소득·비농업소득 결정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촌 인민들만 다른 마을 인민들에 비해 비농업부문 진출이 뚜렷이 제한적이었다.

5장. 복지체제의 탈사회화: 집체복지와 가족복지

1. 탈집체 농촌개혁과 복지체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은 주로 생산과정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소비·복지의 측면에서도 근본적이고 급속한 변화들을 초래했다.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생산과 복지를 분리된 문제로 인식·취급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복지수요가 저절로 충족되도록 이른바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모든 인민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한 노동자 중심의 고용·분배 원칙을 갖는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체 내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욕구를 안정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들이 생산·복지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개혁이 생산체제뿐 아니라 복지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내포했음을 뜻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에 있어 복지체제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자유시장경제에서처럼 경제조직체들이 노동자 복지가 아닌 이윤·매출 외형만을 경영지표로 삼는 순수 생산체제로 바뀌고 대신 복지는 별도의 재원과 서비스 조직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는 길이 있다. 둘째, 개혁의 결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경제조직체들이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들처럼 생산과 복지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있다. 사회주의의 개혁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한다면 장기적으로 첫번째 방향으로의 변화가 기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의 사례에 따르면 복잡다양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두번째 방향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정확히 말해, 명시적 개혁 이념 또는 이론으로서는 첫번째 변화가 내세워졌지만 실제 개혁의 진행 추이는 두번째 변화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대다수 (구)사회주의 사회들의 개혁과정을 보면, 생산체제의 개편과 별도로 독립된 복지체제의 확립을 위한 재정·조직적 기반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일 여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들의 전면적 개편은 생산체제에 내재된 집단적 복지기제들의 자동적 해체를 가져왔고,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 보건 등의 실태가 집단적으로 악화되는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이 위험성은 특히 개혁의 정치·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탈국가·탈집체 경제조직체들의 생산기능뿐 아니라 복지기능도 개혁의 장기적 성공에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탈국가·탈집체 사영 경제조직체들은 이전의 사회주의적 경제조직체들과 달리 정치적 강제에 의해 생산·복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 이들의 경영상 자율성은 바로 관료통제적 국가경제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 요소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적 경제조직체들이 자율적으로 갖는 행위원리들 가운데 생산·복지의 통합적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가려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때 사적 경제조직체들의 자율적 행위원리는 자유시장경제의 역사가 일천한 대다수 (구)사회주의 사회들에서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강했다.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현대적 이론이나 경험이 결여

된 기층 인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개혁기에 재활성화된 전통문화의 규정력이 강해졌다. 여기에서 사회주의권의 자유주의적 경제개혁(liberal economic reform)이 현실적으로는 전통문화의 토양 위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 드러난다.

이러한 개혁의 실정은 집단적·국가적 생산체제가 해체되고 개별 가족 단위의 자작소농 체제가 들어선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가장 먼저 실용주의 (혹은 자유주의) 개혁을 본격화한 중국을 위시해서 거의 대다수 (구)사회주의 사회들의 개혁은 농촌경제에 대해 가족농 중심의 재편을 추구했다. 이때 가족농체제의 부활은 집단농업의 작업유인력 결핍 문제를 회피한다거나 농촌에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등의 근거도 갖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조직체의 생산·복지 통합 기능을 가족농을 통해 유지시키는 의의를 갖고 있었다.

차야노브(Chayanov) 등의 고전적 농촌연구자들에 따르면, 가족농은 구성원 전체의 생계 충족을 핵심적 행위원칙으로 삼는 복지중심적 생산조직체이며 농업 및 가사의 집단적 수행은 바로 도덕적 상호부양 의무의 실현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농에 의한 영농은 농민가족 내부의 도덕적 유대를 유지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토지, 가옥 등 주요 생산 및 생활 수단의 집단적 소유, 소속 가족성원 전체의 생산 참여 허용(강제?), 그리고 집단적 생계소비는 바로 그러한 도덕적 규범의 표현으로서 경제활동에서 집단적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을 실현시키는 것이다.¹¹⁾ 가족농은 사회주의 농업집단체와 비교해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비록 조직 규모(식구수 또는 영농규모)도 작지만, 내부적인 경제활동의 원칙은 생산과 복지를 집단주의적으로 구현시킨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족농과 농업집단체의 유사한 경제활동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특히 아래에서 검토되는 것처럼 중국 농촌의 8억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농업이 불과 수년 사이에 전면적 체제 개편을 거친 가운데서도 농업생산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이 지속되었다는 경이적인 현상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농 부활의 생산적 의의와 복지적 의의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다단계 농업 생산체제 개혁은 중국적으로 1983년에 包幹到戶 제도에 기초한 사영농업 체제의 부활을 가져왔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각 농가가 집단소유 농지에 대한 경작권(사용권)을 口糧地와 承包地의 두 유형으로 할당받아 개별적으로 경작하고 생산물 가운데 국가 세금과 지역 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국가에 수매하거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口糧地는 각 농가별 생계수요의 척도로서 식구수에 비례해 분배된 일종의 사회보장적 장치이며 대체로 10년을 사용기간으로 했다.¹²⁾ 承包地는 원칙적으로 각 농가의 생산능력과 생산의욕을 반영해 국가에 대

11) 집단적 합리성은 이기적인 경쟁의 상황 하에서 일부 또는 다수 성원들이 도태를 겪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집단적인 공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집단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행위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집단적 차원의 거시적 합리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12) 口糧地의 사용기간에 대해 일부 혼선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15년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필자가 극히 최근인 1995년 2월에 중국의 동북지역인 河北省, 중남부지역인 四川省, 남서부지역인 雲南省 등의 현지 농민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1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承包地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하지만 사용 규모의 결정은 연속성이 크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사용 기간을 30년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중앙 행정당국인 國務院에 의해

한 일정한 수매 의무를 전제로 입찰되는 계약 농지였지만, 이 역시 각 농가의 식구수나 노동력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었다.¹³⁾ 각 농가가 집단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할당받아 개별적인 경작을 하는 包幹到戶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던 生産隊 단위의 집단경작을 전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 체제의 조직적 틀인 人民公社와 그 하부조직들은 그 존립의 핵심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 1983-1985년 사이의 기간에 행정적 기능은 村民委員會와 鄉政府에 넘기고 농민생활의 기본 단위로서의 역할은 개별 농민가족에 넘기고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로 중국 농촌은 혁명 이전의 장구한 역사에 존재했던 것과 유사한 영세 가족농체제가 부활되었다. 따라서 개별 가족농이 가진 생산·복지 원리의 합(aggregation)이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촌의 탈집단화는 농민복지를 이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농업생산의 사영화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평균적 소득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상태에 놓이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막상 집단적 농민복지 기제는 그 조직·재정 기반이 붕괴되어 나갔다. 우선, 집단생산의 중단으로 각 농가에 대한 생계식량 공급의 사후적 보장이 불가능해졌으며, 다만 개별 경작을 위한 농지사용권의 배분에 있어 식구수에 의한 口糧地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전적인 생계보장을 피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각 농가의 가족구조와 생산노력에 따라 실제 생계보장의 실현 여부가 좌우되었다 (본서 제8장 참조). 즉, 가족의 규모, 구조, 기타 인적 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해 생산조직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농가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해 복지조직체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생산과 복지에서의 동시적인 가족의존 전략 하에서는 복지수요충일수록 복지여건이 나빠지는 모순이 있다.

그동안 새로운 공적 복지제도들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개별적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의료, 노후 생계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제도들도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곤궁자들에 대한 재분배적 안정장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비부담이란 복지의 시장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농민들은 자기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여야만 복지 수요에 대한 사전·사후적 충족이 가능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조용하여 개혁 이전에 人民公社의 조직체계를 통해 제공되던 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점차 상품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 부문의 전문 인력이 더 이상 국가나 집체 소속으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個體戶로서 사적 이윤추구에 나서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¹⁴⁾

〈표5-1〉 1970-1985년 기간 大河지역 生産隊들의 평균적 집단 복지지출 규모 및 구성 (圓)

전년도	금년도	전체	곤궁자	교육	건강관리	기타
-----	-----	----	-----	----	------	----

승인되었다고 한다.

13) 앞서 소개한 필자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간부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많은 면적의 承包地를 직접 경작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공공부문의 직업활동을 지속하더라도 퇴근 후에 개인적인 영업에 나서는 부업종사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적 영리추구시에만 정성을 들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월분 복지기금	추가분 복지기금	복지지출	지원	및 위생		
1970	254.8	258.5	169.8	14.0	3.2	55.3	19.4
1971	340.6	213.7	187.3	13.8	5.5	53.1	24.5
1972	390.2	202.4	191.7	7.1	0.9	56.1	32.3
1973	358.7	220.2	206.0	18.3	3.2	62.9	68.4
1974	347.9	243.1	195.7	20.8	2.2	76.0	53.4
1975	608.7	295.1	142.7	18.1	2.2	101.9	45.2
1976	454.6	200.0	130.0	8.5	5.0	83.9	9.9
1977	652.0	407.0	340.1	10.9	6.6	141.0	119.6
1978	750.2	734.8	435.8	11.9	6.0	132.3	72.2
1979	1440.2	1023.0	407.6	106.5	31.9	112.2	118.5
1980	1389.2	1143.4	656.9	50.6	16.3	151.6	482.0
1981	1833.2	1190.3	660.5	55.9	13.4	59.6	531.8
1982	2314.6	1064.2	786.0	40.2	39.7	46.7	636.6
1983	2536.3	582.5	805.6	50.9	154.7	38.3	565.0
1984	2272.3	438.7	664.6	89.6	139.9	20.5	418.4
1985	2070.5	523.3	510.8	39.3	129.3	5.6	349.2

국가의 농민복지에 대한 극도의 소극적 입장은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체 공공복지비 가운데 대(對)농민 지출 비율은 1970년대까지도 최하 10%선을 유지했으나, 개혁기에 들어 점차 감소해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10%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개혁 이전의 비율도 농촌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극히 낮은 것이지만, 개혁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감소하게 된 것은 농민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포기를 그대로 드러낸다. 여기에 집단적 사회보장 제도들이 상당 부분 와해된 상태에서 전국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기구로 등장한 民政部는 그 조직체계상 전문적 복지행정 기구로서의 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개혁기에 들어서 농민복지는 더 이상 생산체제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가 독립된 조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해결해야 하는 독립된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계속 지체되어 온 것이다. <표5-1> 대하지역 생산대들의 복지지출 규모 및 내용은 이러한 거시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후 중국 정부는 社會保障部를 신설하고 社會保障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조차 도시 國營企業의 개혁을 위해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안정화시켜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고령자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국가 주도로 정착시켜 모든 임금노동자에 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보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國營企業의 경영 합리화에 있어 핵심 장애물인 기업 단위의 노동자 사회보장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¹⁵⁾

15) 일부 부유한 지방에서는 이에 관한 국가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廣州市社會科學院, 1994 참조).

결론적으로, 개혁기 중국 농촌의 시장경제 하의 방임적 복지체제는 기초 생산단위가 된 농가의 자체 부양기능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농촌지역 개혁의 공식 조치로서 가구별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구별 복지책임제도 함께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 단위의 사영농업과 함께 가구 단위의 사회부양(social support)은 개혁기 중국 농촌에 등장한 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한 핵심요소이다. 다시 말해, 생산과 복지에서 모두 가족중심주의적 사회질서가 중국 농촌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3. 집단사회주의에서 신가족주의로: 사회정책 전환과 대하 농민의 대응

이상에서 논의한대로 개혁기에 들어 중국 농민들에게는 가족 단위의 자체적 부양능력만이 보편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되었다. 중국 농민들이 처하게 된 복지 환경은 더 이상 국가지도부의 거시정책적 결정이나 이를 반영하는 집단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농가 내부의 부양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구조, 재정능력, 부양도덕 등의 미시적 요소들이 중국 사회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시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 (장경섭, 1994a).

그런데 생산·복지 제도로서의 人民公社와 농가는 그 조직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리가 다르다. 농민가족은 人民公社와 달리 정치적으로 결정된 원칙에 따라 형성되고 운영되는 국가체제의 하부 단위가 아니라 사적 개인들이 다양한 물질적·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습화된 사회·문화적 원리들을 좇아 구성하는 사회생태학적 단위이다. 따라서 농민가족은 人民公社와 비교해 조직 형태상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성립의 기초 및 상호작용의 방식이 다르며, 이러한 조직적 특성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¹⁶⁾

이 가운데 내부 구성원들, 즉 가족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운명적 상호부양을 전제로 한 도덕적 집단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이 원리는 공산당에 의해 교육된 새로운 이념적 요소라기보다는 바로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적 요소가 살아남은 것이다. 환언하면, 농가 내부의 문화적으로 규정된 미시적 행위원리인 가족성원 사이의 상호부양 의무는 개혁기 중국 농촌의 사회보장체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¹⁷⁾ 중국의 개혁정권은 이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관료제 국가의 역사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사회들을 지배해 온 유교는 바로 가족 내 사적 질서와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서로 치밀하게 부합시키는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많은 왕조정부가 국가권력으로써 유교적 질서의 사적·공적 실현을 유도해 왔다 (최흥기, 1991). 최근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의 일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보건, 교육, 종교생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사찰(policing of families)’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Donzelot, 1979). 현대 중국에서 가족도덕의 고양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가족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計劃生育, 즉 가족계획이다 (본서 제8장 참조). 가족 단위의 생산·복지 체계의 부활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출산 욕구, 특히 남아에 대한 출산 욕구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강압적인 산아제한 조치가 인구성장을 완화의 이면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7) 굳이 기어츠(Geertz, 1973)의 논의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화적 규정성이 반드시 경제적 비합리성(economic irrationality)을 내포한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 문화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행위원리는 특정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서 집단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안정적으로 타협될 수 있는 방안이 다음 세대로 계속 학습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러한 농민의 문화적 행위 원리가 갖는 생산·복지 차원의 거시적 적합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친족 사이의 상호부양 의무를 확대정의하는 새로운 婚姻法을 제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가족들의 자체부양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농민들의 가족지향적 태도와 행위를 정치적으로 찬양하는 사회공학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 제정된 새 婚姻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지원하며,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지원하는 핵가족적 부양관계뿐 아니라, 친(외)조부모가 부모와 사별한 어린 손자녀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며, 손자녀가 자녀와 사별한 친(외)조부모를 부양하며, 형과 누나가 부모가 별세했거나 능력이 없을 때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확대가족적 부양관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1950년에 제정된 이전의 婚姻法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전통 가족문화를 수용한 것이었다. 물론 도덕적 부양관계를 형식화된 법적의무로서 규정함으로써 공고화시키려는 것은 일면 모순된 시도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거시적 정책결정자들이 개혁기 농민복지 체제가 농민들의 가족부양 태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됨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복지차원에서 중국 농촌사회의 성격을 농민들의 가족부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거시적 정책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농민들의 가족 단위 부양노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권장하는 데 머물러 왔다.

그런데 국가의 이념적 지원까지 업고 농민들이 재강화하기 시작한 가족 단위의 생산·부양 활동은 내부 조직원리로서 여성의 가사활동에 대한 강한 헌신을 전제로 했다. 한편으로 농촌개혁에 따른 다양한 소득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가족 내의 남성들이 분주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노인·아동 보호에서 병간호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사회서비스의 약화를 가족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중국 정치에서 여권론적 주장이 강화될 때마다 보수적 반론으로 제기되었던 婦女回家論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되었으며, 실제 상당수 농촌여성들이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¹⁸⁾ 농촌개혁의 핵심적 측면으로서 생산 및 복지를 둘러싼 국가-집체-가족 사이의 역할 재조정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性)분업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5-2> 2003년 대하 복지의 가족책임의식 분포

	전체			1. 매우 반대		2. 조금 반대		3. 보통		4. 조금 찬성		5. 매우 찬성	
	N	%	A	N	%	N	%	N	%	N	%	N	%
		291	100	3.60	11	3.8	44	15.1	61	21.0	109	37.5	66
大河	68	100	2.91	10	14.7	21	30.9	13	19.1	13	19.1	11	16.2
小河	33	100	3.27	-	-	5	15.2	14	42.4	14	42.4	-	-
贾村	79	100	3.73	-	-	17	21.5	17	21.5	15	19.0	30	38.0
双合	78	100	3.92	1	1.3	1	1.3	13	16.7	51	65.4	12	15.4
纸房头	33	100	4.27	-	-	-	-	4	12.1	16	48.5	13	39.4

※ 측정문항: Q25_12: “농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은 국가와 집단이 아닌 가족에 있다”

18) 중국에서 婦女回家論은 비단 농촌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도 제기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國營企業의 과잉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려는 시도를 합리화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표 5-3〉 2003년 대하 복지의 가족책임의식 결정요인

Regressor	Dependent Variable 복지가족책임의식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Model(1)	Model(2)
성별_남성 여부	-0.157(0.183)	-0.330(0.177)+
연령	-0.016(0.008)+	-0.012(0.008)
교육년수	-0.004(0.031)	-0.011(0.028)
정치면모_당원여부	0.223(0.227)	0.418(0.209)*
핵가족 여부	-0.188(0.154)	-0.154(0.142)
2003년 직업유형_비농업직 여부	0.286(0.177)	0.370(0.168)*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408(0.157)*	-0.327(0.145)*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161(0.238)
贾村队		0.914(0.195)***
双合队		0.991(0.181)***
纸房头队		1.210(0.237)***
Constant	4.678(0.606)***	3.684(0.594)***
Adjusted R square	0.049	0.211

+: p<0.1, *: p<0.05, **: p<0.01, ***: p<0.001

농업 생산과 더불어 복지 충족에 대한 실질적 가족책임제가 권장·실행된지 20여년이 경과한 2003년에 조사된 대하 지역 5개 마을의 농민들은 국가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혹은 자구적 태도의 반영인지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사회복지에 대한 가족적 책임의 중요성을 받아들였다. 〈표 5-2〉에서 복지의 가족책임성에 대해 매우 찬성이 22.7%, 약간 찬성이 37.5%로 찬성 합계가 6할에 달했으며, 매우 반대는 3.8%, 약간 반대는 15.1%로 반대 합계는 2할 아래였으며, 나머지 21.0%가 중간 입장이었다. 그러나 마을별로 살펴보면, 대하촌의 경우에는 매우 반대 14.7%, 약간 반대 30.9%, 매우 찬성 16.2%, 약간 찬성 19.1%로 반대의 합(45.6%)인 찬성의 합(35.3%)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나머지 4개 마을은 모두 찬성이 많았지만, 특히 지방두에서 매우 찬성 39.4%, 약간 찬성 48.5%로 거의 모두가 찬성이었고, 쌍합에서도 매우 찬성 15.4%, 약간 찬성 65.4%로 찬성이 월등히 많았다.

〈표 5-3〉에서 대하 농민들의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성 태도를 인과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성일수록 반대 의견이 약간 많았고 (더 현실적으로는 여성일수록 찬성 의견이 약간 많았고), (공산당) 당원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비농업직 종사자일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고, 가족 배경인 (과거) 계급성분이 빈·하농일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마을별로는 위에서 지적한 대하촌의 예외적 반대 분위기에 대비해 지방두촌, 쌍합촌, 매촌촌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젠더 변수와 관련해서, 가정내 가사·보호 노동의 중심인 여성들이 복지의 가족책임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국가의 가족의존적 사회정책 노선에 대한 의식적 지지보다는 성분업적 사회·경제 질서에 대한 보수적 수용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러한 질서가 개혁기 중국의 물질적 번영에 참여하는 조건이나 방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비농업직 종사자의 높은 찬성 의견은 농업종사자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가족에 대한 지원·보

호 태도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다. 계급성분상 빈·하농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주의 정치질서 하에서 사회정책적 우선 배려 대상이었던 과거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이 현실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 반면, 공산당 당원들 사이의 찬성 입장은 어느 정도 국가의 사회정책 노선에 대한 의식적 지지나 수용을 반영했을 것이다.

4. 대하 농민이 도농 사회보장 차별 인식

물론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개발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차별적 정책노선은 사회주의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사회주의 이행을 위해 도시 공업이 國家부분으로, 농업이 集體부분으로 제도화된 바로 그 시점부터 集體 농민들은 국가적 지원이 아닌 지역별 자조노력에 의해 대부분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그리고 도시 國家單位の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도시 (중)공업이 제공할 수 있는 상대적 고임금에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도시노동자들에 비해 이등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감수해야 했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도시지역 戶口를 얻으려고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도·농간의 구조화된 차별이 개혁기에 들어와서 결코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균등한 개혁의 결과로 더욱 확대된 면들도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개혁기에 들어 도·농간 인구 이동이 상당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이러한 도·농간 차별이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농 농민들의 행선지가 주로 鎮과 소도시의 비국가부분으로 한정되었고, 대도시로 간 농민들의 경우는 공식 경제부분에 장기간 고용될 법적 자격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로 떠도는 이른바 盲民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시장경제를 통해 개별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 혜택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었다. 심지어 일부 도시정부들은 재산을 모은 이농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고 다양한 종류의 조건부 戶口를 판매하는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농자들에게 유일한 사회보장 장치가 있다면 그들의 정식 戶口가 있는 고향 농촌에서 아직 인정되는 일정한 토지 경작권이다.¹⁹⁾ 요컨대, 이들이 농촌에 머물 때 직면했던 농민-노동자 사이의 차별적 복지혜택이 이농 후에도 이농민과 기존 노동자 사이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표5-4〉 2003년 대하 농민의 도농 복지격차 인식

	평균	전체	1.농촌이 많이 낮다	2.농촌이 조금 낮다	3. 비슷하다	4.도시가 조금 낮다	5.도시가 많이 낮다
자녀양육	3.30	294	31(10.5)	37(12.6)	67(22.8)	123(41.8)	36(12.2)
자녀교육	3.80	294	9(3.1)	21(7.1)	39(13.3)	176(59.9)	49(16.7)
자녀혼인	3.34	291	13(4.5)	43(14.8)	97(33.3)	109(37.5)	29(10.0)
부부관계	2.78	290	26(9.0)	80(27.6)	129(44.5)	43(14.8)	12(4.1)
노인부양	2.77	290	34(11.7)	106(36.6)	66(22.8)	60(20.7)	24(8.3)

19) 이들은 농번기가 되거나 도시에서의 경제적 적응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반농반공(半農半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서 제4장 참조).

주거환경	3.40	294	32(10.9)	45(15.3)	33(11.2)	140(47.6)	44(15.0)
의료보건	4.02	290	11(3.8)	9(3.1)	21(7.2)	172(59.3)	77(26.6)
일상생활	3.61	291	26(8.9)	17(5.8)	47(16.2)	155(53.3)	46(15.8)

<표5-5> 2003년 대하 농민의 도농 복지격차 인식 결정요인

Dependent Variable: 도-농 사회보장차이인식수준 (1: 농촌이 낫다 ~ 5: 도시가 낫다)				
Regressor	①자녀양육	②자녀교육	③자녀혼인	④부부관계
성별_남성 여부	0.055(0.204)	0.103(0.161)	-0.015(0.169)	0.246(0.175)
연령	-0.011(0.009)	-0.017(0.007)*	-0.002(0.007)	-0.001(0.007)
교육년수_연속변수	-0.002(0.032)	-0.049(0.026)+	-0.010(0.027)	-0.040(0.028)
정치면모_당원여부	-0.129(0.239)	-0.019(0.190)	0.077(0.195)	0.305(0.206)
핵가족 여부	-0.139(0.164)	-0.041(0.130)	0.037(0.135)	0.231(0.140)
2003년 직업유형_비농업직 여부	0.076(0.194)	-0.084(0.153)	0.028(0.158)	0.059(0.166)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97(0.168)	0.104(0.132)	0.060(0.136)	0.281(0.141)*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305(0.272)	-0.030(0.214)	-0.930(0.221)***	-0.221(0.231)
贾村队	0.428(0.224)+	0.042(0.178)	0.069(0.185)	-0.107(0.193)
双合队	-0.621(0.210)**	-0.587(0.166)***	-1.017(0.171)***	-0.459(0.179)*
纸房头队	0.307(0.274)	0.019(0.217)	-0.538(0.226)*	-0.576(0.233)*
Intercept	3.853(0.688)***	5.084(0.545)***	3.886(0.564)***	2.782(0.583)***
Adjusted R square	0.096	0.074	0.192	0.061

+: p<0.1, *: p<0.05, **: p<0.01, ***: p<0.001

Dependent Variable: 도-농 사회보장차이인식수준 (1: 농촌이 낫다 ~ 5: 도시가 낫다)				
Regressor	⑤노인부양	⑥주거환경	⑦의료보건	⑧일상생활
성별_남성 여부	0.044(0.205)	-0.066(0.206)	-0.089(0.152)	0.086(0.194)
연령	0.003(0.009)	0.002(0.009)	-0.009(0.006)	-0.010(0.008)
교육년수_연속변수	-0.064(0.032)*	-0.011(0.033)	-0.046(0.024)+	-0.038(0.031)
정치면모_당원여부	0.388(0.238)	-0.054(0.243)	0.251(0.177)	-0.509(0.228)*
핵가족 여부	0.441(0.164)**	-0.029(0.166)	-0.035(0.122)	-0.233(0.156)
2003년 직업유형_비농업직 여부	-0.341(0.193)+	0.031(0.196)	-0.027(0.144)	0.397(0.184)*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110(0.166)	0.737(0.169)***	0.341(0.124)**	0.554(0.160)**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890(0.271)*	-0.728(0.274)**	-0.044(0.201)	0.329(0.257)
贾村队	-0.702(0.225)*	0.169(0.228)	0.308(0.167)+	0.365(0.214)+
双合队	-0.792(0.210)**	-0.626(0.214)**	-0.460(0.157)**	-0.314(0.202)
纸房头队	-0.684(0.274)*	-0.082(0.279)	0.120(0.204)	-0.123(0.261)
Intercept	3.700(0.685)***	3.209(0.699)***	4.659(0.510)***	3.808(0.655)***
Adjusted R square	0.106	0.135	0.146	0.116

+: p<0.1, *: p<0.05, **: p<0.01, ***: p<0.001

이처럼 복잡한 사회·경제적 도농 차별과 격차를 반영해, 본 연구에서 2003년 조사된 대하의 5개 마을 농민들은 비록 도농간 생활수준 차이는 개혁기 들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고 느낀 경우가 약간 많았지만 다양한 사회서비스 환경과 가족생활 조건에 있어서 도농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다. <표 5-4>을 보면 이러한 도농간 불평등 인식은 구체적으로 의료보건, 자녀교육, 일상생활 순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 자녀혼인, 자녀양육 관련한 도농 불평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반면, 부부관계와 노인부양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표 5-5>는 2003년 조사된 대하 농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환경과 가족생활 조건에 대한 도농간 불평등 인식이 성별(남성), 연령대, 교육수준, 당원여부, 핵가족여부, 직업유형(비농업), 가족배경(계급성분; 빈·하농)에 따라 어떤 차이들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인과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자녀양육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위의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마을들 사이의 차이가 약간 드러났다. 자녀혼인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교육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은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은 빈·하농 계급성분의 농민일수록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부양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업직일수록, 핵가족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주거환경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은 빈·하농 계급성분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의료보건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약간 약하게, 빈·하농 계급성분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여건의 도농 불평등 인식은 비(공산)당원일수록, 비농업직일수록, 빈·하농 계급성분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내용들을 각 개인 특성별로 종합하면, 성별은 어떤 측면의 도농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은 자녀교육 여건의 도농 불평등에 관련해 젊은 층의 우려가 드러났다. 교육수준은 낮은 농민일수록 자녀교육, 노인부양, 의료보건 여건의 도농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정치지위에 있어 비(공산)당원은 일상생활 여건의 도농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가족배경으로서 빈·하농 계급성분은 부부관계, 주거환경, 의료보건, 일상생활 여건의 도농 불평등에 대한 뚜렷이 강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2003년)의 비농업직 지위는 노인부양 여건의 도농 불평등에 대한 유보적 인식과 일상생활 여건의 도농 불평등에 대한 강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개혁기 중국의 농민복지에 대한 가족주의적 접근은 문화주의적 사업(culturalist project)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임기응변에서 비롯된 미봉책으로 보아야 한다.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폭발적 경제성장을 실현시킨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새로운 사회정책 노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경제개발 위주의 자원 투입을 위해 견지되는 재분배적 사회보장,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소극성이 정책적 일관성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도시노동자와 농민 사이에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 가족주의는 농촌의 복지체제뿐 아니라 생산체제에서도 함께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농민복지가 별도의 사회정책 영역으로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반면 도시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족부양의 정치적 구호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갖은 애를 써왔다. 시장사회주의 중국

의 새로운 사회정책 노선은 방치된 농민복지가 아니라 부단한 연구 및 실험 대상인 노동자복지에 그 핵심이 있다 (White, 1998). 따라서 가족주의는 여전히 저소득국인 중국이 도시산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독재세력인 공산당이 도시노동자 계급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농민희생적 경제·사회정책 노선의 부속물이다.

가족주의 농민복지의 이러한 현실적 성격을 감안할 때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앞서 발전시켜 온) 다른 인근국들과 함께 이른바 동아시아 고유의 복지모형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 한국 등에서 고유한 가족주의적 복지모형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학술적 문제 제기가 부단히 있어 왔지만, 막상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어느 학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²⁰⁾ 중국의 농민복지에 대한 가족중심적 접근은 분명 이러한 동아시아적 가족주의 복지모형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동기 제공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 볼 때, 이들의 공통된 복지 가족주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상 개혁 노력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경제개발 위주의 국정에 수반된 사회정책적 임기응변의 결과로 판명된다.

20) 예를 들어, 한국의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가족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형’ 정립을 선언하여 여러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막상 그 후속조치로서 어떠한 가족중심적 복지 프로그램도 창의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 특히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가족성원간의 강력한 부양규범을 떠받들고 있는 유교이념의 사회정책적 활용 가치 및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터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용두사미 행태는 큰 실망거리가 아닐 수 없다.

6장. 농촌개혁과 계획생육(計劃生育)

1. 수정사회주의의 딜레마: 두 가지 실용노선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난 중국 출산율의 빠른 감소세는 잘 입안되고 엄격히 수행된 計劃生育 프로그램에 결정적으로 기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70년대에 본격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도 출산율은 경제사정의 꾸준한 변화와 사회·경제 활동의 집단화에 따른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의 변화를 반영해 상당한 부침세(浮沈勢)를 보여 왔다.²¹⁾ 중국의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출산행위에 관한 ‘국가간섭’(state intervention)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도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70년대는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의 빠른 경제성장을 멈추고 경제적 침체에 들어선 기간이다. 특히 중국 농촌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토지부족(인구과잉), 이농 육구의 강제적 차단, 집단농업의 생산성 담보, 농산물 국가수매가의 정제 등의 요인이 겹쳐 대다수 농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담보 혹은 악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농촌의 집단생산 체제가 적어도 조직적 차원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로 인해 경쟁적 사회·경제 제도로서 농민가족의 기능은 갈수록 퇴화하게 되었다. 엄청난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 지원을 수반한 중국 정부의 計劃生育 정책이 실행된 것은 바로 이처럼 암울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였다. (가족중심적) 농민생활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다산(多産) 규범은 이미 약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산아제한 지시는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1970년대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농촌개발 전략이 (의도하지 않은) 상호 조화를 이룬 시기였다.

1970년대와는 대조적인 상황이 1980년대의 개혁기에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人民公社 중심의 집단생산 체제가 해체되고 가족중심적인 농민경제가 부활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변화가 산아제한 정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매우 성공적인 計劃生育 사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산아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이른바 ‘한 자녀 갖기’(只生育一個孩子)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國家計劃生育委員會, 1986:922-25). 1970년대 말에 共產黨 내부에서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979년은 농민가족을 농촌의 핵심적 생산조직체로서 부활시키려는 일련의 개혁정책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농민가족들, 특히 성인 식구수가 많은 농민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이 뜻밖의 호전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대다수 농민가족들은 1970년대의 강력한 計劃生育 시책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를 겪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개혁으로 조성된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농업생산을 강화하고, 소득원을 다원화시키고, 전통적 문화행위를 부활하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자녀수를 늘일

21) 경제사정 변화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은 특히 大躍進 기간에 심각했는데, 이때 식량생산의 급감으로 전국적인 기아아 출산율 격감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Peng, 1987). 생산조직 집단화의 영향은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집단조직체에서 농민생활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자녀수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갈수록 약화되었다(Chang, 1990).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에 대한 결의도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권력을 잡은 실용주의자들은 엄격한 산아제한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計劃生育 담당 기구들은 이미 10여년의 計劃生育 사업을 통해 관료적 힘과 경험을 축적했고, 1978년의 새 헌법은 計劃生育을 국가의 공식 과업으로 인정한 상태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추진된 ‘한 자녀 갖기’ 정책은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왔다.

지속적 인구조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곧 기대한 결과를 갖고 오는 듯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새로운 경제환경이 자극한 농민들의 출산욕구와 법적 결혼연령을 낮춘 새로운 婚姻法 제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잠시 높아졌으나 1984년 들어 아주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計劃生育의 강제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비자발적 산아제한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물론 수년간 강력한 計劃生育을 실시해 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산아제한 강요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농민들의 가족중심적 경제활동이 빠르게 부활되고 있는 와중에서 한 자녀 출산만 강요한다는 것은 농민들 뿐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방 간부들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시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저항과 지방간부들의 망설임이 심해지자, 1983년 중국 정부는 한 자녀를 둔 모든 가임(可妊) 연령의 기혼여성들은 IUD를 착용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들은 불임시술을 받고, 허용되지 않은 임신을 한 부인들은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²²⁾ 이러한 엄청난 조치들로 인해 대다수 농민들은 ‘한 자녀 갖기’를 따라야 했지만, 가족의 출산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따른 불만이 전 사회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

농민들은 국가의 강요된 인구억제 정책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거나 여러 가지 눈가림식 대응을 하는 외에 국가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전국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²³⁾ 당 및 정부의 실용주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과 개혁정책의 정치적 존속을 위해 농민인구의 정치적 지지가 결정적 요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 불만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자 지방 간부들에게 지시되는 인구정책 지침은 점차 온건성과 모호성을 내포하게 되었고 농민인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86년 이래 출산율이 다시 눈에 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서기 2000년까지 인구규모를 12억에 묶어 두겠다는 당초의 야심찬 계획은 곧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7월 1일 실시된 4차 인구센서스에서 중국의 인구는 1982년의 3차 인구센서스 때 보다 무려 12.45%가 늘어난 1,133,682,501명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전격적인 각종 정책변화와 급격한 출산율 증감이 공산중국의 역사에서 새삼스러운 일들이 못 되지만,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개혁정권이 농가에 의존한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야심적인 인구억제 목표까지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22) 1982년에 모두 1,242만건의 낙태가, 1983년에 모두 1,437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기록을 세웠다 (Hardee-Cleaveland and Banister, 1988:276).

23) 이후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농민들은 국가의 감시를 불법적으로 피해서라도 충분한 가족노동력을 얻고 대를 잇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밀리에 불임시술을 복원시킨다든지, 허용된 이외의 임신을 한 부인들이 숨어 지낸다든지, 태어난 여아를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심지어 영아살해하는 등 갖가지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다양한 농촌경제 개혁책들은 대체로 가족규모가 큰 농가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실용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計劃生育을 농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이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이러한 정치적 변화들은 가족규모에 결부된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집체·탈집체 사회주의와 농민 가족규모의 사회경제적 효과

1980년대의 개혁정책으로 수십여년간 힘들여 실험했던 사회주의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가족농업이 복구되었을 때 가족규모의 경제적 함의는 생산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집단농지의 개별 농가에 대한 할당은 주로 식구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더러는 가족노동자의 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다. 본격적 탈(脫)집단화의 1단계인 報產到戶 기간(1980-82년)에는 개별 할당 농지가 식구수에 의한 것(人口分地)과 가족노동자 수에 의한 것(勞動分地) 두 가지가 있었다. 탈집단화의 완료단계인 報幹到戶 기간(1983년 이후)에는 농지가 개별 농가의 생계수요를 감안한 것(口糧地)과 국가와 개별 농가 사이의 생산계약에 의한 것(承包地)으로 나뉘었다. 口糧地는 모든 농가들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식구수에 의거한 배분이 실시되었다. 承包地는 국가와 개별 농가들 사이에 맺어진 식량수매 목표와 집단기여금에 관한 계약에 의거해 농지를 할당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제도였지만, 이 역시 식구수를 기준으로 한 할당이 일반적이었다.

河北省 大河人民公社(大河鄉)의 사례에서 報幹到戶 기간에 개별 농가에 대한 농지배분이 거의 식구수에 비례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²⁴⁾ 이 현상은 배분된 농지가 口糧地나 承包地나에 상관없이 나타난 것이다. 사실, 1980년대 중반에 수행된 전국적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중국 전역에서 일반적이었음이 나타난다 (Watson, 1987). 이 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노동력(가족노동자 수)과 가족성원 1인당 承包地 면적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承包地가 (그동안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충분한 성인노동자를 갖지 못한 농민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인 보상기제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하면, 농지 부족으로 농지에 대한 지나친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는 가족규모가 효율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평한(공동체적으로 바람직한) 농지배분 기준이 된다. 이는 식구수 한편으로는 충족시켜야 할 생계요구량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는 경작 의지 및 능력에 대한 가장 적합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규모와 가족노동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성원들 가운데 노인과 아동 등 피부양집단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가족규모와 가족노동력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날 수가 있고 나아가 식구수만 많고 가난한 가족들이 오히려 흔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중국 농촌에서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즉 농민가족들은 현재와 미래의 낙관적인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꺼이 ‘허가되지 않은 출산’을 하기

24) 가족노동자 수가 대체로 식구수에 비례하므로 가족노동력에 비례한 배분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약간 타당성이 덜한 관찰이 될 것이다.

시작했으며 文化革命 이래의 ‘보건혁명’ 덕분에 갈수록 많은 노인들이 장수함에 따라 각 가족 내에서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수를 포함한) 식구수에 의한 농지 배분은 노동력이 없는 아동들을 부양만 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정도 덜어주는 작용을 했다. 더욱이 중국 농촌의 아동들은 심지어 학업도 포기하고 가사 보조에 동원되는 등 비교적 일찍 ‘노동자화’ 되었다. 결론적으로, 개혁기 농지배분 정책 덕분에 신생아가 있는 농민가족들은 장차 새로운 가족 노동력 보급의 효과를 누리기 전에 오는 높은 부양비(dependency ratio)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신생아 앞으로 할당된 농지를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가중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직계가족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²⁵⁾

대규모 농민가족들의 이점은 대규모 농지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수가 많은 가족들은 농업 및 비농업 생산 실적이 우수했고 나아가 경제활동의 다변화도 용이했다. 탈집단화 직후의 大河郷에서 가족성원과 노동자가 많은 농민가족들이 가졌던 경제적 이점들은 벡(John Lossing Buck)이 관찰한 혁명 이전의 상황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가족노동자 수는 가족성원별 순소득과는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농가 전체의 순소득과는 뚜렷한 비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가족노동자 수는 가족성원별 및 농가 전체 자영순소득과 비례관계에 있었다. 만약 소가족들에게 承包地가 유리하게 배분된 사실과 복지시설기관이나 합숙소 등 특수 대가구들의 사정을 마저 감안하면, 가족노동력과 (가족성원별 및 가족별) 자영소득 사이에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⁶⁾ 그런데 대규모 가족들은 외부 고용소득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성인)가족노동자가 특히 귀할 때 외부 고용소득의 규모나 비중이 컸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는 가족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족 중심의 자영업보다는 개별적 외부 고용기회를 모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자영소득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가족노동자 수가 3-4명으로 비교적 풍부한 경우에는 (농업 관련) 부업활동이 활발했고, 가족노동자 수가 극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 활동이 활발했다.

<표6-1> 1985년 大河지역 농가들의 가족노동자수와 소득구조 (단위: 圓)

	가족노동자수 (사례)					
	0,1 (19)	2 (122)	3 (46)	4 (27)	5 (15)	6-9 (12)
<가구순소득>						
전체순소득	1,679	2,872	4,155	4,665	5,744	6,064

25) 식구수 중심의 토지배분이 갖는 직계가족 유지 효과는 농촌 노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 부양 부담의 경감 효과는 인구억제책에 매우 역기능적인 것이다.

26) 이러한 대가족의 경제적 이점은 大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국 농촌 전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1981년에 396호의 농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가족보다는 대가족이 일인당 100元 이상의 소득을 올릴 확률이 높았다 (Croll, 1988:92-93).

자영소득	1,076	1,961	2,481	3,357	4,280	3,606
고용소득	603	897	1,647	1,311	1,465	2,457
集體단위	139	276	445	450	417	375
新經濟聯合體	200	128	178	178	178	400
鄉鎮企業	264	494	1,024	683	870	1,682
일인당 순소득	894	729	823	782	905	682
일인당 자영소득	554	494	499	549	672	400
일인당 고용소득	340	231	320	234	234	282

<자영총소득>

총소득	1,522	3,310	3,844	4,952	6,113	5,397
곡물소득	801	1,593	2,151	2,186	2,432	2,557
주곡소득	600	1,087	1,447	1,634	1,982	1,848
현금작물소득	203	496	703	555	610	708
부업소득	193	526	843	1,125	821	1,166
2/3차업소득	519	1,157	849	1,640	2,857	1,757
일인당 총자영소득	779	835	774	808	936	605
일인당 곡물소득	360	403	437	359	375	287
일인당 부업소득	69	130	291	185	126	143
일인당 2/3차업소득	346	293	160	264	435	187

이상에서 大河에서 탈집단화가 완료되자 가족노동자 수가 농가 경제활동의 다변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6-1>). 노동력 배치에 있어서, 가족노동자 수가 많으면 농업, (농업 관련) 부업, 기업활동에 투입된 인력도 많았지만 가사노동 인력은 반드시 많지 않았다. 이를 바꿔 말하면, 가정살림은 가족규모나 가족노동자수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가사노동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가족들은 소규모 가족들에 비해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가사노동 절약에 대한 대가족들의 이점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수와 비율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농민가족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활동의 조직적(인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서 출산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 가족 구조나 관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중국 농민가족들은 외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각자의 가족 형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친족간 거주 양태와 부양 관계를 신축적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전통은 혁명 이후 집단경제 체제 하에서 사라져 가는 듯 했으나 개혁기에 서서히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 농민가족들은 탈집단화된 농업 뿐 아니라 새롭게 번창하는 농촌 상공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적 사회보장 기제의 붕괴로부터 특수 곤궁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이웃간 및 친족간의 실용적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갔다. 하레번(Hareven, 1987:684)에 따르면, “가족노동력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은 확대가족을 다시 한번 재형성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크롤(Croll, 1987)은 아래와 같이 ‘집합가족’ (aggregate family)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집합가족은) 한 가지 돈벌이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생겨나지만, 더욱 흔하게는, 한 가구가 집합가족에 할당된 농토 전체를 경작하고 다른 가구는 상품생산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또 다른 가구는 운송, 기술 혹은 판매를 맡음으로써 속한 가구들이 크게 보아 상호 의존적이 되고 집합가족 전체는 대체로 통합되고 자체 유지되는 단위가 되는 식으로 형성된다 (Croll, 1987:491).

이러한 경제적 결합이 사회적으로 지탱할 만하고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 집합가족은 당국의 적극적인 권장 하에 이른바 新經濟聯合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Howard, 1988).

〈표6-2〉 2003년 대하 농가 인구/노동력과 전체/일인당 소득 분포(관계)

가구노동력	1	2	3	4	5	6	7	8	10
N	18	127	52	34	6				
가구평균	4272	11074	16130	17397	35513				
1인당평균	4272	5537	5376.7	4349.3	7102.6				

농가인구	1	2	3	4	5	6	7	8	10
N	10	20	44	106	50	40	10	2	1
가구평균	2408	10379	9906	12322	18015	13424	16378	26040	4100
1인당평균	2408	5189.5	3302	3080.5	3603	2237.3	2339.7	3255	410

앞선 장들에서 설명한대로, 농업 생산과 복지 충족에 대한 실질적 가족책임제가 권장·실행된지 20여년이 경과한 2003년에 조사된 대하 지역 5개 마을의 농민들은 국가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혹은 자구적 태도의 반영인지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그러한 경제·사회적 가족책임성을 수용하고 또 대응해 왔다. 〈표6-2〉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별 노동력 규모 증가가 가족 전체의 소득뿐 아니라 노동자 1인당 소득을 직접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구노동력 규모, 혹은 노동연령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평균 연소득이 4272위안이었지만, 2인인 경우 5537위안, 3인인 경우 5377위안, 5인인 경우 7103위안으로 가구노동력 규모가 클수록 1인당 연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가구노동력 규모가 4인인 경우는 1인당 연소득이 4349위안으로 1인인 경우와 비슷했지만, 이것이 조사 농가들 전체에서 가구노동력 증가의 긍정적 소득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다.) 농촌 탈집체화 20년 경과 시점의 대하 농가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가구노동력 규모와 1인당 소득수준 사이의 비례관계는 본 장의 앞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전통 농경사회 및 개혁초기 중국 농촌의 가족경제 원리가 지속·강화되었음을 확인시킨다. 그러나 가족규모별로 연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2~5인 혹은 8인인 가구들이 가구원 1인 및 6~7인 가구들보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뚜렷이 높았다. (연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원 10인인 한 가구는 특수한 상황 속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독거노인 가구들이나 노인·아동 동시 부양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며, 다른 한편으로 젊은 부부 중심의 가구들이 갖는 경제조직적 이점과 활력을 드러내는 것

으로 생각된다.

3. 탈집체화의 결과적 장기 출산하락 효과

<표6-3> 2003년 대하 농민들의 희망자녀수

	전체	大河队	小河队	贾村队	双合队	纸房队
1명	9 (3.1)	1 (1.5)	1 (2.9)	4 (5.1)	2 (2.6)	1 (3.0)
2명	262 (89.7)	60 (88.2)	30 (85.7)	70 (88.6)	70 (90.9)	32 (97.0)
3명	19 (6.5)	6 (8.8)	3 (8.6)	5 (6.3)	5 (6.5)	0 (0)
4명	2 (0.7)	1 (1.5)	1 (2.9)	0 (0)	0 (0)	0 (0)
합계	292 (100)	68 (100)	35 (100)	79 (100)	77 (100)	33 (100)
평균	2.05	2.10	2.11	2.01	2.04	1.97

농업·복지 가족 책임제와 농가 주도 농촌산업화가 20여년이 경과한 2003년에 조사된 대하의 농가들은 위와 같은 국가정책과 농민현실 사이의 모순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응해 나갔지만 여전히 적정수의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분명했다. <표 6-3>에서 대하 5개 마을 농민들의 (계획출산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자녀수를 살펴보면, 모든 마을에서 2명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개혁 초반과 달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토불이향 혹은 재촌 노동자화 과정에서도 자녀의 아동기 문화 및 독립적 발전에 대한 규범이 확산되면서 서서히 켈드웰의 “부의 흐름” 이론이 적용되는 사회변화가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국가의 입장에서 개혁 초반의 인구압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 입장이 인구성장세 완화에 따른 가족계획의 유연화로 바뀌면서, 농민들의 합리적 출산욕구와 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표6-4> 2003년 대하 남아선호 추이 인식 분포

	전체	평균	1.많이 약화	2.조금 약화	3.변화 없음	4.조금 강화	5.많이 강화
	287	3.82	23 (8.0)	22 (7.7)	26 (9.1)	130 (45.3)	86 (30.0)
大河	65	3.57	7 (10.8)	6 (9.2)	2 (3.1)	43 (66.2)	7 (10.8)
小河	35	4.14	2 (5.7)	0 (0)	0 (0)	22 (62.9)	11 (31.4)
贾村	75	4.11	2 (5.7)	5 (6.7)	1 (1.3)	42 (56.0)	25 (33.3)
双合	79	3.33	11 (13.9)	11 (13.9)	23 (29.1)	9 (11.4)	25 (31.6)
纸房头	33	4.45	1 (3.0)	0 (0)	0 (0)	14 (42.4)	18 (54.5)

※남아선호사상 인식변화 측정문항: Q56: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의 남아선호사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6-5> 2003년 대하 남아선호 강화 성별 인식도

Dependent Variable 남아선호사상 (1점: 약화 ~ 5점: 강화)	
Regressor	Model(2)
성별_남성 여부	-0.353(0.208)+
연령	-0.008(0.009)
교육년수	-0.011(0.034)

정치면모_당원여부	0.106(0.243)
핵가족 여부	-0.245(0.169)
2003년 직업유형_비농업직 여부	0.240(0.197)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47(0.170)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453(0.276)
贾村队	0.529(0.232)*
双合队	-0.281(0.215)
纸房头队	0.896(0.281)**
Constant	4.300(0.712)***
Adjusted R square	0.114

+: p<0.1, *: p<0.05, **: p<0.01, ***: p<0.001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혁 초기 국가의 인구정책과 농가의 경제·사회적 능동성 사이 모순의 최대 부작용이었던 출산 남아선호와 인위적 여아 제거가 함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6-4>을 보면, 2003년 조사된 대하 5개 마을 농민들 사이에서 개혁기 들어 남아선호 태도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0%. 약간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5.3%로 압도적 다수를 구성했다. (다만 희망 자녀수와 비교해 남아선호 강화 인식은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마을에서 남아선호가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 정도의 비율은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자신을 유보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결국 남아선호는 대하 농민들의 보편적 욕구 혹은 규범으로 유지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6-5>에서 2003년 조사된 대하 인민들의 남아선호 강화 인식도는 여성들 사이에서 약간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가부장적 농촌·농가 질서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거부감을 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남아선호 규범이 여성들에게 더욱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5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개혁기 중국의 복지 가족책임성에 관해 대하 지역에서 여성들이 더 수용적이었고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반영해 가사·보호 노동을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여성들의 (실용적?) 보수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자녀의 성별이나 성구성에 관해 여성들이 남아선호 분위기를 더욱 분명히 인식한다 하더라도, 나아가 여성들 사이에서 남아선호 태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다지 모순적이거나 의외의 현상은 아닌 것이다.

희망·실행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남아선호가 유지·강화되는 현상은 중국 농촌만의 예외적 현실은 아니다. 예컨대, 이웃 나라 한국에서 출산성비의 본격적 왜곡은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에 동반되었었는데, 이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노동자화를 거친 한국인들이 저출산(자녀수 축소)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서 받아들이면서도 가족, 사회, 경제의 가부장적 질서 지속이나 강화에 대해 전략적 남아출산(혹은 선택적 여아제거)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장경섭, 2009). 대하를 포함한 중국 사회 전체에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상당 기간 잔존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그 20여년 후인 2020년대 초 오늘날 현실의 한 부분이 된 국가의 출산율 제고 노력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다.

7장. 탈집체 개혁과 농촌사회의 계급적 재구성

1.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적 불평등과 농촌개혁

혁명 이전 중국 사회구조의 핵심은 농촌의 계급구성이었다. 毛澤東은 1930년대 혁명 기지에서서 土地改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계급을 지주, 부농, 중농, 빈농, 노동자(雇農 포함) 등으로 나눌 것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지주와 부농을 타도되어야 할 착취계급으로서 규정했다.²⁷⁾ 물론 동남해안지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서구 식민 세력과 매관자본가 계급, 중국 전역에 걸친 國民黨 통제 하의 관료자본가 계급, 그리고 이들에 예속된 산업노동자계급이 존재했지만, 중국의 혁명은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촌 사회구조의 모순을 기초로 확산되어 나갔었다.

혁명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계급·계층 갈등이 타파되고 새로 도입된 사회주의 제도에 기초한 통치와 경제건설이 추진되면서 중국사회의 엄청난 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어 나갔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 확립이 거의 완수되어 가던 시점에서 이번에는 국가주도 하의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毛澤東은 1957년의 한 연설에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두 가지 종류의 모순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적과 우리(인민) 사이’의 모순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 자신들 사이’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적과 인민 사이의 모순은 反帝·反封建 혁명 및 사회주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그러한 역사적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존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한다. 인민 내부의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과 이행이 완수된 후에도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잠재적 부조화·갈등 관계를 지칭했다. 毛澤東에 따르면, 중국은 특히 인민 내부의 모순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 제시한 것 이상의 정치적 과업들을 추진해야 했다. 여기에서 永久革命論과 같은 특유의 정치이론과 大躍進, 文化革命과 같은 극적인 사회변혁 운동이 나오게 된다.

毛澤東은 인민 내부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노동자집단 내부, 농민집단 내부, 지식인집단 내부, 노동자·농민과 지식인 사이, 노동자와 민족자본가 사이, 민족자본가집단 내부 등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민정부와 인민 사이에도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집단·개인 이해의 사이,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주의 사이, 지도부와 피지도부 사이, 관료주의적 간부와 인민 사이 등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이러한 인민정부와 인민 사이의 모순도 인민정부가 인민에 속해 있는 이상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민 내부의 다양한 모순은 사람들이 같은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치·행정적 지위, 소속 경제단위나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고 때로 상충되는 이해 및 권력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인민 내부의 모순은 바로 사회주

27) 농민집단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계급 구분은 오늘날의 사회학적 기준에 따르면 농민계급 내부의 계층적 차이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毛澤東은 농민집단 내부에서도 토지 소유 및 농업소득의 규모, 임노동·소작 여부 등은 농민들 사이에 상충된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계급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 체제 하에서의 계급·계층적 갈등과 불평등을 내포하였다.

중국의 사회구조에 대한 毛澤東의 분석 내용은 사회주의 체제 일반이나 다른 사회주의 사회들 및 중국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나 학술적 분석의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소련 및 동구의 상황에서 제시된 정치·관료적 지배계급으로서의 각급 당·국가 간부에 대한 비판은 중국에서 각급 지도층의 인민에 대한 관료주의적이고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毛澤東의 비판과 궤를 같이 했다. 중국의 경우는 이른바 고객주의적 정치문화(clientelistic political culture)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간부들의 지배 행태가 좀더 온정주의적이고 전인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는 한다.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발전전략 및 관리 방식에 내재된 도시편향성으로 인해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시노동자들의 그것을 위해 구조적으로 희생되었다는 많은 지적은 중국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 농업·농민의 중요성을 끊임없는 강조한 毛澤東이 깊이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연구는 이처럼 毛澤東의 문제의식에도 이미 드러난 문제들 외에 몇 가지를 추가하고 있다. 혁명 이전의 계급성분이 혁명 이후 새로운 계급구조를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되었다. 농민집단 내부에서 그리고 노동자집단 내부에서 과거의 계급성분에 따른 사회·경제적 혜택과 정치적 지위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구조를 야기했다. 그런데 文化革命이라는 급격한 정치적 변혁의 와중에서 혁명 전의 불량한 계급성분으로 인해 소외집단화되었던 구엘리트가의 자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과격 좌파운동에 나서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즉, 공산중국이 새로운 양태의 계급사회임을 정치적으로 인정한 사건인 文化革命은 그동안 혁명 이전의, 그것도 부모·조부모의 반동적 계급성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오던 일부 청년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분절과 불평등이 존재했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개혁은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 사적 영리추구와 자유로운 시장교환이 허용되는 가운데, 先富집단의 등장, 즉 경제적 불평등화를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지도자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 부의 획득과 축적을 위해 중국 인민들은 개인적으로 지닌 재능과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내륙과 해안 사이에,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심지어 간부와 인민대중 사이에 한정된 경제적 기회와 재화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개혁기 중국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종류·정도·원인·결과에 대한 정치적·학문적 관심이 급증했다. 정치적으로는 이전처럼 불평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존재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즉, 다분히 탈사회주의적인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집단의 선도적 축재와 빈부격차의 발생·확대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과 모든 인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鄧小平의 이른바 先富論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일부가 다른 인민들보다 빨리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개별적 이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국가와 다른 인민들의 집단적 이익도 도모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반 인민들이 이와 같은 先富에 대한 집단 이데올로기적 옹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개혁기의 빈부격차를 국가·지역의 경제발전 및 자신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대가로서 수용하는 태도가 확산되었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²⁸⁾ 이러한 태도의 이

면에는 이른바 황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대다수 인민이 서로 뒤질세라 새로운 돈벌이를 모색하고 돈의 지상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 놓여있다.²⁹⁾

이러한 先富 긍정론은 일부 사회학적 시각에서 제기되는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의 원인 및 기능에 대한 해석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한다. 즉 사회·경제적 활동의 분화는 사회 전체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지위·보수상의 차별은 해당 기능과 자격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기능주의 사회학의 관점이 중국의 실용주의 개혁지도부의 입장과 통하는 면이 있다. 아울러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거시적 경제발전 및 개인적 직업·소득의 결정요인으로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국공산당의 개혁과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춘 개인들의 우선적 활약과 보상이 요구된다는 것이 鄧小平의 판단이었고 또 중국 정부의 지속적 정책이다.

그러나 개혁의 중장기적 추세를 볼 때, 先富의 지위가 반드시 집단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의 반영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객관적 자격조건이나 능력의 반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났다. 개혁기 중국에서 급속히 성장해 온 富裕階層은 부 축적 과정의 정당성에 따라 白色階層·灰色階層·黑色階層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희욱, 1994:17-18). 白色階層은 소득원이 비교적 명백히 밝혀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사영기업주 등을 지칭하는데, 중국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딜레마는 富裕階層 가운데 이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매우 낮다는 것이다. 灰色階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지대(地代)추구’ (rent-seeking)적 치부를 하는 간부층이나 이들과 유착된 집단들을 지칭하는데, 개혁기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가장 심각하게 결부되어 있다. 黑色階層은 사기, 밀수, 수뢰, 마약판매 등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치부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개혁·개방 정책의 이념적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갖가지 방식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하는 집단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인민들의 고통과 저항이 심해졌음이 언론보도와 연구조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³⁰⁾ 그리고 共產黨 내 보수파뿐 아니라 개

28) 예를 들어, 인민대학(人民大學)의 연구진이 1994년 청도(靑島) 시민 1천2백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76%가 인민의 수입이 서로 균등할 필요가 없으며 61.6%가 빈부격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불평등 현상 자체에 대한 긍정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을 가져다 준 시장중심적 경제개혁의 당연한 대가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식은 82.4%가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도입이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가져왔고, 86.4%가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29)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희욱, 1996).

30) 개혁기 중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富裕階層은 부 축적 과정의 정당성에 따라 白色階層, 灰色階層, 黑色階層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희욱, 1994:17-18). 白色階層은 소득원이 비교적 명백히 밝혀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사영기업주 등을 지칭하는데, 중국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딜레마는 富裕階層 가운데 이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매우 작다는 것이다. 灰色階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지대(地代)추구 (rent-seeking)’ 적 치부를 하는 간부층이나 이들과 유착된 집단들을 지칭하는데 개혁기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가장 심각하게 결부되어 있다. 黑色階層은 사기, 밀수, 수뢰, 마약판매 등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치부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개혁·개방 정책의 이념적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혁과 인사들까지도 이러한 역기능적이고 비도덕적인 불평등화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내리고 있다.

특히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축재 사례의 상당수가 중국사회의 왜곡된 권력구조에 편승한 부패간부들과 이들과의 야합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조사나 언론보도뿐 아니라 국가의 공식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됨으로써 공산당은 통치기반의 유지차원에서 부정축재 척결에 나서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의 경제적 확대재생산 현상은 비판사회학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구조적 불평등화이며 그 원인으로서의 정치적 지위와 관계는 기능적 요소이기보다는 권력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최고 엘리트집단인 당·국가 간부들은 개인적 자격이나 능력으로 볼 때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일반 인민들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보일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정치적 지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이권의 개입이나 독점이 기능적 현상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2. 대하향 先富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개혁 초기

개혁기 중국 농촌에서 경제체제 및 산업구성의 획기적 변화에 수반하여 농민들의 경제활동 유형과 소득 수준·분포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음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개혁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가 모든 제도·관계·구조의 불안정성 내지 가변성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특정한 계급구조 내지 사회구성체의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효율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중국 인민의 일부가 다른 인민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을 포착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개혁의 각 시점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먼저 이러한 분석의 실례로서 河北省 大河鄉(大河人民公社)에서 包產到戶와 包幹到戶라는 농업개혁의 핵심적 조치가 취해진 1980년대 초·중반기에 농가별 소득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분석을 통해 특히 개혁 이전 및 혁명 이전의 (가구주의) 계급·직업적 지위가 개혁기에 들어 농가경제의 다변화와 소득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요인들이 개혁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개혁기의 계급·계층적 분화가 어느 정도로 시장지향적 사경제 활동에 본원적으로 내재하는 요소이며, 어느 정도로 개혁 이전의 불평등 구조가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표출된 것에 불과한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7-1> 1985년 大河지역 농가들의 가구수입 결정요인 분석
(비표준화 OLS 계수; n=239)

가구주 특성 ^a	가구총수입 (log)	가구순수입 (log)
나이	-0.188***	-0.182***

성별(남성)	2.688***	2.506***
교육년수	-0.274*	-0.255*
구貧農계급	0.516	0.415
구富農계급	0.515	0.692
‘79년 간부	0.168	0.495
‘79년 전문가	1.060	1.172
상수	13.301***	13.149***
<hr/>		
수정 R ²	0.200***	0.186***

* p<.05, ** p<.01, *** p<.001

^a성별은 남성이 1인 가변수; 구貧農계급은 혁명 이전에 빈농 출신인 가구주가 1인 가변수; 구富農계급은 혁명 이전에 부농이나 지주출신인 가구주가 1인 가변수; ‘79년 간부는 개혁 직전 간부였던 가구주가 1인 가변수; ‘79년 전문가는 개혁 직전 전문직 종사자였던 가구주가 1인 가변수.

<표7-1>에서 大河鄉 농가들의 가구당 총수입과 순수입(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혁 이전에 중요한 사회·경제적 함의를 갖던 직업·직급적 지위나 (혁명 이전의) 계급성분은 농촌지역 개혁의 주요 조치들이 완료된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大河의 가구주들 가운데 일반 농민·노동자에 비해 지방 간부나 의사, 교사 등 전문가 집단이, 중농 출신에 비해 빈농이나 부농 출신이 개혁기의 경제적 기회에 특별히 우수하게 또는 열등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남성 가구주들이 여성 가구주들에 비해 가구의 경제상태를 더 호전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性)이라는 변수가 사회주의 집단농업에서나 실용주의 자영경제에서나 중요한 불평등 요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경제개혁에 대한 적응은 나이가 많을 수록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이전 집단경제 체제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새로운 여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청년들이 가변적인 사적 경제활동에 더 잘 적응하고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교육수준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에 대한 적응을 더디게 만든 경제적 장애요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³¹⁾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기존 체제에서 차지했던 직업·지위를 포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 새로운 경제활동 착수를 망설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성과 나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교육수

31) 이는 농촌의 초기 경제개혁이 고학력자들의 전문적 기능에 의존한 현대적 기업활동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농생산, 소규모 원시상공업 등에 의존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학력자들은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도 교육·행정직 등 나름대로 안정되고 위신이 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개혁기 들어 이를 포기하고 사적 경제활동에 무작정 뛰어 들기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매우 큰 집단이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고 농촌의 시장경제부문이 현대화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들도 본격적으로 사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준을 따져볼 때 개혁기 농가경제의 발전이 기능적 요소들에 의한 새로운 계급·계층 질서의 형성을 동반한 것은 아님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혁기 중국에서 교육수준, 정치적 지위, 계급성분 등이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실현되는 데 좀더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나아가 농촌지역을 벗어나면 그 중요성이 분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7-2〉 1985년 大河지역 농가들의 산업별 가구수입 결정요인
(비표준화 OLS 계수; n=239)

가구주 특성	양식작물 (log)	경제작물 (log)	목축업 (log)	공업 (log)	교통운수 (log)	건축업 (log)	상업· 요식업 (log)	개인 서비스 (log)	기타 (log)
나이	-0.197***	-0.177***	-0.153***	-0.010	-0.049	-0.030	-0.018	-0.003	0.098***
성별(남성)	2.567***	2.171**	2.074**	0.110	0.252	1.493*	0.724	0.072	0.420
교육년수	-0.272*	-0.263*	-0.141	-0.073	-0.058	-0.140	-0.060	-0.002	0.047
구貧農계급	0.206	0.075	-0.243	-0.054	-0.010	0.310	0.181	-0.129	1.004*
구富農계급	0.743	0.617	-1.577	-0.248	-1.819	1.385	0.892	-0.131	-0.451
79년간부	0.134	-0.241	-0.375	-0.187	-0.351	-0.998	0.244	-0.061	1.610*
79년전문가	1.304	0.853	1.317	0.069	-1.588	0.675	-0.544	-0.087	0.365
상수	12.706***	11.349**	9.761***	-5.872***	-2.730	-4.808***	-5.829***	-6.689***	-11.122***
수정 R ²	0.197***	0.164***	0.113***	0.0	0.0	0.003	0.0	0.0	0.111***

* p<.05, ** p<.01, *** p<.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7-1〉의 결론은 〈표7-2〉에서처럼 大河 농가들의 산업부문별 가구수입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양식(糧食)작물 재배, 경제작물 재배, 목축업 등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의 수입은 전체 가구수입과 거의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농업이 주수입원이었던 상황에서 당연한 통계적 결과일지 모른다. 한편으로 공업, 교통·운수업, 건축업, 상업·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개혁기 들어 농민들에게 새롭게 허용되어 갈수록 중요해진 소득원들은 개혁 직전의 직업·직급적 지위나 계급성분뿐 아니라 나이, 성,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아직 그러한 경제활동들이 널리 퍼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인과관계 유형이 포착되기가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위의 소득결정 요인들의 중요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개혁

초기에 새로운 부문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향상이 과거의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가구수입의 기타 항목은 다른 모든 부문의 수입과는 대조적인 결정요인들을 갖고 있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간부였을수록, 그리고 빈농 출신일수록 기타 수입은 많았다. 기타 수입은 사회보장적 혹은 정치적 차원의 보조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로한 인민들과, 유리한 정치·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민들에게 우선 배분되고 있었다.

〈표7-3〉 1985년 大河지역 농가들의 경영형태별 가구수입 결정요인
(비표준화 OLS 계수; n=239)

가구주특성 ^a	농가자영소득 (log)	集體경영소득 (log)	經濟聯合體소득 (log)	鄉村企業소득 (log)
나이	-0.179***	0.049	-0.019	-0.061
성별(남성)	2.631***	-2.315*	0.296	-0.160
교육년수	-0.261*	0.269+	0.046	0.035
구貧農계급	0.463	0.520	-0.909	-0.583
구富農계급	0.521	2.062	-0.560	-1.996
'79년 간부	0.221	1.411	-0.989	1.072
'79년 전문가	0.997	5.770**	-1.927	0.659
상수	12.511***	-6.297**	-4.569**	1.418
수정 R ²	0.192***	0.068**	0.001	0.0

+ p<.10, * p<.05, ** p<.01, *** p<.001

^a가구주 특성 변수의 설명은 표 9-3 참조.

〈표7-3〉에서 大河 농가들의 생산형태별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현상이 추가적으로 탐지된다. 우선 농가의 자영소득은 전체 가구소득과 대동소이한 결정요인을 보였다. 그러나 가구당 集體經營 소득은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했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농업생산이 대부분 탈집단화되었지만, 아직 유지된 鄉村 단위의 집단 생산·경영 부문은 여성의 참여가 높았거나 여성가구의 곤궁을 고려해주는 방향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부문의 관리를 위해 교육수준을 갖춘 인력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으며, 관련된 현상으로 전문가들의 경우 이 부문이 주요 소득원으로 남겨져 있었음이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이른바 우수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갖고 있는 기능적 인력은 기존의 集體 부문에 계속 종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개혁 초기의 중국 농촌에서 새로운 사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교육적 배경이나 전문직

경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적한대로 개혁이 가져다 준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 기존 지위 상실의 기회비용이 클 수 있는 사람들이 몸을 사렸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사적 이윤 추구는 새로운 종류의 자질이나 태도를 필요로 했음을 말해 준다.³²⁾ 集體經營 소득에 대한 성과 교육수준의 효과가 농가의 자영소득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비교적 새로운 소득원인 經濟聯合體와 鄉村企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정요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大河에 관한 이상의 분석들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결론은 개혁 초기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혁명 이전의 계급성분이나 개혁 직전의 직업·직위 등 구시대의 불평등 구조를 뚜렷하게 재생산했다고 볼 수 없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적·합리적 성격을 갖는 사회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여러 분석에서 간부가구들이 다른 농가들보다 높은 농업소득을 올렸음이 드러났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농업소득의 상대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급속히 하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평등의 심각성은 제한적이다. 즉 농업소득의 차이만으로 先富계급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大河에서 교육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대적 인력은 직업의 안정성, 위신 등을 고려해 오히려 개혁 이전부터 내려온 集體經營 부문에 잔류하였기 때문에, 개혁 초기의 사(私)경제활동은 기층 인민의 원시적 이윤추구 동기 정도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³⁾

즉 개혁 초기 농촌 기층지역의 先富집단은 혁명 이전의 구계급이나 개혁 이전의 신계급과 계급적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근대적 엘리트계급으로서의 뚜렷한 속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적·시기적으로 극히 제한된 타당성만을 갖고 있음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결과를 통해 개혁기 중국사회 전체의 구조적 성격 변화를 추론하기에 앞서, 내륙 농촌지역의 환경에서 영세하고 원시적인 사경제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전문·행정직 종사 경험이 필요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나아가 도시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결론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도 쉽게

32) 이 점에 기초해, 개혁기의 사경제 주도층이 합리적 기준의 ‘근대화 계급(modernizing class)’ 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중국 전체에서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소득수준과 사회·문화적 지위 사이의 불일치 현상과 연결시켜 보면 시사적이다 (이희옥, 1996 등 참조). 개혁기에 중국 인민들은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의 추세 속에 대다수가 스스로 先富의 대열에 끼고 싶어 하고 또 인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별다른 사회·정치적 배경없이 급속하게 부를 축적한 個體戶 등에 대해서는 한국말의 ‘줄부’의 부정적 이미지가 담긴 ‘爆發戶’라고 부르는 등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각 직업의 수입과 명예의 정도가 서로 반비례하는 현상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교수 등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의 소득수준이 극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많은 지식인들은 아예 박봉의 현직을 포기하고 사경제활동에 나서기까지 하는데 이들을 ‘儒商’이라 부르고 이들의 행위를 ‘下海’라고 부른다.

33)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개혁기 중국의 특수상황에서 간부, 전문직 종사자, 고학력자가 일반 농민들에 비해 여러 가지 음성적 소득원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음성적 소득이 필자가 사용한 조사자료에 정직하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경험적 타당성(empirical validity)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성소득은 항구성을 갖지 못하며, 이권개입 등을 통한 간부들의 비정상적 축제도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앞의 연구결과는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의 대다수인 거의 80%가 농촌에서 생활했던 개혁 초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 분석된 내용의 역사적 중요성은 여전히 큰 것이다.

3. 농촌개혁 안착기 대하향 선부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2003년)

1980년대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격차의 계급적 (불)연속성에 관한 하북성 大河 지역 분석의 잠정 결론은 혁명 이전의 (구)계급성분이나 개혁 직전의 (신)계급적) 직업·직위 등 이전 시대의 계급질서가 개혁기 들어서도 물질적으로 재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기술·경영적 엘리트가 사회·경제적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지도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대적 인력은 직업의 안정성, 위신 등을 고려해 개혁 이전부터 내려온 集體經營 부문에 잔류하였기 때문에, 개혁 초기의 사(私)경제활동은 일반 농민의 보편적 소득증대 욕구에 의해 주도된 것 같다. 즉 개혁 초기 농촌 기층지역의 (상대적) 先富집단이 혁명 이전의 구계급이나 개혁 이전의 신계급과 계급적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시장경제적 기능엘리트로서의 속성도 분명치 않았다. 이러한 추세가 농촌 탈집체화 20여년 시점의 대하에서도 이어졌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표7-4> 2002년 대하 농가 농업소득 결정요인

Dependent Variable: log 2002년 가구농업소득 (n=193) (단위: 위안)		
Regressor	Model(1)	Model(2)
가구노동인력수	0.017(0.080)	0.060(0.073)
경작면적	0.029(0.029)	0.019(0.028)
가구농업생산지출	0.000(0.000)**	0.000(0.000)*
승포지 비율	-0.391(0.399)	-0.349(0.370)
가구부양비	-0.194(0.402)	0.177(0.370)
가구교육수준	0.010(0.013)	0.006(0.012)
1980년대 가구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39(0.087)	0.152(0.083)+
2003년 당원 여부	-0.013(0.111)	0.081(0.101)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279(0.286)
贾村队		0.147(0.099)
双合队		0.404(0.133)**
纸房头队		0.524(0.113)***
Intercept	2.813(0.415)***	2.331(0.387)***
Adjusted R square	0.143	0.319

+: p<0.1, *: p<0.05, **: p<0.01, ***: p<0.001

<표7-5> 2002년 대하 농가 농작물소득 결정요인

Dependent Variable: log 2002년 가구농업소득 중 농작물생산소득 (n=108) (단위: 위안)	
--	--

Regressor	Model(1)	Model(2)
가구노동인력수	0.036(0.092)	0.085(0.088)
경작면적	0.050(0.034)	0.060(0.035)+
가구농업지출	0.000(0.000)*	0.000(0.000)*
승포지 비율	-0.136(0.621)	-0.285(0.569)
가구부양비	-0.053(0.549)	0.028(0.503)
가구교육수준	0.004(0.016)	-0.004(0.015)
1980년대 가구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27(0.103)	0.073(0.096)
2003년 당원 여부	-0.107(0.125)	-0.095(0.119)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108(0.300)
贾村队		0.014(0.142)
双合队		0.416(0.173)*
纸房头队		0.318(0.142)*
Intercept	2.667(0.571)***	2.422(0.519)***
Adjusted R square	0.219	0.366

+: p<0.1, *: p<0.05, **: p<0.01, ***: p<0.001

<표7-4>에서 2003년 조사된 대하 5개 마을 농가의 가구농업소득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역사적 가족배경으로서의 계급성분이 빈·하농인 경우 가구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는데 이는 마을별 소득수준 차이를 함께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아울러 (3장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가구별 농업생산지출 수준이 농업소득 증대에 중요하게 연결되었는데, 이는 사영농업의 장기적 진행에 따라 가구의 재정상태가 농민의 계층분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암시한다. 반면 가구원(부부)의 교육수준과 (공산)당원 지위는 별다른 농업소득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토지조건 및 가족인구 변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표7-5>는 가구농업소득 중 농작물생산소득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가족 계급성분의 소득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농업생산지출의 긍정적 소득효과는 여전히 뚜렷했으며 가구의 경작농지 면적이 약한 긍정적 소득효과가 있었고 가구원의 교육수준과 당원지위는 어떤 소득효과도 드러나지 않았다.

<표7-6> 2002년 대하 농가 비농업소득 결정요인

Regressor	Dependent Variable: log 2002년 연간가구비농업소득 (n=265) (단위: 위안)	
	Model(1)	Model(2)
가구노동인력수	0.149(0.067)*	0.190(0.061)**
경작면적	0.008(0.026)	-0.006(0.025)
가구농업지출	-7.793E-5(0.000)	-4.843E-5(0.000)
승포지 비율	-0.353(0.364)	-0.597(0.335)+
가구부양비	-0.286(0.357)	-0.247(0.325)
가구교육수준	0.001(0.011)	0.003(0.010)
1980년대 가구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134(0.077)+	-0.100(0.071)
2003년 당원 여부	0.128(0.100)	0.089(0.091)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173(0.259)

贾村队		-0.385(0.085)***
双合队		-0.037(0.110)
纸房头队		-0.046(0.097)
Intercept	3.936(0.362)***	4.087(0.335)***
Adjusted R square	0.154	0.334

+: p<0.1, *: p<0.05, **: p<0.01, ***: p<0.001

Note: 연간가구비농업소득 = (4)기업근로소득 + (5)기업경영소득 + (6)개체호소득 + (7)타지알바소득 + (10)토지임대소득 + (12)기타 소득

<표7-7> 2002년 대하 농가 전체소득 결정요인

Dependent Variable: log 2002년 연간가구총소득 (n=285) (단위: 위안)		
Regressor	Model(1)	Model(2)
가구노동인력수	0.140(0.070)*	0.180(0.067)**
경작면적	-0.002(0.027)	-0.012(0.027)
가구농업지출	-2.344E-5(0.000)	-1.591E-5(0.000)
승포지 비율	-0.359(0.387)	-0.666(0.372)+
가구부양비	-0.243(0.365)	-0.142(0.348)
가구교육수준	-0.001(0.012)	0.003(0.011)
1980년대 가구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95(0.079)	-0.071(0.077)
2003년 당원 여부	0.138(0.102)	0.140(0.097)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223(0.287)
贾村队		-0.321(0.090)**
双合队		-0.130(0.121)
纸房头队		0.022(0.107)
Intercept	3.993(0.379)***	4.115(0.366)***
Adjusted R square	0.102	0.225

+: p<0.1, *: p<0.05, **: p<0.01, ***: p<0.001

Note: 연간가구총소득과 연간가구비농업소득은 설문문항: Q71을 통해 측정된 것임.

연간가구총소득 = (1)농업소득 + (4)기업근로소득 + (5)기업경영소득 + (6)개체호소득 + (7)타지알바소득 + (10)토지임대소득 + (11)양식업소득 + (12)기타 소득

<표7-6>은 가구별 비농업소득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가족 계급성분이 빈·하농인 경우 (5개 마을 전체를 통합 분석했을 때) 약간의 부정적 소득효과가 나타났고 가구노동력규모가 뚜렷한 긍정적 소득효과를 보였으며 계약재배농지(승포지) 비율이 (마을별 차이를 함께 감안했을 때) 약간의 부정적 소득효과를 보였으며 가구원의 교육수준과 당원지위는 어떤 소득효과도 드러나지 않았다. <표7-7>는 가구 전체소득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 (5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시기 대하 농가들의 소득원으로서 비농업부문의 압도적 중요성을 반영해 가구 비농업소득에 대한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하며, 다만 가족 계급성분의 소득효과가 어떤 방향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2003년 대하 5개 마을 농가들의 연간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이상의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개혁 초기 계급질서의 역사적 (불)연속성 상황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역사적 가족배경으로서의 계급성분이 빈·하농인 경우 다른 계급성분 가구들보다 가구농업소득은 약간 높았지만 가구비농업소득은 약간 낮았는데, 이는 혁명 이전 선대의 농민으로

서 어려운 생활실태가 혹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반영된 사회주의 시기의 안정된 지위가 개혁기의 농가 자율적 경제체제에서 자신이나 자녀의 일종의 ‘보수적 선택’, 즉 불확실한 비농업부문 진출보다는 가족적 농업생산의 강화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농업체제 개혁 즉시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경과를 두고 발현되었을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 시기의 신계급적 (간부)지위에 밀접하게 연결된 (공산)당원 지위는 가구의 농업·비농업소득 모두에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여러 학술연구나 언론보도에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정치·행정 엘리트의 경제적 이권추구나 인민 착취가 대하 마을들 같은 농촌 기층 단위에서 주로 대두되는 현상이 아님을 함의한다. 이와 전혀 무관치 않은 맥락에서 가구원 교육수준 역시 가구의 농업·비농업소득 모두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는 농촌 기층 단위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개인들의 높은 기술·지식적 자원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움을 함의한다. 다른 한편, 가구별 농업생산 지출 수준이 농업소득 증대에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이는 사영농업의 장기적 진행에 따라 가구의 재정상태가 농민의 계층분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암시하지만 대하에서 농업소득의 가구경제에 대한 제한적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전체의 계층질서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3년 대하 5개 마을 농가 소득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개혁 초기에 관한 앞선 분석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분석에 기초해 중국사회 전체의 계급·계층적 성격 변화를 짚어보기에 앞서, 특별한 경제 활력이 없는 내륙 농촌지역의 환경에서 영세하고 원시적인 사경제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특별한 정치적 지위, 높은 학력, 전문·행정직 종사 경험 등이 요긴했겠느냐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의 자유주의적 개혁과 무관하게, 혹은 그러한 개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되고 있는 도농간 경직적 거주·직업 분리 및 이에 따른 농민인구 및 농촌사회의 여전히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농가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분화 및 소득수준 격차가 기능적인 사회·경제적 자원 외에 특수한 정치·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유발될 가능성은 중국의 탈집체 사회주의 질서의 역사적 정당성에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8장. 탈집체 농촌개혁과 여성의 지위 변화

1. 가족중심적 시장경제개혁의 성(性)편향성

개혁기 중국 농촌여성의 지위 변화를 단적으로 말하면, 가부장적 가족주의(patriarchal familism)와 가부장적 자유주의(patriarchal liberalism)가 경제적 영역에서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여파로 여성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기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요한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³⁴⁾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두 鄧小平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성차별적 함의가 지적되더라도 필요악의 차원에서 치부되고 있다. 특히 중국 농촌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뚜렷하게 개혁에 따른 즉각적 소득향상을 경험한 지역이어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주의 깊은 관찰들은 농촌여성들이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열악성이 전환기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유사(擬似)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농민가족과 중국사회 전체가 탈사회주의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성’을 하나의 항구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이용(악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은 더욱 극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다양한 경험적 자료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농촌개혁의 결과 시장지향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경제활동이 특히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었다. 우선 가족이 농촌의 기본 생산제도로서 전면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동원된 사회·문화적 자원은 개혁 지도부가 새롭게 제시한 것들이 아니라 농민들이 수천년 동안의 농경생활에서 유지·발전시켜 온 것들이었다. 따라서 가족농의 오랜 조직원리인 가부장적 분업구조가 자연스럽게 재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적 분업구조는 문화적으로 채색된 생물학적 영역분절의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自然分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보수적 지식인들의 논리는 농민들의 현실인식과 기본적으로 일치했는데, 남성과 여성은 집단농장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졌던 농업노동자들에서 농가의 가장 및 부인·자부로서의 역할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적 복지제도의 붕괴에 따라 가족 내 부양노동자로서 여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³⁵⁾ 이에 따라, 가족의 내부적 역할분담 구조 및 외부적 노동력 배치 원리에 의해 농촌여성이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반경과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다.³⁶⁾ 이 과정에서 부계(父系)·부거(夫居)의 가족구성 원리와 여성의 가

34) 중국 내 가부장적 질서는 개혁 이전에도 각 생산단위, 지역, 또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존재했으며, 따라서 중국은 ‘가부장적 사회주의(patriarchal socialism)’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스(Judith Stacey)의 *Patriarchy and Socialist Revolution in China* (1983).

35) 중국학자들은 여성의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社會主義的 賢妻良母’는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아울러 갖기 때문에 봉건시대의 男尊女卑, 男女有別의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李合龍, 1988).

36) 이처럼 여성들이 가사 운영과 노약자 부양 등에 더욱 커진 역할을 맡을 것이 기대되면서, 각 생산단위에서는 가사 부담을 진 여성 고용을 회피하거나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의 가정으로의 복귀(婦

사(재생산)노동 의무가 여성에게 심각한 차별과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게 되었다.

농업과 비농업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생산·경영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조정·통합하는 기제로서 국가계획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이 공백을 시장교환이 메우게 되었다. 시장은 각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형성되는 지역시장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중국 전체에 걸쳐 상품·원자재·노동력의 교환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³⁷⁾ 이 가운데 특히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노동력 수급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형성은 농민의 가족노동력 재배치에 있어 중대한 환경 변화였다. 농민들은 시장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계획경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경제적 자율성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경제활동의 개별적 성과나 경기의 부침에 따른 경제생활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장질서의 확립 역시 여성들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밀한 노동의 비교 우위 혹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수준에 따른 분업과 재화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지위가 계획경제 하에서보다 시장경제 하에서 더 열악해야 할 이유는 없다.³⁸⁾ 더욱이 그동안 널리 지적된 바와 같이 개혁 이전의 집단농업 시기에도 여성들은 직위 임명, 작업 배치, 작업 보상 등의 측면에서 남성들에 비해 공식·비공식적인 차별을 받았었다. 그러나 개혁기 중국의 현실은 개혁 이전의 여성들에 대한 제도화된 차별(구별) 관행이 상당 부분 지속되고, 과거 농촌공동체의 성구분 규범이 되살아나고, 심지어 서구 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실용주의 개혁이론이 성차를 노동의 비교 우위라는 차원에서 해석함으로써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성분리가 합리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성질서의 악화는 중국 농촌이 거의 만성적으로 노동력의 심각한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위협스러웠다. 어떠한 일자리든 이미 남성들만으로도 채우고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차별적 관행·규범·이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전통에 긴밀히 접목되어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다.⁴⁰⁾

女回家)’를 촉구하는 논의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에 논의되듯이 특히 도시경제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지만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7) 물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외국 자본의 진출이나 무역 증가에 따라 이른바 세계시장(global market)에의 편입이 뚜렷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38) 예를 들어, 능력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이 기존의 억압적 국가간섭이나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39) 이러한 맥락에서 한 언론보도는 “우리 모두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 . . 우리는 여성의 생물학적 본성과 육체적 힘의 한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며, “남성이 하는 무엇이든지 여성 동지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한다 (Honig and Hershatter, 1988:245). 그런데 아래에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도시의 국가기업들처럼 이미 과잉고용(overemployment)된 노동력을 해고시켜야 하는 상황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신규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차별 관행의 사회적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40) 중국에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여성문제 이론가들은 시장경제가 가족생활에의 매물, 의타심, 반진보적 수동성 등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들의 구태를 불식시키고, 대신에 물질적 성취, 공정경쟁, 기업정신, 개인창의성의 존중 등의 개인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 협력심, 공공이익의 존중 등 사회적 태도를 배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Yan and Cao, 1995).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시장경제는 과거의 성 차별·배제적 관행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므로,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자들은 이러

2. 탈집체 농촌 개혁과 여성의 지위 변화: 대하 1980-85년 및 2003년

이상의 요인들에 의한 성차별(분리)은 현실적으로 비농업부문에 대한 남성의 우선적 진출,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비취업 농촌여성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⁴¹⁾ 특히 농업노동력이 중년여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집약적 소농경작 체제 하에서의 힘겨운 원시 농업노동이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는 중국 내외의 언론매체와 학자들에 의한 사례 관찰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국가가 발표한 거시적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여성노동력의 비율은 절반을 넘게 되었으며 농촌 총생산의 50-60%가 여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女性白書]는 밝히고 있다 (FBIS-CHI, 8 June 94, pp.94-110).⁴²⁾ 여성들의 1차 산업 집중 현상을 역으로 반영해 개혁기 들어 급속히 활성화된 2·3차 유망산업들의 대부분에서 여성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

<표 8-1> 1979-85년 대하지역 남녀 직업분포 (15세 이상)

직업	남성 (%)	여성 (%)
<i>1979</i>		
학생	40 (9.8)	27 (6.4)
生産隊員 (농업)	239(58.7)	357(84.6)
노동자 (공업)	75(18.4)	22 (5.2)
교사	11 (2.7)	6 (1.4)
生産隊/生産大隊 간부	31 (7.6)	9 (2.1)
人民公社/국가 간부	11 (2.7)	1 (0.2)
<i>1985</i>		
학생	2 (0.6)	1 (0.4)
1차산업 (농업 등)	79(25.5)	136(53.4)
농촌 集體企業	102(33.1)	25 (9.9)
3차산업 ^a	58(18.7)	4 (1.6)
교사	1 (0.3)	0 (0.0)
가사/은퇴	22 (7.1)	73(28.7)
기타	45(14.6)	15 (5.9)

한 가능성을 높게 사지는 않을 것이다.

41) 이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체계적인 통계학적 분석결과로는 엔트위슬 등(Entwisle, et al., 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농촌에서 가구 단위 사기업 활동의 개시는 나이든 남성가장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식구들 가운데 주로 남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주로 농업생산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42) 이전에 “여성이 하늘의 반을 떠받친다”라는 구호는 이제 “여성이 하늘의 3분의 2를 떠받친다”라는 구호로 대체되고 있다 (Xiao, 1995).

^a운수, 건설, 상업, 요식업 등에서의 자영업 혹은 피고용.

이러한 문제는 농촌개혁의 시초부터 드러났다. <표 8-1>은 大河人民公社(大河郷)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농촌개혁의 주요 조치가 거의 취해진 1979년과 1985년 사이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분포 변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사·은퇴(28.7%)가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53.4%)에 뒤이어 둘째로 중대한 항목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 특징적이었다. 아울러 1차 산업 노동력의 구성상, 남성에 비교한 여성의 상대적 비중은 개혁기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남성들의 경우는 鄉村企業 취직, 운수업·건설업·상업·요식업 등 3차 산업 취업이 뚜렷이 늘어났다. 石家莊이라는 대도시의 근교지역으로서 갖는 경제적 특성상 大河의 인민들은 빠르게 비농업부문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주로 남성들의 몫으로 돌러지고 여성들은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전업주부로 남는 상황이 드러났다. 현재 중국 농촌에서 소득증대의 최대 요소는 비농업부문의 발전이며 농업노동은 가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상품생산 노동이 아닌 생계자급 노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시장경제에 부속된 교환가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농업노동자 또는 가사노동자로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촌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상대적 소득수준이 갈수록 떨어졌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생산기여도가 실제보다 훨씬 평가절하되는 이중적 곤란을 겪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시장질서 자체가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표8-2> 1985년 大河지역의 성별 평균 개인소득 (단위: 圓, 工分 제외)

소득 항목	남성 평균 (해당자수)	여성 평균 (해당자수)
工分 (연간)	374.7 (297)	311.4 (257)
工分 가치 (연간)	261.4 (185)	208.0 (179)
급료 (월간)	47.5 (50)	39.0 (5)
보조금 (월간)	13.5 (19)	12.1 (14)
특별보조금 (연간)	171.8 (91)	98.8 (15)
포상금 (연간)	76.2 (35)	118.1 (7)
개인자금	382.0 (351)	235.2 (263)
평균 임금 (일일)	4.8 (150)	2.6 (21)
비농업 소득 (연간)	1564.2 (163)	882.8 (30)

<표8-3> 1985년 大河지역의 가구주 성별 평균 가구소득 (圓)

소득 항목	남성 가구주 (n=188)	여성 가구주 (n=55)
-------	-------------------	------------------

임금	135.0	183.8
부업 소득	270.2	220.0
自留地 소득	137.1	117.7
보조금	75.0	20.9
총가구생산소득	1373.0	1059.3
총가구소득	3679.4	2384.7

그리고 같은 상품생산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남성 임금에 비해 떨어졌는데, 이는 남녀간 직업구성의 차이뿐 아니라 생산역량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1990년의 전국적 조사에 의하면 농촌여성의 평균 연간소득은 1,235元으로 남성 소득 1,518元의 81.4%에 그쳤다.⁴³⁾ 지역적 차원의 상황을 검토하면, 大河人民公社(大河郷)의 초기 개혁과정에서 여성 개인이나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남성 개인이나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표8-2>, <표8-3>), 특히 개혁으로 새롭게 개척된 종류의 수입에서 남녀격차가 뚜렷했다. 여기에서 결과를 자세히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격차는 통계학적 다변인 분석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여성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과 부문일수록 대체로 평균 임금수준이 낮았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역관계는 城鎮 集體單位 및 기타 단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개혁기에 농촌여성들이 새로 진출하는 임노동부문에 國有單位는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일정 산업 또는 부문에 여성의 참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하락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성들은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부문에만 (남성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진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도 있다. 어떠한 해석을 내리든 여성노동은 남성노동에 비해 체계적으로 평가절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간 소득격차에 덧붙여,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일수록 평균임금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직업위신도가 떨어졌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Lin and Wen, 1988).

<표8-4> 2003년 대하 젠더*직업유형 교차표

	남성 (N/%)	여성 (N/%)	합계 (N/%)
직업유형			
곡물재배, 양식업	44 (20.6)	18 (24.0)	62 (21.5)
농업/기업			
고용노동자	53 (24.8)	13 (17.3)	66 (22.8)
개체호	74 (34.6)	10 (13.3)	84 (29.1)
사영기업가	5 (2.3)	1 (1.3)	6 (2.1)

43) 이는 같은 조사에서 도시여성의 평균 월소득이 149.60元으로 도시 남성소득 193.15元의 77.4%인 것에 비교하면 오히려 남녀격차가 낮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남녀의 이러한 소득격차가 한국 등과 비교하면 훨씬 미약한 것이고 서구 선진국들에 비교해서도 크게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남녀간의 뚜렷한 소득격차가 실재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의 경험은 중국여성의 경제적 장래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44) 비록 일부 도시지역에 국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패리쉬(Parish, 1979)는 직업별 여성비율과 평균임금 사이의 비슷한 통계학적 역관계가 개혁 이전인 1977-78년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부	8 (3.7)	2 (2.7)	10 (3.5)
장인 및 전문가	7 (3.3)	2 (2.7)	9 (3.1)
가사 및 퇴직	11 (5.1)	24 (32.0)	35 (12.1)
기타	12 (5.6)	5 (6.7)	17 (5.9)
합계	214 (100)	75 (100)	289 (100)

<표8-5> 2003년 대하 동일 직군 평균소득 젠더차이

	(개인)연간 평균소득	
	남성(n)	여성(n)
곡물재배/양식업	5588(40)	1775(8)
농업/기업 고용노동	7288(51)	4850(10)
개체호	11477(71)	9429(7)
사영기업가	27500(4)	30000(1)
간부	9000(8)	9000(2)
장인/전문가	11833(6)	9500(2)
가사/퇴직	2857(7)	2700(6)
기타	7889(9)	1800(2)
전체	9165(198)	5833(39)

농촌 개혁이 20여년 넘게 진행된 2003년 대하의 현실을 통해서 볼 때, 이상과 같은 중국 농촌의 성 차별과 불평등 추세는 개혁과 더불어 꾸준히 유지·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8-4>를 보면, 조사된 대하 5개 마을의 남녀 농민들은 직업 분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들은 농업직 비율(24.0%)이 오히려 남성들(20.6%)보다 높았고, 전업적 가사 비율(32.0%)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반면, 남성들은 임노동(24.8%)과 개체호(34.6%) 비율이 농업직 비율보다 높았고 여성들의 해당 비율(각각 17.3%와 13.3%)보다 뚜렷이 높았다. 개혁기 농촌 발전의 핵심 과정인 지역 기반적 산업화는 남성 위주로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여성들은 가족내 농업생산과 가사수행을 중심으로 이러한 성분질(분업?)적 과정을 뒷받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8-5>를 보면, 설사 여성들이 지역 산업화에 참여하더라도 동일 직군에서의 평균소득이 남성들보다 뚜렷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같은 임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평균소득은 4850위안으로 남성의 7288위안보다 현저히 낮으며, 개체호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여성이 9427위안 남성이 11477위안으로 남녀차이가 분명하다. 사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종사율이 높은 농업에서 훨씬 더 심각한데, 여성은 1775위안 남성은 5588위안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들을 반영해 전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이 각각 9165위안과 5833위안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1.6배 가까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각주: 설문응답자 기준이어서 sample selection 유의]

<표 8-6> 2003년 대하 교육수준*젠더 교차표

	남성 (N/%)	여성 (N/%)	합계 (N/%)
교육수준			

6년 이하	32 (15.0)	14 (23.3)	46 (16.8)
6-9년 이하	85 (39.7)	23 (38.3)	108 (39.4)
9-12년 이하	75 (35.0)	17 (28.3)	92 (33.6)
12년 이상	22 (10.3)	6 (10.0)	28 (10.2)
합계	214 (100)	60 (100)	274 (100)
평균 교육년수	7.72	6.44	7.69

<표8-7> 2003년 대하 동일 학력수준 * 평균소득 젠더차이

	(개인)연간 평균소득	
	남성(n)	여성(n)
6년 이하	5946(28)	3010(10)
6-9년 이하	8276(78)	5400(11)
9-12년 이하	10300(70)	7000(11)
12년 이상	12800(22)	14500(4)
합계	9165(198)	6236(36)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동력이 가족생계 충족적 농업보다는 다양한 부문의 지역 상공업에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은 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기초로서 교육의 중요성 강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녀의 상대적 교육수준 변화 추이가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성평등 질서를 구조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표8-6>를 보면, 대하에서 조사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6.44년으로 남성의 7.72년보다 짧았다. 특히 교육년수 9~12년 집단이 여성은 28.3% 남성은 35.0%, 6년 이하 집단이 여성은 23.3% 남성은 15.0%로 분포되어, 남성의 상대적 고학력 분포와 여성의 상대적 저학력 분포가 뚜렷했다. 이러한 남녀간 학력 격차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성별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표8-7>를 보면, 동일한 학력 수준에서도 남녀간의 뚜렷한 소득격차가 존재했다. 교육년수 6년 이하 집단에서 평균소득은 여성 3010위안 남성 5946위안, 교육년수 6~9년 집단에서 여성 5400위안 남성 8276위안, 교육년수 9~12년 집단에서 여성 7000위안 남성 10300위안으로 현격한 남녀 격차가 있었으며, 다만 예외적 고학력인 교육년수 12년 이상 집단에서 여성 14500위안 남성 12800위안으로 성별 차이가 역전되었다.[각주: 이는 해당 여성4인과 남성22인의 개인적 특수성을 확인해야 설명될 것이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사이 비례성의 이러한 성분절적 차이는 비록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범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일종의 초기 (재)근대화·산업화 과정에 있는 중국 농촌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참여 및 수혜 자체가 성적 불평등 질서를 구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표8-8> 2003년 대하 세대별 평균 교육년수 젠더차이

	평균 교육년수	
	남성(n)	여성(n)
19-29세	10.20(10)	7.67(3)
30-39세	8.52(58)	9.00(9)
40-49세	8.20(64)	8.05(22)
50-59세	6.93(57)	5.08(24)
60세 이상	5.76(29)	2.75(8)
전체	7.72(218)	6.44(66)

이에 덧붙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추세로, <표8-8>에서 2003년 대하 농민들 사이 평균 교육년수의 남녀 차이가 세대별로 볼 때 19~29세 청년층(남성 10.20년; 여성 7.67년)에서 매우 두드러졌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교육이수 중일 가능성, 일부 남성 청년들이 군 복무 중일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그 격차의 의미는 다른 세대들보다 크다. 50~59세 및 60세 이상 장노년층에서 교육년수의 분명한 남녀격차가 있었지만 30~39세 및 40~49세 세대의 경우 그러한 격차가 사라졌었는데, 20대 청년세대에서 다시 남녀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농촌 개혁의 장기적 진행과정에서 가족, 경제(시장), 국가의 상호작용으로 성차별 혹은 성분절적 질서가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3. 대하향 2003년 개인소득 성별분포 및 결정요인

<표8-9> 2003년 대하 개인연간소득 결정요인

Regressor	Dependent Variable: log 개인연간소득	
	Model(1)	Model(2)
성별_남성 여부	0.164(0.068)*	0.113(0.067)+
연령_연속변수	0.003(0.003)	0.001(0.003)
교육년수_연속변수	0.055(0.011)***	0.051(0.010)***
정치면모_당원 여부	0.054(0.077)	0.053(0.073)
핵가족 여부	-0.097(0.051)+	-0.113(0.049)*
2003년 직업_비농업직 여부	0.296(0.061)***	0.215(0.061)**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16(0.053)	0.003(0.051)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248(0.088)**
贾村队		-0.285(0.068)***
双合队		-0.003(0.060)
纸房头队		-0.012(0.080)
Constant	2.903(0.214)***	3.226(0.218)***
Adjusted R square	0.242	0.329

+: p<0.1, *: p<0.05, **: p<0.01, ***: p<0.001

<표8-10> 2003년 대하 비농업직 종사자 개인연간소득 결정요인

Dependent Variable: log 비농업직 종사자 개인연간소득		
Regressor	Model(1)	Model(2)
성별_남성 여부	0.145(0.076)+	0.051(0.077)
연령_연속변수	0.004(0.003)	0.001(0.003)
교육수준_연속변수	0.052(0.012)***	0.044(0.012)***
정치면모_당원 여부	0.032(0.085)	0.012(0.081)
핵가족 여부	-0.100(0.058)+	-0.100(0.056)+
1980년 계급성분_빈하농 여부	-0.011(0.056)	-0.004(0.054)
생산대_大河队 기준		
小河队		-0.323(0.093)**
贾村队		-0.283(0.082)**
双舍队		-0.004(0.065)
纸房头队		-0.004(0.088)
Constant	3.194(0.225)***	3.549(0.229)***
Adjusted R square	0.129	0.234

+: p<0.1, *: p<0.05, **: p<0.01, ***: p<0.001

<표8-9>, <표8-10>는 위에서 설명한 개혁기 중국 농촌의 성분절적 사회·경제 변화를 2003년 조사된 대하 5개 마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표8-9>에서 개인별 연간소득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별(남성)은 교육년수 및 비농업직 종사지위와 함께 개인소득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다. <표8-10>는 마찬가지로 분석을 비농업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성별이 교육년수와 함께 개인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가 모든 마을들을 통합해 분석했을 때 더 분명했다. 이러한 대하 지역 분석결과는 개혁이 20여년간 진행된 중국 농촌에서 여성들은 가족, 경제(시장), 국가의 복잡한 상호작용 하에서 사회·경제적 탈집체화가 성차별·성분절적 질서의 구조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면하고 수용해 왔음을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中國共產黨 지도부는 시장지향적 자유경제활동을 허용·촉진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빈부격차와 계급분화에 대해 이념적인 사전 조치로서 이른바 先富 논리를 전개했다. 개혁 과정에서 유능하고 적극적인 일부가 다른 인민들보다 빨리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당사자들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다른 인민들의 복지 증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先富의 지위는 오히려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적극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先富論은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혁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해 온 현실에 대한 합리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당장은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직업·보수·위신을 갖더라도 개혁을 위해 일부 집단, 즉 남성들이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들을 포함한 인민 전체의 지위와 복지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 엿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추세를 보면, 先富의 지위가 반드시

집단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의 반영이라고 보기가 어려울뿐더러 심지어 객관적인 자격조건이나 능력의 반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급증했다. 각 사회 집단의 상이한 관점에서 보면, 개혁기 중국 농촌 내부의 사회·경제적 이질화와 불평등화는 상당 부분 불공정한 환경이나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바로 성(性)적 지위에 관련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와 관찰에 따르면 중국 농촌개혁의 성공은 성에 따라 차별적인 현상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나아가 도시지역 개혁 역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화시켜 왔다. 이러한 성차별의 문제들은 鄧小平의 先富論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개혁의 장기적 진척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先富 집단의 형성에 여성이 배제되어 온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도입이 성차별적·성배제적 토착 사회질서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생물학적 성을 위계적 분업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교육·기술 수준에 따라 일부 여성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즉 시장은 상황에 따라 성억압이 아닌 성해방의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하는 세력이 그 전제조건으로서 봉건적 성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을 함께 시도한 경우는 없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개혁은 엄청난 비용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장경제 추진세력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성질서를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포섭·활용하는 전략을 취한다. 개혁기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자유시장경제가 성차별적 가족주의와 교묘히 결합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록 드러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도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기에 영향력을 얻고 있는 경제적 가족주의와 자유주의 어느 것도 중국 여성 지위의 장기적 향상을 분명히 기약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보호·제고 노력이 독립적인 개혁과제로서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9장. 탈사회주의 농촌개혁: 중국 경험의 북한에 대한 함의

1. 서론

북한 당국은 2023년 2월 하순에 예정에 없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실현은 내걸고 오직 농촌·농업 문제만을 집중 토론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신문(2023/2/6)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의 결정 배경에 대해 노동당 정치국은 “농업 발전에서의 근본적 변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2022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당이 농업·농촌을 가장 중시한다고 강조하며, 농촌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하기 위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정책적 구호는 여전히 협동농장 체제를 중심으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농업생산을 관리하는 제도적 현실에 대해 어떤 체계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근본적 혹은 혁신적 변화를 구상·모색하고 있는지 분명치가 않다. 결국 이 시점에서 북한은 이미 40여년을 넘긴 중국의 농촌·농업 개혁이 초기에 농민경제의 급속한 향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뒤이은 전국적 농촌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제 전체의 폭발적 성장세를 촉발했고 궁극적으로 도시경제가 만성 침체기를 벗어나 본격적 구조개혁과 생산증대에 돌입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시간적 여유를 조성했던 역사적 현실에 대해 심각한 (재)고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국 농촌개혁의 매우 복잡한 성격과 결과는, 중국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가능성 및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남한 등 외부의 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로 사안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외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이 흔히 사영농업의 부활에 따라 급속한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진 정도로 단순화되어 이해되었었고, 따라서 북한도 중국처럼 농업을 사영화하면 농업생산성과 농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농정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쉽게 내려졌었다. 북한 농촌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 단순히 일부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남한 정부 및 국제사회의 잠재적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고 성급한 판단은 현실적 부작용이 무척 심각할 수도 있다.

북한의 앞길에 대한 함의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농촌개혁을 평가하는 데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그것이 생산체제 전환을 위해 채택된 국가정책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농촌개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세기말 중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환경에서 농민들이 가졌던 미시적 차원의 욕구, 행태, 자원이 인구, 산업구조, 도농관계 등 거시적 경제조건들과 어떻게 맞물렸고, 국가의 개혁정책이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식 농촌개혁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려면, 마찬가지로 북한 농민들의 미시적 욕구, 행태, 자원과 거시적 경제환경 및 구체적 개혁정책의 삼박자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게 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중국 河北省 大河라는 구체적 농촌지역의 집체시대 후반부 및 탈

집체화 이행·안착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분석 결과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중국의 탈집체 농촌개혁에 대한 다분히 이념적·가설적 단순화에 의거해 북한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해 온 드물지 않은 관행과 오류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사안들을 규명·예측함으로써 북한의 농촌·농업 문제에 대해 보다 적실성 있게 진단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은 본서에서 실행한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과정·성격·결과에 대한 복합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농촌경제의 개혁 조건과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 하에서의 농촌·농업·농민의 사정을 간략히 비교검토하고, (2) 중국 농촌개혁의 핵심적 측면들인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 농촌 산업화의 성격,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관계, 사경제 확산에 따른 불평등화 등을 염두에 둔 북한의 농촌개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3)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등의 거시정책적 변수,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등의 미시조직적 변수, 인구·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겠다.

2. 북한과 중국의 농촌, 농업, 농민

중국과 북한에서 좌파혁명이 성공하여 사회주의 정권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이 가졌던 정치·경제적 중요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민이고 경제구조는 여전히 농업국으로서의 성격을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배, 내전 등의 혼란을 거치며 굶주려 왔던 인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말로 국가과업의 최우선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과 북한은 이처럼 시급한 과업에 직면해, 土地改革에서 농업의 단단계 집단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이러한 초기 성공이 이후에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민생활의 지속적 향상을 담보하지는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농업과 공업, 농민과 노동자, 농촌과 도시 사이의 구조적 차별과 불균형이 뚜렷해지는 문제가 드러났지만, (나이든) 농민들의 대다수는 양국 공산당의 초기 농촌공작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정의와 행복에 대해 여전히 진한 감회를 갖고 있다.

북한이 1946년 실시한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방식의 철저한 土地改革은 빈농과 소작농이 대다수였던 농민층으로부터 열렬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농업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었다 (고승효, 1993). 이후 북한은 한국전쟁기의 파괴와 혼란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1953년에 바로 농업협동화에 착수하여 1958년까지 5년 여에 걸쳐 농업협작사의 전국적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농업생산량은 인상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59-61년 기간에는 협작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리(里)를 단위로 하는 대규모 협작사들이 조직되었으며, 1962년부터 오늘날의 협동농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실제 생산관리의 차원에서는 1960년 김일성의 ‘청산리 현지도’를 계기로 ‘작업반우대제’가 도입되었고 1966년부터는 ‘분조관리제’가 전면 실시되어 소규모 농작업 단위별로 생산노력과 분배를 긴밀히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전보다는 완만하지만 농업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1930-40년대 혁명전쟁 기간에 일부 혁명기지에서 다양하게 실험된 土地改革과 농업 집단화를 1950년부터 1957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때 농업생산량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1950-52년 기간에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방식의 土地改革을 끝내자마자 즉각 농업 집단화에 돌입하여 이를 원래의 목표시기인 1967년보다 10년을 앞당긴 1957년에 완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실시된 大躍進 기간에는 대규모 人民公社 체제를 기반으로 도입된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동원경제 체제가 농촌경제와 농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1961년부터 생산체제의 조정이 이루어져 생산·분배 단위로서의 生產隊 및 그 상급 단위인 生產大隊와 人民公社가 포함된 三級 생산체제가 확립되어 197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정기 들어 농업생산량의 회복세는 매우 눈부신 것이었지만,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체에 걸쳐 농업생산량의 증가는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까지를 따지면, 이처럼 중국은 人民公社 조직을 기반으로, 북한은 협동농장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集體農業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사회주의 집단농업체로서의 人民公社와 협동농장은 내부의 조직구성과 경영방식, 국가경제에의 통합방식 등 기본적인 성격들이 서로 비슷하였다. 즉, 농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토지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계수요와 노동시간을 각각 감안한 생산물 분배에 따르고, 농장 단위로 조직화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국가가 정한 주요 정치·경제적 시책들을 하루하루의 생산활동 및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 왔던 것이다. 양국의 사회주의 농업체제가 가졌던 이러한 유사점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수많은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북한과 개혁 직전 중국 상황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뒤이어 검토할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에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자연재해에 의한 북한 인민들의 피해상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첫째,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농촌의 일반 행정기구와 농업관리기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리단위에서는 리인민위원회와 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별도의 기구로 존재해 왔다. 개혁 직전의 중국에서는 人民公社가 생산, 분배 등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사회·행정적 기능을 포괄한 이른바 政社合一의 기구로 존재했으며, 개혁기에 들어 집단농업체로서의 人民公社는 해체되고 별도의 행정기구인 鄉政府和 村民委員會가 출범하였다.

둘째, 북한의 협동농장은 대형 농기계 등 주요 설비가 국유이고 토지 및 소형 농기구 등은 집단소유인 혼합적 소유구조를 갖고 있고, 지방정부가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간접자본을 직접 건설·운영하는 등 국가개입이 강한 집단농업 체제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人民公社는 상대적으로 자율·자족적인 집단경제 체제였는데, 개혁기에 들어 人民公社가 해체됨과 동시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간접자본의 유지·건설도 갑자기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나 농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는 이제 농민들 자신의 집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했다.

셋째, 북한의 협동농장이 채택한 작업반우대제 및 분조관리제는 농작업을 세분화하고 작업단위를 축소하여 생산담당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생산노력(업적) 증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조치였다 (고승효, 1993:213-18). 또한 농가별로 텃밭을 배분하고, 여유 농산물 및 일부 생필품 교환을 위한 ‘장마당’이라는 지역시장을 허용하는 등 경직된 관리경제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했

지만, 대체로 1970년대 말까지는 북한에 비해 생산단위의 규모도 크고 농작업 및 분배 과정에 있어 좀더 경직된 집단농업 체제를 유지하였다. 물론 自留地라는 농가별 텃밭도 허용하고 지역에 따라 여유 농산물과 일부 생필품의 교환을 위한 지역시장이 은밀히 열린 것은 북한과 마찬가지로이다.

넷째,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농업의 기업적 관리, 농민의 노동계급화, 농촌 생산수단의 전민소유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집체(集體) 단계의 농촌경제를 전민(全民) 단계로 끌어올리고 농업 생산 및 노동을 공업 생산 및 노동에 근사시키려는 명시적인 의지와 노력을 표명하여 왔다. 농민들의 소득, 복지혜택 등 사회·경제적 지위도 도시노동자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의 주도로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추진된 ‘83인민소비재안’은 농민들이 유희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기초적 소비재를 어느 정도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재 공급능력이 부족한 도시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켰다(방찬영, 1995). 반면, 개혁 이전의 중국에서 농업생산과 농촌경제는 그 자체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및 산업적 특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처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강조는 농촌경제의 적절한 다변화 및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시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계속 열악해진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개혁기에 들어 농업과 공업, 농촌경제와 도시경제의 연계발전을 강조하는 현실적 대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왔다.

다섯째, 북한에서 농촌인구, 농업노동력, 농업생산 등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농업·농촌 중심 사회로서의 단계는 오래 전에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기는 하지만 식량 및 생필품원료의 공급, 나아가 수출의 측면에서 상당한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 개혁 직전의 중국에서는 농촌인구(1978년에 82.1%) 및 농업노동력(1978년에 70.7%)의 범사회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었으며, 다만 농업생산(32.8%)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실용파의 경제개혁 역시 농업과 농촌을 시발로 했던 것은 당연해 보이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노동집약적 산업화까지도 농업과 농촌에서 그 기본조건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북한 농촌에서는 그동안 인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농촌인구와 농업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중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등의 요인이 작용해 농촌에 지나친 유희노동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시기에 따라 오히려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개혁 직전의 중국 농촌에서는 1960년대 인구폭증의 여파가 나타나고 경직된 거주 및 직업배치 정책으로 농촌인구와 농업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전혀 줄지 않은 등의 요인이 작용해 한정된 토지에 심각한 인구압력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엄청난 유희노동력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농업 이외의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핵심 대책이 바로 농민들의 선도를 개혁지도부가 추진한 농촌(鄉鎮) 산업화이다.

북한과 중국 농촌의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 중국 농촌개혁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이 중국과 차이를 갖는 농업정책과 농촌사정은 상당 부분 중국이 실용주의 개혁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 중국식 농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취해진 것과 유사한 농촌개혁 조치들을 북한이 취했을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의 뚜렷한 성과들, 즉 농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항상, 농촌경제의 성장과 다변화 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북한이 농촌 경제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성과도 상당히 불확실하며 더욱이 북한의 농촌경제가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 갖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도시경제의 동시적 개혁과 발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농촌개혁 자체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중국식 농촌개혁과 북한의 진로

북한의 중국식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은 북한이 현재 분명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직까지는 중국이 단연 두드러진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성공 사례이며, 북한이 앞으로의 개혁 작업을 중국의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과 현재의 경제구조, 국가지도부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입장, 자본주의 남한과의 갈등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이 반드시 중국식의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이 중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제시해 왔다.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의 고유한 정치이념과 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재독학자 송두울(1995)은 북한에서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쉽게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헌법으로도 규정된 북한 사회주의의 주체적 성격,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목표가 방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강조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나 경제정책의 부분적 분권화도 중국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까지 북한이 농업에 있어서 ‘협동적 소유형태’를 ‘전인민적 소유형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농업 사유화를 경제개혁의 시발로 삼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발전전략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⁴⁵⁾

북한 농촌의 (중국식) 개혁 가능성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논의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념적 입장과 현실적 경험을 반영해 북한의 앞길에 대해 심각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들이 중국의 농촌개혁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논의에서는 좌·우 이념적 입장을 넘어서 중국의 농촌개혁이 사회주의 집단농업 체제가 포기되고 사영농업과 시장경제가 도입된 것으로 간단히 요약된다. 그리고 농촌개혁의 경제적 성과도 엄밀한 검토 없이 과대평가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촌개혁은 사회주의 생산체제의 전환을 위해 취해진 몇몇 국가정책으로 요약될 수 없으며 그 경제적 성과도 매우 복잡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중국식 농촌개혁이 추진되어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1970년대 말의 중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여건에서 국가의 개혁정책을 등에 업은 농민들의 미시적 욕구·행태·자원과 거시적 경제환경 사이에 조성되었던 생산적 관계가 북한 농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5) 1994년 북한주석 김일성은 「사회주의 농촌 테제」 발표 30돌을 맞아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농민의 노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중국의 농촌개혁 시나리오가 북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의 도입과 농민들의 대응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1) 농업생산에 있어서 개인·가구별로 생산 성과에 따른 정확한 책임과 보상이 적용되도록 농작업 단위를 점차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구 단위로 분배하여 사영농업을 실시한다. (2) 생산조직으로서의 협동농장은 해체하고 농촌 기층단위의 행정기구가 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기반시설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3) 농업 생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 조치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제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4) 농민들이 늘어난 농업소득을 사용하여 다양한 비농업적 소비·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산업적·지리적·직업적으로 대폭 자유화시키고 대부분의 경제요소들에 대해 시장기제를 허용하거나 도입한다. (5)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고 농가의 여유소득을 자본으로 활용하며 농민들의 소비재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노동집약적 소비재공업 부문에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등의 진출을 촉진시킨다. (6) 농촌공업의 기술·자본·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북한 내 도시기업 및 외국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를 유도한다. (7) 협동농장의 해체에 따른 농민들의 집단적 복지서비스 약화는 가족·친족간 부양윤리 강화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영리적 서비스시설을 시급히 마련한다. (8) 사영 생산활동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확대되는 농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과 계급·계층적 차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념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집단과 부유계층을 정치적으로 보호·관리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이상과 같은 일련의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1)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등의 거시정책적 변수, (2)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등의 미시조직적 변수, (3) 인구·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에서 따져보자.

먼저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 사영화의 실시, 농촌 생산·행정조직의 개편, 농촌인구의 자율적 직업·거주 변경 허용, 각종 생산요소 및 상품 시장의 허용, 가족부양 책임의 강화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보완 등 중국에서 취해졌던 일련의 조치가 북한에서도 무난히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국가지도부 내부의 노선갈등이나 정책대상 사회집단인 농민층의 반발이 있을 경우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에 비해서도 국가지도부가 더욱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농민층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 정책기조가 정해지면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중국에 비해 인구·경제규모·국토면적이 훨씬 작다는 사실도 이러한 제도 개혁의 용이함을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작업반우대제 및 분조관리제의 도입, 농촌시장의 부분적 허용 등 중국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농촌개혁 초기에 실시한 것과 유사한 조치들을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왔다는 사실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정책의 이념적 합리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해 온 북한 정권으로서도 굳이鄧小平류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탈사회주의적인 개혁조치들을 민족 자존의 차원에서 쉽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동안 김정일의 주도 하에 취해진 농촌과 도시의 초보적 경제자유화 조치들이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과 이념적 독자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철저히 정당화되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적 몰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독자노선의 중요성을 인민들에

게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용적 개혁노선의 도입도 그만큼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개혁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소득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이념적 차원에서 심각한 도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

농촌의 생산체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동원능력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선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 정부가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타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지출을 수행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도 농촌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 조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북한 정부가 중국의 일부 해안지방에서처럼 막대한 해외자본의 유치에 성공할 전망도 당분간은 불투명하다. 나진·선봉, 신의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서방)자본에게 북한은 중국과 다르며, 심지어 남한자본조차 매우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 북한의 농촌인구 및 농업생산의 국가적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라도 농촌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거둘 논리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생산조직의 형성에 관해 살펴보면,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체제를 재도입하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정치적 통제력도 충분하고 아울러 북한 농민들도 대체로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업 사영화를 시발로 농민들이 가족 단위의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갈 때 그들의 가족관계가 중국에서처럼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으로 작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족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될 때 농민들은 가족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동기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경우에 중국의 상황과는 달리 인구압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경제개혁책에 모순되는 강압적 산아제한책을 실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의 사영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집체 생산조직들이 보강·설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 비해 지방 차원에서 집체공업 운영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영기업, 사영기업 등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중국과 같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역주민의 경영·소유·고용상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농촌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농민들에 대한 생산동기 부여에 관해서도 중국의 경우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즉 대폭적인 농산물 수매가 인상 및 가구별 책임생산제의 동시적 도입이 이루어지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진작되고, 새로운 비농업부문의 고소득 경제활동 기회들이 주어지면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상식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북한 농민들이나 중국 농민들이나 그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국가정책의 호의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경제개혁책들이 즉각적으로 상당한 소득 향상을 갖고 오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 지속성이 정치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으로 천명됨으로써, 인민들이 북한 정권의 개혁기조에 대해 충분한 정치적 신뢰감을 갖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체제 개혁이 이론적으로 갖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처한 인구·물리적 여건에 의해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방찬영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농업경지 부족, 토질의 저하와 유실, 농업용수 부족 등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

문에 농민들의 생산의욕 제고만으로 북한 농업의 획기적 재도약이 가능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비농업부문의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미 도시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잠재적 탈농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농촌과 도시의 차이 없이 노동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와 같은 루이스형의 노동집약적 농촌 산업화가 촉발되기 어렵고 또 시작되더라도 장기적인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⁴⁶⁾ 그리고 농촌제조업에 대한 원료 및 에너지 공급도 상당 기간 원활치 못할 것이다. 물론 농촌의 유희노동력 부재는 인구부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 국가의 복지비용 및 가족의 생계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의 확대를 갖고 올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에서 중국이 실시한 것과 같은 일련의 농촌개혁책이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인구·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식의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여건의 근본적 상이성으로 인해 그 체제개혁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현실적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체제의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이 북한에서 농촌개혁의 기회비용으로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협동농장의 해체 및 이에 수반된 시장경제적 개혁책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회주의 집단농업이 하나의 현대적 조직농업 체제로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급진적 경제개방의 여파로 가족농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국제경제적 차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농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북한에서 굳이 가족 단위의 농업 사영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를 반문해 볼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편으로 농민들 자신의 구체적 입장과 거시적 개혁정책의 논리를 조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기대효과와 기회비용을 균형있고 면밀하게 고려하는 태도가 북한지도부에 요청된다.

46) 이는 남한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제조업 발전전략이 이미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이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부록> 2003년 대하향 5개촌 농가 사회경제조사 설문지

在每一问后面给出的"选择答项"前的括弧里先划圈或填写数字,然后将这个小题的标号填在上面的括弧。

[1] 您和您家人的基本情况 (1-11)

1. 您所在的村是?

1. 大河十五队 2. 小河三队 3. 贾村三队 4. 双合二队 5. 纸房头二队

2. 您的性别? () 1. 男 2. 女

3. 您出生于哪一年 (公历年份) () 年

4. 您的婚姻状况?

1. 未婚 2. 初婚 3. 离婚再婚 4. 分居 5. 丧偶再婚 6. 离婚未婚 7. 丧偶未婚

5. 您一共上过多少年的学? (除全日制小学, 中学以及大众专院校的学习外, 还应该包括在其他地方接受的专业技术培训, 不足1年的根据具体情况四舍五入) _____?

6. 您的文化程度是_____? 您配偶的文化程度是_____?

1. 没上过学 2. 小学没毕业 3. 小学毕业 4. 初中没毕业 5. 初中毕业 6. 高中没毕业
7. 高中毕业 8. 大专没毕业 9. 大专毕业 10. 大学没毕业 11. 大学毕业 12. 研究生

7. 您的出生地是_____? 您配偶的出生地是_____?

1. 现居住的村 2. 大河镇的其他村 3. 鹿泉市的其他乡
4. 石家庄的其他县 5. 河北省的其他市, 县, 地区 6. 其他省

8. 您自己的父母家与您配偶的父母家的交通距离有多少公里? _____里

9. 您家有几口人 (在一起吃饭并一起居住者)? _____人

10. 您家现在的家庭形式是 (与您一起居住并在一起吃饭的成员)

1. 户主夫妇二人 2. 户主夫妇加未婚子女 (或仅有父或母加未婚子女等)
3. 户主夫妇与自己的父母亲加自己的未婚子女 (或仅有父或母但没有子女等)
4. 户主夫妇与自己的父母亲加一个已婚子女 (包括子女的子女在内)
5. 户主夫妇与自己父母亲加二个及二个以上的已婚子女 (包括子女的子女在内)
6. 无父母亲的未婚子女家庭 7. 户主夫妇与非亲属组成的家庭 (如老年夫妇与保姆)
8. 隔代家庭 (如祖父母与孙辈组成的家庭) 9. 其他

11. 以下家庭成员中临时在外地居住的有（如果没有在外地居住的人，则跳答12）？

	是否在外地临时居住？ 是：1 不是：2	如果他们在外地居住，那么，他们居住在外地的原因是： 1：上学 2：参军 3：在河北省省内打工 4：在河北省以外打工 5：在河北省干个体户或私营业主 6：在其他省干个体户或私营业主 7：其他
1. 配偶		
2.1 大儿子		
2.2 二儿子		
2.3 三儿子		
3.1 大女儿		
3.2 二女儿		
3.3 三女儿		
4.1 大孙子		
4.2 二孙子		
4.3 三孙子		
4.4 大孙女		
4.5 二孙女		
4.6 三孙女		

[2].家庭关系和农村生活（12-26）

12. 您认为在以下各项中农村跟城市相比怎么样？

	农村 非常好	农村 好一点	差不多	城里 好一点	城里 好多了	不清楚
	1	2	3	4	5	6
1) 养育儿女						
2) 子女教育						
3) 子女婚嫁						
4) 夫妻关系						
5) 赡养老人						
6) 居住条件						
7) 医疗保健						
8) 日常生活						

13. 在一般情况下，你们村的女孩愿意嫁给农村男青年，还是愿意嫁给城市男青年？

1. 愿意嫁给农村男青年 2. 愿意嫁给城市男青年 3. 差不多

14. 如果愿意嫁给城市男青年，您认为是什么原因？（标出您认为最重要的两项：第一选择____第二选择____）

1. 农村的经济收入比较低 2. 农活非常辛苦或落后 3. 跟城里相比，在农村子女受教育条件差 4. 跟城里相比，在农村居住条件相对较差 5. 农村青年的文化程度比较低 8. 其他（具体指的是_____）

15. 如果您的儿子想去城里做事，您会？

1. 非常支持 2. 基本上支持 3. 不干预 4. 能挽留就挽留 5. 不让他去 6. 没有儿子

16. (请在15题中选择1或2的人回答) 如果您非常支持或者基本上支持的话, 那么, 您支持的理由是什么? (标出您认为最重要的两项: 第一选择_____第二选择_____)

选项		
2) 在城里, 个人学习和就业的机会多		
3) 在农村, 难以遇到好的结婚对象		
4) 在农村, 养育儿女负担重, 子女受教育条件差		
5) 在农村, 老年生活无保障		
8) 其他 (具体指的是_____)		

17. 如果您的女儿想去城里做事情, 您会?

1. 非常支持 2. 基本上支持 3. 不干预 4. 能挽留就挽留 5. 不让他去 6. 没有女儿

18. (请在17题中选择1或2的人回答) 如果您非常支持或者基本上支持的话, 那么, 您支持的理由是什么? (标出您认为最重要的两项: 第一选择_____第二选择_____)

选项		
2) 在城里, 个人学习和就业的机会多		
3) 在农村, 难以遇到好的结婚对象		
4) 在农村, 养育儿女负担重, 子女受教育条件差		
5) 在农村, 老年生活无保障		
8) 其他 (具体指的是_____)		

19. 如果年纪大了, 生活不能自理的话, 您会选择? (标出您认为最重要的两项: 第一选择_____第二选择_____)

1. 跟子女同住, 依靠子女 2. 依靠子女, 但不一起住 3. 依靠自己的爱人生活
4. 依靠亲戚, 朋友的资助生活 5. 靠个人积蓄生活 6. 出租土地, 靠租金生活
7. 靠本地区的社会福利生活 8. 靠国家资助生活 9. 根据儿子的想法调整自己的安排
10. 其他 (具体指的是_____)

20. 您对城里人的生活和经济收入知道多少?

1. 知道的很清楚 2. 知道一点 3. 不太清楚 4. 完全不知道

21. 如果您很了解或者知道一点城里生活的话, 请选出您是通过何种途径知道的 (标出您认为最重要的两项: 第一选择_____第二选择_____)

1. 本人曾去过那里 2. 本人经常去那里 3. 从住在城里或去过城里的家人处得知
4. 在学校里学的 5. 通过报刊杂志, 电视, 收音机, 报纸等得知
6. 通过乡亲们的传闻得知 7. 村里的干部说的 8. 其他 (具体是_____)

22. 您自己有没有想过要到城里去住?

1. 农村好, 我要住在农村 2. 住在城里也不会有什么好发展, 宁可住在农村
3. 赚了钱以后就去城里住 4. 在城里赚了钱以后也要回来住
5. 迟早会离开农村, 再也不回来 6. 在农村有经营离不开农村

7. 其他（具体是_____）

24. 您是否认为城里的市民比农民过得好？

1. 城里的市民过得好 2. 农民现在过得好 3. 差不多 4. 不了解城市市民

24.1 如果您在上题选择了“1”，那么为什么城里的市民比农民过得好？按顺序标出最重要的两项：第一选择_____第二选择_____

1. 城里的工人文化程度好 2. 城里的工人勤劳 3. 城里各种机会多
4. 国家给城里的工人提供了生活和工作保障 5. 其他（具体是_____）

25. 您对下面的观点怎么看？请在同意的地方画☑□

	1非常同意	2比较同意	3一般	4比较反对	5非常反对	6不知道
1)通过农业也可以致富						
2)城里人比较尊重农民						
3)农民更有社会公德						
4)农民的社会地位高						
5)农民比城里人淳朴善良						
6)农民不会算计，在市场经济体制下要想成功很难						
7)农民缺少经济知识，生产活动听干部说了算						
11)农村的学校教育是以农村的现实为基础的						
12)在农村，赡养老人的责任不在国家和集体，而在于家庭						
13)村里有生活困难的人，村里应该帮助，不应该靠国家						

26. 请您谈谈对“离土不离乡”政策的看法。请在同意的地方画☑□

	1非常同意	2比较同意	3一般	4比较反对	5非常反对	6不知道
1) 农民在农村的机会更多						
2) 乡镇企业保障了农民致富						
3) 农民有发展农村社会经济的任务						
4) 农民应该把精力放在农业上，而不是工商业上						

[3] 农村的制度和政策（27-55）

27. 您家的承包地是否上交给村里了？（_____）

1. 全部上交给村里了 2. 大多数上交，只留了一点种菜的地
3. 大多数仍然留在家里，自己耕种 4. 全部自己耕种 5. 给儿子种了 97 其他

28. 您是哪年将您家的承包地上交给村里的？_____（不管上交多少，只要开始上交，就填答开始上交的那一年，但不算因为人口死亡或女儿出嫁所引起的变更）

29. 您为什么要上交自己承包的土地？

1. 耕地太少，种地没有收益 2. 种地不如去村办企业打工 3. 自己办了家庭企业
4. 种地不如到城里去打工 5. 其他
30. 您通常每月去石家庄市里的次数为？
1. 不足1次 2. 2-3次 3. 4-5次 4. 6-10次 5. 10次以上
33. 在人民公社时期，您认为以下哪些人得到的好处多？
1. 农民 2. 工人 3. 干部 5. 不清楚
35. 在您看来，改革开放以来，村里居民之间的关系跟改革前相比有什么变化？
1. 现在好 2. 现在与改革开放以前没有区别 3. 改革开放以前好 4. 不知道
36. 自改革开放以来，村里人和村干部之间的关系与改革前相比有什么变化？
1. 现在好 2. 现在与改革开放以前没有区别 3. 改革开放以前好 4. 不知道
38. 改革开放以来，农民和城市工人生活水平的差距跟改革前相比有什么变化？
1. 差距有很大减少 2. 差距减少了一点 3. 没什么变化
4. 差距有所增加 5. 差距有大幅增长 6. 不清楚
40. 农村个体企业，私营企业或其他乡镇企业发展以来，农民和城市工人的生活水平差距跟改革前相比有什么变化？
1. 差距有很大减少 2. 差距减少了一点 3. 没什么变化
4. 差距有所增加 5. 差距有大幅增长 6. 不清楚
41. 在您看来，城市工人对农民生活水平的相对提高抱着什么样的看法？
1. 认为理所当然 2. 认为不妥，但是没有办法 3. 认为不妥，觉得应该有变化
4. 不知道或不关心 5. 不太清楚
45. 您认为您做出经济活动决策会对谁有重要的影响？（标出您认为最重要的两项：第一选择____
第二选择_____）
1. 本人 2. 配偶 3. 子女 4. 父母 5. 兄弟姐妹
6. 邻居 7. 地方干部 8. 中央政府

[4] 国家政策 (50-61)

	生活水平得到了很大的提高	生活水平有所提高	没什么大变化	生活水平有所降低	生活水平有很大降低	不清楚	没有什么关系
48. 改革以后乡镇企业的发展对您的生活水平有何影响？							
49. 改革以后家里人到城里打工或工作对您的生活水平有何影响？							

53. 如果没有计划生育政策，您想要几个孩子 _____ 个
54. 您的孩子有独生子女证吗？
55. 您对独生子女享受的优惠满意吗？
1. 非常满意 2. 还算满意 3. 一般 4. 有些不满 5. 非常不满
56. 改革后农民的重男轻女思想有变化吗？
1. 加强了 2. 稍微加强了一些 3. 没什么变化 4. 有所减弱
5. 减弱许多 6. 不清楚

[5] 家庭经济状况 (62-71)

57. 您的生活水平和村里其他人相比怎么样？
1. 好很多 2. 稍微好一点 3. 一般 4. 稍微差一点
5. 比村里人差很多 6. 不清楚
58. 您的生活水平和城里人相比怎么样？
1. 好很多 2. 稍微好一点 3. 一般 4. 稍微差一点
5. 比村里人差很多 6. 不清楚
59. 现在您的生活水平和5年前相比怎么样？
1. 好了很多 2. 稍微好了一点 3. 没什么变化 4. 差了一点
5. 差了很多 6. 不清楚
60. 您认为5年后您的生活水平和现在相比会怎么样？
1. 会好很多 2. 会稍微好了一点 3. 不会有什么变化
4. 会差一点 5. 会差很多 6. 不清楚
61. 您认为5年后农民和城市工人的生活水平的差距会出现什么变化？
1. 差距会有很大减少 2. 差距会减少一点 3. 不会有什么变化
4. 差距会有所增加 5. 差距会有大幅增长 6. 一直会变 7. 不清楚
62. 您认为您未成年的子女成年时跟您的生活水平相比会怎么样？
1. 会好很多 2. 会稍微好一点 3. 不会有什么变化 4. 会差一点
5. 会差很多 6. 不清楚 7. 无未成年子女
63. 您认为您的成年子女现在的生活水平跟您年轻的时候相比怎么样？
1. 会好很多 2. 会稍微好一点 3. 不会有什么变化 4. 会差一点

5. 会差很多 6. 不清楚 7. 无未成年子女

64. 如果可以再活一次，您会选择什么工作？（选择两项）第一选择_____第二选择_____

1. 农民 2. 城市工人 3. 乡镇企业工人 4. 个体户
5. 私营企业家 6. 党，国家干部 7. 教师 8. 专业人士(医生，律师等)
9. 操持家务者 10. 其他（具体指的是 ）

65. 您希望您的儿子选择什么工作？

1. 农民 2. 城市工人 3. 乡镇企业工人 4. 个体户
5. 私营企业家 6. 党，国家干部 7. 教师 8. 专业人士(医生，律师等)
9. 操持家务者 10. 其他（具体指的是 ）

66. 您希望您的女儿选择什么工作？

1. 农民 2. 城市工人 3. 乡镇企业工人 4. 个体户
5. 私营企业家 6. 党，国家干部 7. 教师 8. 专业人士(医生，律师等)
9. 操持家务者 10. 其他（具体指的是 ）

[6] 收入，支出，劳动，职务等 (72-91)

67. 去年您家庭生产的粮食？（ ）斤

68. 其中国家收购了（ ）斤

69. 去年您全年的收入为？（ ）元

70. 去年您家庭的年收入为？（ ）元

71. 去年您家庭的年收入中下面各项是多少？

1. 农业收入（ ） 2. 农业收入中国家收购粮食给您的钱有多少（ ）
3. 农业收入中粮食生产所得（ ） 4. 在企业劳动收入（ ）元
5. 经营自己的企业收入（ ）元 6. 个体户收入（ ）元
7. 外地打工给家里寄回的钱（ ）元 8. 集体发的福利（ ）元
9. 计划生育补贴费（ ）元 10. 出租自己的土地收入（ ）元
11. 养殖业收入（ ）元 12. 其他收入（ ）元

72. 去年您家庭的全年支出了多少钱？（ ）元

73. 去年您家庭的全年支出中下面各项是多少？

1. 农业生产支出（ ）元 2. 私营企业营业支出（ ）元

3. 个体户经营支出 () 元 4. 一起居住的家属的衣食住费用 () 元
5. 一起居住的家属的教育费用 () 元 6. 对住在外地家属的经济资助 () 元
7. 对住在外地家属的经营自主 () 元 8. 对住在外地家属的教育资助 () 元
9. 上缴村集体 () 元 10. 上交土地税收 () 元
11. 购置家用等 () 元 12. 日常生活支出 () 元
13. 其他 () 元
74. 现在您家里的银行贷款或借其他人的钱总共大约有多少? () 元
75. 现在您家里在银行的存款总共大约有多少? () 元
76. 现在您承包的土地面积总共大约有多少? 一共 () 亩
77. 去年您家的粮食播种面积是? () 亩
78. 现在您使用的土地面积中一下各有几亩?
1. 自留地 () 亩 2. 口粮地 () 亩 3. 承包地 () 亩 4. 开荒地 () 亩
82. 您现在耕种的土地的使用年限为?
1. 自留地 () 年 2. 口粮地 () 年 3. 承包地 () 年 4. 开荒地 () 年
83. 您家庭能够劳动的人中, 男性劳动力有 () 人; 女性劳动力有 () 人
84. 您现在的职业是? ()
1. 粮食种植 2. 农业雇工或临杂工 3. 在你们镇里的某些企业做工人
4. 个体户 5. 私营企业家 6. 干部
7. 农村工匠 8. 专业人士(教师, 医生, 律师等) 9. 做家务活
10. 退休者 11. 农村养殖人员 12. 其他(具体指的是)
85. 您的大儿子(成年)从事的职业是? ()
1. 粮食种植 2. 农业雇工或临杂工 3. 在你们镇里的某些企业做工人
4. 个体户 5. 私营企业家 6. 干部
7. 农村工匠 8. 专业人士(教师, 医生, 律师等) 9. 做家务活
10. 退休者 11. 农村养殖人员 12. 其他(具体指的是)
86. 改革以前(1980)您从事的职业是? ()
1. 粮食种植 2. 农业雇工或临杂工 3. 在你们镇里的某些企业做工人
4. 个体户 5. 私营企业家 6. 干部
7. 农村工匠 8. 专业人士(教师, 医生, 律师等) 9. 做家务活
10. 退休者 11. 农村养殖人员 12. 其他(具体指的是)

87. 您的政治面貌 ()

1. 共产党员 2. 共青团员 3. 民主党派 4. 一般群众

88. 改革开放以前您家里的阶级成分是？

1. 贫农 2. 下中农 3. 中农 4. 上中农 5. 小土地租凭 6. 富农
7. 地主 8. 其他 (具体指的是)

90. 您家里收入的主要来源是 ()

1. 从事农业的收入 2. 从事非农业的收入 3. 从事其他工作收入

90-1. 您居住的房屋的结构是：

现在您居住的房屋 ()	1980年您居住的房屋 ()	1990年您居住的房屋 ()
1) 钢筋混凝土楼房	1) 钢筋混凝土楼房	1) 钢筋混凝土楼房
2) 钢筋混凝土平房	2) 钢筋混凝土平房	2) 钢筋混凝土平房
3) 砖混楼房	3) 砖混楼房	3) 砖混楼房
4) 砖石平方	4) 砖石平方	4) 砖石平方
5) 土砖房	5) 土砖房	5) 土砖房
6) 土木平房及土木楼房	6) 土木平房及土木楼房	6) 土木平房及土木楼房
7) 茅草房	7) 茅草房	7) 茅草房
8) 其他_____	8) 其他_____	8) 其他_____

91. 您的父母亲的状况是 (被访问对象如果是女性, 则访问其娘家自己亲生父母亲的情况)

A. 如果父母亲都在世, 那么	B. 如果父母亲中有一人在世	C. 如果父母亲中有人去世 (全部去世则选最近去世者填写)
A1 他们需要不需要供养? 1 需要供养 2 不需要供养	B1 他(她)需不需要供养? 1 需要供养 2 不需要供养	C1 去世前需要供养吗? 1 需要供养 2 不需要供养
A2 您父母亲的居住安排是? 1 父母亲自己居住 2 与一个已婚子女同住 3 在自己的几个子女之间轮流居住 4 父亲与一个子女住, 母亲与另外的子女住 5 其他	B2 他(她)的居住安排是? 1 父母亲自己居住 2 与一个已婚子女同住 3 在自己的几个子女之间轮流居住 4 父亲与一个子女住, 母亲与另外的子女住 5 其他	C2 去世前的居住安排是? 1 父母亲自己居住 2 与一个已婚子女同住 3 在自己的几个子女之间轮流居住 4 父亲与一个子女住, 母亲与另外的子女住 5 其他
A3 父母亲生活费的来源是 1 完全靠自己(退休金或村集体发的钱等) 2 父母有收入, 在所有子女中谁好谁给钱	B3 他(她)生活费的来源是 1 完全靠自己(退休金或村集体发的钱等) 2 父母有收入, 在所有子女中谁好谁给钱	C3 去世前生活费的来源是 1 完全靠自己(退休金或村集体发的钱等) 2 父母有收入, 在所有子女中谁好谁给钱

<p>3 父母无收入, 所有子女共同平摊</p> <p>4 父母无收入, 只在男性子女间共同平摊</p> <p>5 父母有收入, 儿子给钱</p> <p>6 其他</p>	<p>3 父母无收入, 所有子女共同平摊</p> <p>4 父母无收入, 只在男性子女间共同平摊</p> <p>5 父母有收入, 儿子给钱</p> <p>6 其他</p>	<p>3 父母无收入, 所有子女共同平摊</p> <p>4 父母无收入, 只在男性子女间共同平摊</p> <p>5 父母有收入, 儿子给钱</p> <p>6 其他</p>
<p>A4 如果父母亲需要伺候, 通常谁来伺候</p> <p>1 父亲需要母亲伺候, 母亲需要父亲伺候</p> <p>2 与谁一起住, 谁伺候(妻子伺候)</p> <p>3 与谁一起住, 谁伺候(儿子伺候)</p> <p>4 子女们谁有时间谁伺候</p> <p>5 子女们固定轮流伺候</p> <p>6 其他</p>	<p>B4 如果他(她)生病需要伺候,通常谁来伺候</p> <p>1 父亲需要母亲伺候, 母亲需要父亲伺候</p> <p>2 与谁一起住, 谁伺候(妻子伺候)</p> <p>3 与谁一起住, 谁伺候(儿子伺候)</p> <p>4 子女们谁有时间谁伺候</p> <p>5 子女们固定轮流伺候</p> <p>6 其他</p>	<p>C4 去世前如果需要伺候,通常谁来伺候</p> <p>1 父亲需要母亲伺候, 母亲需要父亲伺候</p> <p>2 与谁一起住, 谁伺候(妻子伺候)</p> <p>3 与谁一起住, 谁伺候(儿子伺候)</p> <p>4 子女们谁有时间谁伺候</p> <p>5 子女们固定轮流伺候</p> <p>6 其他</p>
<p>A1() A2 () A3() A4()</p>	<p>B1() B2() B3() B4()</p>	<p>C1() C2() C3() C4()</p>

< 참고문헌 >

- 강해순. 1995. “중국녀성과 한민족녀성의 혼인·가족생활 비교.”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한민족 여성·가족생활의 회고와 전망」, pp.45-61. 1995/10/16, 여성개발원.
- 고승효. 1993. 『북한 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 김광익. 1996. “현대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 家와 宗族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5(1):85-116.
- 김민영. 1993. “현 중국의 농촌문제: 개혁개방의 부작용.” 『월간 북방동향』, 22(1993.8):20-26.
- 김용학. 1992. 『사회 구조와 행위 --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 서울: 나남.
- 김윤환. 1989. “경제체제개혁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중국의 여성연구』, pp.49-90.
- 김재윤, 장경섭 편. 1996.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로젠버그, 하니. 1991. 최광렬 역, 『소련여성과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한울.
- 린이푸 외. 1996. 한동훈 역, 중국의 기적: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서울: 백산서당.
- 모택동(毛澤東). 1992. 『모택동선집』, 제1권. 북경: 민족출판사.
- 모택동(毛澤東). 1992. 『모택동선집』, 4권. 북경: 민족출판사.
- 모택동(毛澤東). 1992. 『모택동선집』, 제4권. 북경: 민족출판사.
- 문순철. 1997. “중국의 농촌개혁과 小城鎮: 浙江省 溫州市 龍港鎮의 사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길성. 1993. “중국의 개혁: 논리, 동학, 그리고 사회적 비용.” 『사회비평』, 9:93-120.
- 박정동. 1996. 21세기 중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방찬영. 1995. 『지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박영사.
- 백승욱. 1997. “중국의 ‘單位’ 체제와 국가의 노동력 관리방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서석홍 편역. 1990.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상품경제론. 서울: 풀빛.
- 서석홍. 1994. “1978년 이후의 중국 私營經濟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서석홍. 1995. “중국 鄉村企業의 운영실태와 성장의 특징에 관한 연구.” 『중국문제연구』, 8집, pp.3-36.
- 송두울. 1995.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 시철웅(施哲雄). 1991. “현 중국농촌상황에서 본 盲流 문제.” 『동아연구』 23:165-95.
- 이근. 1994. 중국경제구조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보근. 1994. 『중국 鄉鎮企業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 이일영. 1994. “1980년대 중국의 농업개혁: 농업생산성 및 농공간 관계의 분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일영. 1997.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택중. 1995. “북한농업에 대한 중국 농업개혁의 시사점.” 장원석 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pp.367-80. 서울: 한올아카데미.
- 장경섭. 1999.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 갈등: 중국의 시장사회주의적 사회질서.” *현대중국연구*, 1집, pp.19-43.
- 장경섭:조홍식. 1996. “중국 도시 기업개혁의 사회정책적 성격: 고용 및 노동복지 변화와 북한에 대한 함의.” *비교연구*, 1호, pp.166-199.
- 장원석 외. 1995.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서울: 한올아카데미.
- 장의(張毅). 1992. “중국 鄉鎮企業 발전사.” *극동문제* 1992년 3호, pp.41-51.
- 전성홍. 1994. “중국의 농촌공업화와 鄉鎮社會의 변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재호. 1999.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나남출판.
- 최상문. 1994. “중국의 鄉鎮企業 회계제도.” 1994년도 지역연구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최흥기. 1991. “유교와 가족.” 『가족학논집』 3집, pp.207-27.
- 한겨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북한의 농업개황』.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일보.
- 한남운. 19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유(匡國逾). 1991. “중국 농촌에 있어서 제2단계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중소연구』, 15권 3호, pp.171-93.
- 辜勝阻. 1991. *非農化與城鎮化研究*.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辜勝阻. 1993. *非農化及城鎮化理論與老實踐*.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辜勝阻, 王冰. 1989. *老年人健康和社會生活的國際比較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郭凡生, 王偉. 1988. *貧困與發展*.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廣州市社會科學院 編. 1994. *改革與發展: 廣州市建立和完善社會保障體系 國際研討會*. 廣州: 開放時代雜誌社
-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編. 1988. *中國經濟體制改革十年*.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編. 1995. *社會保障體制改革*. 北京: 改革出版社
- 國家計劃生育委員會. 1986. “中國計劃生育工作的三十五年.” 中國社會科學院人口研究中心 編, *中國人口年鑑* 1985, pp.921-26.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國家計劃生育委員會辦公廳 編. 1995. *中國計劃生育工作綱要, 1995-2000年*. 北京: 中國人口出版社.
- 南路明, 肖志岳. 1991. *中華人民共和國地產法律制度*.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 農業部. 1996. “鄉鎮企業東西合作示範工程方案.” *中國鄉鎮企業年鑑 1996*, p.79.
- 農業部鄉鎮企業局 編. 1995. *中國鄉鎮企業股分(?)合作制教材*.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鄧小平. 1983. *鄧小平文選, 1974-1982*. 北京: 人民出版社.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 III*. 北京: 人民出版社.
- 劉炳瑛 編. 1993. *社會主義市場經濟運行*.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潘允康, 張文宏. 1995. *經濟改革的社會觀*.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社會藍皮書: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1994-1998.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徐經澤, 楊善民. 1994. *現代化: 鄉村的選擇*.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 徐經澤, 李紹光. 1993. *東營村: 走向現代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 舒子唐. 1989. *農村金融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岳燊(?) 主編. 1988. *中國農業經濟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王銘銘. 1997. “村落視野中心的家族, 國家 與社會.” 王銘銘, 王斯福 主編, *鄉土社會的秩序, 公正與權威*, pp.20-127. 北京: 中國法政大學出版社.
- 王天仁 編. 1991 *站起來的農民: 西關人, 西關路, 西關史*.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 王訓禮. 1991. “當前農民階級新特點的調查與淺析.” *社會學研究* 31:93-99.
- 越石寶, 楊敏. 1994. *中國市場經濟體制論*. 北京: 人民出版社.
- 庾德昌 主編. 1992. *農家經濟行為及勞動時間利用調查資料集*.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劉應杰. 1997. “中國城鄉關係的變化和出路.” 陸學藝, 李培林 主編, *中國新時機社會發展報告*, pp.163-94.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 陸學藝, 李培林 主編. 1997. *中國新時機社會發展報告*.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 李強. 1993. *當代中國社會分層與流動*.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 李明坤. 1993. 『中國社會分層』. 香港: 商務印書館.
- 李明堃(?), 李江濤 編. 1993. *中國社會分層 -- 改革中的巨變*. 香港: 商務印書館.
- 李培林. 1997. “中國改革中期的制度創新與利益調整.” 陸學藝, 李培林 主編, *中國新時機社會發展報告*, pp.1-50.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 李實, 趙人偉, 張平. 1998. “中國經濟轉型與收入分配變動.” *經濟研究* 1998/4:42-51.
- 李合龍. 1988. *中國女性未來發展大趨勢*. 長春: 北方婦女兒童出版社.
- 人民日報*.
- 張留征, 杜志雄, 李福萊. 1992. *中國農村經濟的未來格局*. 北京: 中信出版社.
- 折曉葉. 1997. *村庄的再造: 一个“超級村庄”的社會變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丁國光. 1993. *鄉鎮企業論*.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調文林. 1994. *中國: 在21世紀的演變*.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 趙人偉, 基斯, 格理芬 主編. 1994. *中國居民收入分配研究*. 京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國婦女*.
- 中國婦女報*.
- 中國青年*.
- 陳錦華 主編. 1995. *1995年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報告*. 北京: 中國計劃出版社.
- 紅旗*.

- Akerlof, George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488-500.
- Akerlof, George, and W. T. Dickens. 1982.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gnitive Disson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2:307-319.
- Alexander, J., G. Giesen, R. Munch, and N. Smelser. eds. 1987.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lexander, Jeffrey. 1987. “Action and Its Environments.” J. Alexander, G. Giesen, R. Mu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153-17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lthaus, Robert P., and Michael Wigler. 1972. "Standardization and Component Analysi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97-135.
- Amsden, Alice H. 1979. "Taiwan's Economic History: A Case of Etatism and a Challenge to Dependency Theory." *Modern China* 5:341-80.
- Ash, Robert F. 1992. "The Agricultural Sector in China: Performance and Policy Dilemmas during the 1990s." *China Quarterly* 131:545-76.
- Aslanbeigui, Nahid, and Gale Summerfield. 1989. "Impact of the Responsibility System on Women in Rural China: An Application of Sen's Theory of Entitlements." *World Development*, vol.17, no.3, pp.343-50.
- Baran, Paul. 1957.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Monthly Review.
- Barrett, Richard, et al. 1991.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Urban and Rural China." *Rural Sociology*, vol.56, no.1, pp.1-21.
- Barrett, Richard. 1992. "Effects of China's New Economic Policy on Income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Colloquium presentation in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Bates, Robert, ed. 1988.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tes, Robert. 1981. Markets and States in Tropical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ijing Review*.
Beijing: New World Press.
Berkeley: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ernstein, Thomas P. 1967. "Leadership and Mass Mobilization in the Soviet and Chinese Collectivization Campaigns of 1929-30 and 1955-56: A Comparison." *China Quarterly* 31:1-47.
- Bettelheim, Chales. 1988. "Economic Reform in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4:15-49.
- Bettelheim, Charles. 1978. "The Great Leap Backward." Burton, Neil G., and Charles Bettelheim, eds., *China Since Mao*, pp.37-130.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ianco, Lucien, and Hua Chang-ming. 1988. "Implementation and Resistance: The Single-Child Family Policy." Feuchtwang, Stephan, Athar Hussain, and Thierry Pairault, eds.,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I: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pp.147-68. London: Zed Books.
- Blecher, Marc. 1985a. "Balance and Cleavage in Urban-Rural Relations." Parish, William,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219-45. Armonk: M.E. Sharpe.
- Blecher, Marc. 1985b. "The Structure and Contradictions of Productive Relations in Socialist Agrarian 'Reform':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the Chinese Case." Saith, Ashwani, ed., *The Agrarian Question in Socialist Transitions*, pp.104-26. London: Frank Cass.
- Buck, John Lossing. 1930. *Chinese Farm Economy: A Study of 2866 Farms in Seventeen*

- Localities and Seven Provinces i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tler, Steven. 1983. "Field Research in China's Communes: Views of a 'Guest'." Thurston, Anne F., and Burton Pasternak, eds., *The Social Sciences and Fieldwork in China: Views from the Field*, pp.99-121. Boulder: Westview.
- Butler, Steven. 1985. "Price Scissors and Commune Administration in Post-Mao China." Parish, William,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95-114. Armonk: M.E. Sharpe.
- Byrd, William A., and Lin Qingsong, eds. 1990. *China's Rural Industry: Structure, Development, and Refo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ldwell, John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London: Academic Press.
- Chan, Anita, Richard Madsen, and Jonathan Unger. 1984. *Chen Village: The Recent History of A Peasant Community in Mao's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n, Kam Wing, and Xueqiang Xu. 1985. "Urban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China Since 1949: Reconstructing a Baseline." *China Quarterly* 104:583-613.
- Chang Kyung-Sup, and Eui-Hang Shin. 1989. "Intra- and Intersectoral Processes of Wage Growth: An Examination of Wage Growth Dynamics and Contexts." *Social Science Quarterly* 70:323-40.
- Chang Kyung-Sup. 1990. "Socialist Institutions and Family Wealth Flows Reversal: An Assessment of Post-Revolutionary Chinese Rural Fertility." *Journal of Family History* 15:179-200.
- Chang Kyung-Sup. 1991. "Economic Development with Limited Supplies of Family Labor: Chinese Peasant Families in Balancing Demographic and Economic Requisit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47-76.
- Chang Kyung-Sup. 1992. "China's Rural Reform: The State and Peasantry in Constructing a Macro-Rationality." *Economy and Society* 21:430-52.
- Chang Kyung-Sup. 1993a. "The Peasant Family in the Transition from Maoist to Lewisian Rural Industrialis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9:220-44.
- Chang Kyung-Sup. 1993b. "The Confucian Family Instead of the Welfare State?: Reform and Peasant Welfare in Post-Mao China." *Asian Perspective* 17:169-200.
- Chang Kyung-Sup. 1994a. "China's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 Reform: A Comparative Reappraisal." *World Development* 22:601-13.
- Chang Kyung-Sup. 1994b. "The Socio-Political Processe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sation in a North China Commune." *China Report* 30:395-406.
- Chang Kyung-Sup. 1995a. "Rationality and Socialist Collective Farming: A Theoretical Reappraisal of the Chinese Experience." *Rationality and Society* 7:338-57.
- Chang, Kyung-Sup. 1995b. "Gender and Abortive Capitalist Social Transformation: Semi-Proletarianization of South Korea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36, no.1-2, pp.61-81.
- Chang Kyung-Sup. 1996. "Birth and Wealth in Peasant China: Surplus Population, Limited Supplies of Family Labor, and Economic Reform." Goldstein, Alice, and Wang

- Feng, eds., *China: The Many Facets of Demographic Change*, pp.21-45. Boulder: Westview.
- Chang Kyung-Sup. 1997.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Economy and Society* 26:22-42.
- Chang Kyung-Sup. 1998. "Behind the Scenes: Rural Social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Compressed Capitalist Development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Pacific and Asian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CKS) Meeting, May 1998, Vancouver, Canada.
- Chang Kyung-Sup. 1999. "Politics of Partial Marketization: State and Class Relations in Post-Mao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forthcoming).
- Chang, Sen-Dou. 1981. "Modernization and China's Urban Develop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1:202-19.
- Chang, Sen-Dou. 1996. "The Floating Population: An Informal Process of Urbaniz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2:197-214
- Chao, Kang. 1970. *Agricultural Production in Communist China, 1949-1965*.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hao, Paul. 1967. "The Marxist Doctrine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Chinese Family in Communist Chin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2:161-173.
- Chayanov, Alexander Vasil'evich. [1925] 1986. *Theory of the Peasant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hen, Chunlai, et al. 1994. "Rural Enterprise Growth in a Partially Reformed Chinese Economy." in Findlay, Christopher, Andrew Watson, and Harry X. Wu, eds., *Rural Enterprises in China*, pp.4-23.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eng, Chu-yuan. 1982. *China's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Boulder: Westview.
- China Daily*.
- China Financial & Economic Publishing House (CFEPH). 1988. *New China's Population*. New York: Macmillan.
- Chow, Nelson W. S. 1988.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Social Security in China." *Center of Asian Studies Occasional Papers and Monographs*, no.74. Hong Kong: Centr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ng Kong.
- Cohen, Myron. 1976. *House United, House Divided: The Chinese Family in Taiw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hen, Myron. 1992. "Family Management and Family Division in Contemporary Rural China." *China Quarterly* 130:357-77.
- Coleman, James. 1987. "Microfoundations and Macrosocial Behavior." J. Alexander, G. Giesen, R. Mu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153-17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Randall. 1981. "On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984-1014.
- Collins, Randall. 1992. "The Romanticism of Agency/Structure versus the Analysis of

- Micro/Macro.” *Current Sociology* 40:77-98.
- Cook, Karen S., and Margaret Levi, eds. 1990. *The Limits of Rationali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ook, Thomas, and Donald Campbell. 1979. *Quasi-Experimentation: Design and Analysis Issues for Field Setting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Croll, Elisabeth, Delia Davin, and Penny Kane, eds. 1985. *China's One-Child Family Policy*, New York: St. Martin's.
- Croll, Elisabeth. 1982. *The Family Rice Bowl: Food and the Domestic Economy in China*.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Croll, Elisabeth. 1985. *Women and Rural Development in China: Production and Reproductio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Croll, Elisabeth. 1987. “New Peasant Family Forms in Rural China.” *Journal of Peasant Studies* 14:469-99.
- Croll, Elisabeth. 1988. “The New Peasant Economy in China.” Feuchtwang, Stephan, Athar Hussain, and Thierry Pairault, eds.,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I: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pp.77-100. London: Zed Books.
- Daily Report-China* (by Foreign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Service; FBIS)
- Davin, Delia. 1985. “The Single-child Family Policy in the Countryside.” Croll, Elisabeth, Delia Davin, and Penny Kane, eds., *China's One-Child Family Policy*, pp.37-82. New York: St. Martin's.
- Davis, Deborah. 1989. “Chines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Outcomes.” *China Quarterly* 119:577-97.
- Davis-Friedmann, Deborah. 1983. *Long Lives: Chinese Elderly and the Communist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s-Friedmann, Deborah. 1985. “Old Age Security and the One-child Campaign.” Croll, Elisabeth, Delia Davin, and Penny Kane, eds., *China's One-Child Family Policy*, pp.149-61 in *China's One-Child Family Policy*. New York: St. Martin's.
- de Janvry, Alain. 1981. *The Agrarian Question and Reformism in Lat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ng Xiaoping (Teng Hsiao-ping). 1987. *Fundamental Issues in Present-Day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Deng Xiaoping. 1984.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Deng Xiaoping. 1987. *Fundamental Issues in Present-Day China*.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 Deyo, Frederic C. 1989. “Economic Sheltering and Working Class Formation in the East Asian NICs.” Paper presented at the 1989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ugust 1989, San Francisco, U.S.A.
- Dixon, John. 1981. *The Chinese Welfare System, 1949-1979*. New York: Praeger.
- Djilas, Milovan. 1957.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New York:

- Praeger.
- Donzelot, Jacques. [1977]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New York: Pantheon Books.
- DuRand, Cliff. 1990. "The Exhaustion of Developmental Socialism: Lessons from China." *Monthly Review* 42(7):8-19.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 Elster, Jon. 1990. "When Rationality Fails." Karen S. Cook and Margaret Levi, eds., *The Limits of Rationality*, pp.19-46.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Engels, Frederick. [1884]1942. *The Origin of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Researches of Lewis H. Morga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Entwisle, Barbara, et al. 1995. "Gender and Family Businesses in Rural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0, pp.36-57.
-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95. *The Far East and Australia 1995*, 26th ed.
-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eney, Griffith, and Yuan Jianhua. 1994. "Below Replacement Fertility in China? A Close Look at Recent Evidence." *Population Studies* 48:381-94.
- Fei Xiaotong (Fei Hsiao-Tung), et al. 1986. *Small Towns in China: Functions, Problems & Prospects*. Beijing: New World Press.
- Fei Xiaotong (Fei Hsiao-Tung). 1939. *Peasant Life in China: A Field Study of Country Life in the Yangtze Vall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ei Xiaotong (Fei Hsiao-Tung). 1989. *Rural Development in China: Prospect and Retrospec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ei, John C. H., Kazushi Ohkawa, and Gustav Ranis. 1985. "Economic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Japan, Korea, and Taiwan." Ohkawa, Kazushi, et al., eds., *Japan and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p.35-64. New York: Basil Blackwell.
- Fewsmith, Joseph. 1994. *Dilemmas of Reform in China: Political Conflict and Economic Debate*. Armonk: M.E.Sharpe
- Fielding, Nigel G., and Jane L. Fielding. 1986. *Linking Data*.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Findlay, Christopher, Andrew Watson, and Harry X. Wu, eds. 1994. *Rural Enterprises in China*. New York: St. Martin's.
- Francis, Corinna-Barbara. 1996. "Reproduction of *Danwei* Institutional Features in the Context of China's Market Economy: The Case of Haidian District's High-Tech Sector." *China Quarterly* 147:839-59.
- Friedmann, Harriet. 1978. "World Market, State, and Family Farm: Social Bases of Household Production in the Era of Wage Labo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545-586.
- Gao Ling. 1996. "Sex Ratio at Birth in China: Features and Influences." *Social Sciences in China* 1996/3:71-77.

- Gao Shangquan, and Chi Fulin, eds. 1995. Theory and Reality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Geertz, Clifford.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eertz, Clifford. 1983.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 Georgescu-Roegen, Nicholas. 1960.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12:1-40.
- Giddens, Anthony.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London: Macmillan.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 Giddens, Anthony. 1987.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Alice, Sidney Goldstein, and Gu Shengzu. 1991. "Rural Industrialization and Migr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cial Science History* 15:289-314.
- Goldstein, Alice, and Sidney Goldstein. 1988. "Varieties of Population Mobility in Relation to Development in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2:101-24.
- Goldstein, Alice, and Wang Feng, eds. 1996. China: The Many Facets of Demographic Change. Boulder: Westview.
- Goldstein, Sidney, and Alice Goldstein. 1991. "Permanent and Temporary Migration Differentials in China."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Paper*, no.117.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Goldstein, Sidney. 1985. "Urbanization in China: New Insights from the 1982 Census."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Paper*, no 93.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Goldstein, Sidney. 1990. "Urbanization in China, 1982-87: Effects of Migration and Re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673-701.
- Gorvachev, Mikhail. 1987.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 Greenhalgh, Susan. 1988. "Fertility as Mobility: Sinic Transitions." *Center for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no.141.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Greenhalgh, Susan. 1990. "The Peasantization of Population Policy in Shaanxi: Cadre Mediation of the State-Society Conflict." *Research Division Working Papers*, no.21.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Gu Shengzu. 1995. "Ideas and Polici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Surplus Rural Labor in China." Social Sciences in China 16(4):20-28.
- Gu, Baochang, and Yongping Li. 1994. "Sex Ratio at Birth and Son Preference in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UNFPA Symposium on "Issues Related to Sex Preference

- for Children in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Dynamics in Asia” , Seoul, November 1994.
- Gugler, Josef. 1982. “Overurbanization Reconsidered.”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1:173-89.
- Gurley, John W. 1976. *China's Economy and the Maoist Strateg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Habermas, Jurgen. 1985, 1986.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s I, II. Cambridge: Polity Press.
- Hardee-Cleaveland, Karen, and Judith Banister. 1988. “Fertility Policy and Implementation in China, 1986-1988.”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245-287.
- Hareven, Tamara K. 1987. “Reflections on Family Research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cial Research* 54:663-689.
- Held, David, et al., eds. 1983. States and Socie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enderson, Gail. 1990. “Increased Inequality in Health Care.” Davis, Deborah, and Ezra F. Vogel, eds., *Chinese Society on the Eve of Tiananmen: The Impact of Reform*, pp.263-82.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Hinton, William. 1990. *The Great Reversal: The Privatization of China, 1978-1989*.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Hirschman, Albert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libert, Richard. 1990. “Ethnomethodology and the Micro-Macro Or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794-808.
- Honig, Emily, and Gail Hershatter. 1988. *Personal Voices: Chinese Women in the 1980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selitz, Burt F. 1995. “Generative and Parasitic Cit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278-94.
- Hou Wenruo. 1981. “Population Policy,” in Liu Zheng et al., eds.,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pp.55-76, Beijing: New World Press.
- Howard, Pat. 1988. *Breaking The Iron Rice Bowl: Prospects for Socialism in China's Countryside*. Armonk: M.E.Sharpe.
- Hsiung, Bingyuan, and Louis Putterman. 1989. “Pre- and Post-Reform Income Distribution in a Chinese Commune: The Case of Dahe Commune in Hebei Provi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pp.406-45.
- Hu Naiwu, and Wei Wei. 1996. “Dispar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Macro-Economic Management in China.” *Social Sciences in China* 1996/4:36-43.
- Huang, Philip C. C. 1990. *The Peasant Family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Yangzi Delta, 1350-1988*.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ber, Joan. ed. 1991. Macro-Micro Linkages in Sociology. Newbury Park: Sage.
- Humphries, Jane. 1977. “Class Struggle and the Persistence of the Working-Class Famil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 no.3, pp.241-58.

- Hussain, Athar, and Stephan Feuchtwang. 1988. "The People's Livelihood and the Incidence of Poverty." Feuchtwang, Stephan, Athar Hussain, and Thierry Pairault, eds.,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Volume I: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pp.36-76. London: Zed Books.
- Inkeles, Alex, and David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199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 Jacka, Tamara. 1997. *Women's Work in Rural China: Change and Continuity in an Era of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Kay Ann. 1983. *Women, the Family and Peasant Revolution i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udd, Ellen R. 1990. "'Men Are More Able': Rural Chinese Women's Conceptions of Gender and Agency." *Pacific Affairs* 63:40-61.
- Judd, Ellen R. 1994. *Gender and Power in Rural North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hn, Azizur, et al. 1992. "Household Income and Its Distribution in China." *China Quarterly* 132:1029-61.
- Kahn, Azizur, et al. 1993.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in Post-Reform China." China Economic Review 4(1):19-35.
- Kallgren, Joyce K. 1985. "Politics, Welfare, and Change: The Single-Child Family in China." Perry, Elizabeth J.,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131-56.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Kang Jiusheng. 1989. "The Part-Work and Part-Farm Population and the Shift of the Agricultural Labor Force." *Chinese Sociology and Anthropology* 21(2):58-68.
- Kim, Si Joong. 1990. "Productivity Impact of Decollectivization in Rural China." Ph.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Brown University.
- Kirkby, Richard J. R. 1985. *Urbanization in China: Town and Country in a Developing Economy, 1949-2000 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eh, Y. Y. 1985. "The Economics of the "Second Land Reform" in China." *China Quarterly* 101:122-31
- Kueh, Y. Y. 1989. "The Maoist Legacy and China's New Industrialization Strategy." *China Quarterly* 119:420-44.
- Kung, James Kai-sing, and Shouying Liu. 1997. "Farmers' Preferences Regarding Ownership and Land Tenure in Post-Mao China: Unexpected Evidence from Eight Counties." *China Journal* 38:32-61.
- Kuznets, Paul W. 1988. "An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6(supplement):11-43.

- Kwok, R. Yin-Wang. 1982. "The Role of Small Cities in Chinese Urba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6:549-65.
- Lardy, Nicholas R. 1983. *Agriculture in China's Modern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dy, Nicholas R. 1985. "State Intervention and Peasant Opportunities." Parish, William L.,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33-56. Armonk: M.E.Sharpe.
- Lardy, Nicholas R. 1987. "Recasting of the Economic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Decade of Reform Under Deng Xiaoping", October 1987, Brown University.
- Laslett, Barbara, & Brenner, Johanna. 1989.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Historica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381-404.
- Latham, Richard. 1985. "The Implications of Rural Reforms for Grass-Roots Cadres." Pp.157-73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edited by Elizabeth Perry and Christine Wo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Hong Yung. 1978. *The Polit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Hong Yung. 1991.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Keun. 1992. *Chinese Firms and the State in Transition: Property Rights and Agency Problems in the Reform Era*. Armonk: M.E.Sharpe.
- Lee, Keun. 1995. "Can 'Legal Person Socialism' Save China's State Sector?"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ing Paper 95-1.
- Lee, Yok-Shiu F. "Small Towns and China's Urbanization Level." *China Quarterly* 120:771-86.
- Lenski, Gerhard. 1970. *Human Societies*. New York: McGraw-Hill.
- Lewis, W. Arthur.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139-91.
- Li Shi. 1998. "Labor Migr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Rural China." Paper presented at a special lecture at the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September 1998.
- Lin, Justin Yifu, Fang Cai, and Zhou Li. 1996. *The China Miracle: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Reform*.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 Lin, Justin Yifu. 1988. "The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 in China's Agricultural Refor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6(supplement):199-224.
- Lin, Nan, and Xie Wen. 1988. "Occupational Prestige in Urba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3, pp.793-832.
- Lipton, Michael. 1977. *Why Poor People Stay Poor: Urban Bias in World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iu Bohong. 1996. "The Employment of Chinese Women." *Social Sciences in China*

- 1996/4:85-92.
- Liu Suinian, and Wu Qungan, eds. 1986. *China's Socialist Economy: An Outline History, 1949-1984*. Beijing: Beijing Review.
- Liu Zheng et al., eds. 1981.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Beijing: New World Press.
- Liu Zheng. 1981. "Population Planning and Demographic Theory." Liu Zheng, et al., eds.,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pp.1-24. Beijing: New World Press.
- Loscocco, Karyn, and Xun Wang. 1992. "Gender Segregation in China."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76, no.3, pp.118-26.
- Lyons, Thomas P. 1991. "Interprovincial Disparities in China: Output and Consumption, 1952-1987."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9:471-506.
- Ma Rong. "County Town-*Jianzhi* Town Differentials and Migration to Towns in Chin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2:89-118.
- Madsen, Richard. 1984. *Morality and Power in a Chinese Vill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o Tse-tung (Mao Zedong). [1958] 1974. "Talks at Chengtu: Against Blind Faith in Learning." Stuart Schram, ed.,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Talks and Letters: 1956-1971*, pp.115-16. New York: Pantheon.
- Mao Tsetung. 1971. *Selected Readings from the Works of Mao Tsetung*.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 Mao Zedong (Mao Tse-Tung). 1965.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ume I*.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 Mao Zedong (Mao Tse-Tung). 1969.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Edited by Stuart R. Schram. New York: Praeger.
- Mao Zedong (Mao Tse-tung). 1965a.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ume I*.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Mao Zedong (Mao Tse-tung). 1965b.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umes IV*.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Mao Zedong (Mao Tse-tung). 1971. *Selected Readings from the Works of Mao Tsetung*.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Martin, Michael F. 1992. "Defining China's Rural Population." *China Quarterly* 130:392-401.
- Marx, Karl, & Engels, Frederick. [1945-46] 1970.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Marx, Karl, and Frederick Engels. 1978. *The Marx-Engels Reader*, 2nd ed. New York: W.W.Norton.
- Marx, Karl. [1850] 1987. "The Peasantry as a Class." In *Peasants and Peasant Societies*, 2nd ed. pp. 331-337. Edited by Teodor Shanin. New York: Basil Blackwell.
- Mayhew, Bruce. 1980. "Structuralism Versus Individualism: Part I, Shadowboxing in the Dark." *Social Forces* 59:335-75.
- Mayhew, Bruce. 1981. "Structuralism Versus Individualism: Part II, Ideological and Other Obfuscations." *Social Forces* 59:627-48.

- Meillassoux, C. 1981. Maidens, Meal and Money: Capitalism and the Domestic Commu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ng Xianfan, Li Haifu, and Wu Lijuan. 1996. "Protection of the Right of Rural Girls to Receive an Education." *Social Sciences in China* 1996/3:63-70.
- Meng Xianfan. 1994. "Chinese Rural Women in the Transfer of the Rural Labor Force." *Social Sciences in China* 1994/3:109-18.
- Meng Xianfan. 1996. "'Men in Nonagricultural Occupations and Women on the Land' and the Development of Women." *Social Sciences in China* 1996/1:78-82.
- Miliband, Ralph. 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Morgan, Stephen. 1988. "Rise in Rural Birth Rate Worries Planner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4 March 1988, pp.79-80.
- Munch, Richard, and Neil Smelser. 1987. "Relating the Micro and the Macro." J. Alexander, G. Giesen, R. Mu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356-38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urphey, Rhoads. 1976. "Chinese Urbanization under Mao." Berry, Brian, ed., *Urbaniz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pp.311-29. Beverly Hills: Sage.
- Myrdal, Gunnar.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Gerald Duckworth.
- Nee, Victor. 1985. "Peasant Household Individualism." Parish, William L.,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164-90. Armonk: M.E.Sharpe.
- Nolan, Peter, and Gordon White. 1984. "Urban Bias, Rural Bias, or State Bias?: Urban-Rural Relations in Post-Revolutionary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0:52-81.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and Their Consequences for Economic Performance." Karen S. Cook and Margaret Levi, eds., The Limits of Rationality, pp.383-401.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Oi, Jean C. 1986. "Peasant Households between Plan and Market: Cadre Control over Agricultural Inputs." *Modern China* 12:230-251.
- Oi, Jean C. 1989.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i, Jean C. 1990. "The Fate of the Collective after the Commune." Davis, Deborah, and Ezra F. Vogel, eds., *Chinese Society on the Eve of Tiananmen: The Impact of Reform*, pp.15-36.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Oi, Jean. 1986. "Commercializing China's Rural Cadres." Problems of Communism 35(5):1-15.
-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New York: Schocken Books.
- Parish, William L. 1979. "Chinese Women under Socialism." Paper presented at the Midwest Slavic Conference, Minneapolis, May 1979.
- Parish, William L., and Martin King Whyte. 1978. *Village and Family in Contemporary*

-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ng, Xizhe. 1987. "Demographic Consequences of the Great Leap Forward in China's Provi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639-670.
- Peng, Yusheng. 1998. "Agriculture, Rural Industries, and Peasant Income in China." *Development and Society* 27:1-31.
- Perkins, Dwight H., and Shahid Yusuf. 1984. *Rural Development in Chin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rry, Elizabeth, and Christine Wong. 1985.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Perry, Elizabeth,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1-27.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Popkin, Samuel L. 1988. "Public Choice and Peasant Organization." Bates, Robert, ed.,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pp.245-7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lejandro, Manuel Castells, and Lauren A. Benton, eds. 1989.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reston, Samuel, and Shigemi Kono. 1988. "Trends in Well-being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Japan." Palmer, John L., Timothy Smeeding, and Barbara Boyle Torrey, eds., *The Vulnerable*, pp.277-307.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Preston, Samuel. 1979. "Urban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 Demographic Re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195-215.
- Putterman, Louis. 1983. "A Modified Collective Agriculture in Rural Growth-with-Equity: Reconsidering the Private, Unimodal Solution." *World Development* 11:77-100.
- Putterman, Louis. 1985. "The Restoration of the Peasant Household as Farm Production Unit in China: Some Incentive Theoretic Analysis." Perry, Elizabeth J.,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63-82.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Putterman, Louis. 1992. "Dualism and Reform in Chin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0:467-94.
- Putterman, Louis. 1993. *Continuity and Change in China's Rural Development: Collective and Reform Eras i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utterman, Louis. 1995. "The Role of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ina Quarterly* 144:1047-64.
- Rai, Shirin M. 1994. "Gender Issues in China: A Survey." *China Report*, vol.30, no.4, pp.407-20.
- Rai, Shirin M., and Zhang Junzuo. 1994. "Competing and Learning: Women and the State in Contemporary Rural Mainland China." *Issues and Studies* 30(3):51-66.
- Riskin, Carl. 1987. *China's Political Economy: The Quest for Development since 1949*. New

-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 Richard. 1993. "Contradictions Between Micro- and Macro-Economic Goals in Post-Communist Societies." *Europe-Asia Studies* 45:419-44.
- Rosenbaum, Arthur L., ed. 1992. *State and Society in China: The Consequences of Reform*. Boulder: Westview.
- Rozelle, Scott. 1996. "Stagnation Without Equity: Patterns of Growth and Inequality in China's Rural Economy." *China Journal* 35:63-91.
- Rueschemeyer, Dietrich, and Peter B. Evans. 1985.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oward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Underlying Effective Intervention." Evans, Peter B.,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pp.44-7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eschemeyer, Dietrich. 1986. *Power and the Division of Labo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Rueschemeyer, Dietrich. 1990. "Different Methods -- Contradictory Results?: Research on Development and Democracy." *Working Papers on Comparative Development* 13, the Center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Brown University.
-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aith, Ashwani. 1984. "China's New Population Policies." Griffin, Keith, ed., *Institutional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hinese Country Side*, pp.176-209. London: Macmillan.
- Schurmann, Franz. 1971.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2n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elden, Mark. 1971. *The Ye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lden, Mark. 197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Documentary History of Revolutionary Chang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Selden, Mark. 1988.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Socialism*. Armonk: M.E.Sharpe.
- Sen, Amartya.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Shirk, Susan. 1985. "The Politics of Industrial Reform." Perry, Elizabeth J.,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195-222.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Sidel, Ruth, and Victor W. Sidel. 1982. *The Health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 Sidel, Victor W., and Ruth Sidel. 1973. *Serve the People: Observations on Medicin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 Sit, Victor. 1985. "Introduction: Urbanization and City Develop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t, Victor, ed., *Chinese Cities*, pp.1-6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merville, Jennifer. 1992. "The New Right and Family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 21(2):93-128.
- Sovani, N. V. 1964. "The Analysis of Over-Urban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2:322-30.
- Stacey, Judith. 1983. Patriarchy and Socialist Revolution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 Wenming, ed. 1982. *From Youth to Retirement*. Beijing: Beijing Review.
- Sweezy, Paul. 1975. "China: Contrasts with Capitalism." *Monthly Review* 27(3):1-11.
- Tan, R. C. 1986. "Small Towns in Chinese Urbanization." *Geographical Review* 76:265-75.
- Thaxton, Ralph A. 1983. *China Turned Rightside Up: Revolutionary Legitimacy in the Peasant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he Peasant-Worker Migration Project Group. 1996. "The Migration of Peasant-Workers into the Pearl River Delta Region." *Social Sciences in China* 1996/3:54-62.
- Tien, H. Yuan, and Lee, Che-Fu. 1988. "New Demographics and Old Designs: The Chinese Family amid Induced Population Transi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69:605-628.
- Tien, H. Yuan, with Zhang Tianlu, Ping yu, Li Jingneng, and Liang Zhongtang. 1992. "China's Demographic Dilemmas." *Population Bulletin*, vol.47, no.1.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Tien, H. Yuan. 1983. "China: Demographic Billionaire." *Population Bulletin*, vol.38, no.2.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Travers, S. Lee. 1985. "Getting Rich through Diligence: Peasant Income after the Reforms." Perry, Elizabeth J.,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111-30.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Trotsky, Leon. 1972. The Revolution Betrayed. New York: Pathfinder.
- Tsou, Tang, Marc Blecher, and Mitch Meisner. 1982. "National Agricultural Policy: The Dazhai Model and Local Change in the Post-Mao Era." Selden, Mark, and Victor Lippit, eds.,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 China*, pp.266-99. Armonk: M.E.Sharpe
- Unger, Jonathan. 1985. "Remuneration, Ideology, and Personal Interests in a Chinese Village, 1960-1980." Parish, William L.,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117-40. Armonk: M.E.Sharpe.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2. Human Development Report 199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oslensky, Michael. 1984. Nomenklatura: The Soviet Ruling Class. Garden City: Doubleday.
- Walder, Andrew G. 1987. "Wage Reform and the Web of Factory Interests." *China Quarterly* 109:22-41.
- Walder, Andrew. 1986.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lder, Andrew. 1987. "Wage Reform and the Web of Factory Interests." *China Quarterly* 109:22-41.

- Walder, Andrew. 1989. "Factory and Manager in an Era of Reform." *China Quarterly* 118:242-264.
- Walker, Kenneth R. 1989. "40 Years On: Provincial Contrasts in China's Rural Economic Development." *China Quarterly* 119:448-480.
- Wang Jinling. 1997. "Deagrualization and Changes in Rural Families: A Survey Conducted in Zhicun Township, Zhejiang Province." *Social Sciences in China* 1997/1:77-81.
- Wang, Jichuan. 1988. "Determinants of Fertility Increase in Sichuan, 1981-86."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481-488.
- Watson, Andrew, and Harry X. Wu. 1994. "Regional Disparities in Rural Enterprise Growth." in Findlay, Christopher, Andrew Watson, and Harry X. Wu, eds., *Rural Enterprises in China*, pp.69-92. New York: St. Martin's Press.
- Watson, Andrew. 1987. "The Family Farm, Land Use and Accumulation in Agricultur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17:1-28.
- Whyte, Martin King, and William L. Parish. 1984. *Urban Life in Contemporary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hyte, Martin King. 1973. "Bureaucracy and Modernization in China: The Maoist Critiqu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149-163.
- Willamson, Oliver.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Free Press.
- Wippler, Reinhard, and Siegwart Lindenber. 1987. "Collective Phenomena and Rational Choice." in J. Alexander, G. Giesen, R. Mu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135-15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 Margery. 1985. *Revolution Postponed: Women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ng, Christine. 1987. "Interpreting Rural Industrial Growth in the Post-Mao Period." *Modern China* 14:3-30.
- Wong, Christine. 1991. "The Maoist "Model" Reconsidered: Local Self-Reliance and the Financing of Rural Industrialization." Joseph, William, Christine Wong, and David Zweig, eds., *New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Revolution*, pp.183-96. Cambridge: Th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Harvard University.
- Wong, John. 1979. "Some Aspects of China's Agricultural Development Experienc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Wilber, Charles K., e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pp.241-57. New York: Random House.
- World Bank. 1983. *China,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Volume I: The Economy, Statistical System, and Basic Data*.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1984. *China: The Health Sector*.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1985. *China: Long-Term Development Issues and Op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 Xiao Ming. 1995. "Women Farmers Win Country's Respect." *Women of China*, April 1995, pp.14-15.

- Yan Wanyi, and Cao Dawei. 1995. "Traditional Culture Still Influences Chinese Women." *Women of China*, May 1995, pp.7-9.
- Yang, C. K. 1959. *The Chinese Communist Society: The Family and the Village*. Cambridge: The MIT Press.
- Yang, Dali. 1990. "Patterns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hina Quarterly* 122:230-257.
- Yang, Dali. 1991. "Reforms, Resources, and Regional Cleavages: The Political Economy of Cost-Interior Relations in Mainland China." *Issues and Studies* 27(9):43-69.
- Yu Xintian. 1993. "China's Modernization and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Paper presented at a special semina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3 October 1993.
- Yuan, Peng. 1994. "Capital Formation in Rural Enterprises." in Findlay, Christopher, Andrew Watson, and Harry X. Wu, eds., *Rural Enterprises in China*, pp.93-116. New York: St. Martin's Press.
- Zai Liang, and Michael J. White. 1996. "Internal Migration in China, 1950-1988." *Demography* 33:1-10.
- Zaretsky, Eli. 1973.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 Colophon Books.
- Zhang Yulin. 1986. "Peasant Workers in County Towns." Fei Xiaotong et al., eds., *Small Towns in China: Functions, Problems & Prospects*, pp.196-210. Beijing: New World Press.
- Zhou, Kate Xiao. 1996. *How the Farmers Changed China: Power of the People*. Boulder: Westview Press.
- Zweig, David. 1991. "The Political Economy of Exports from Rural Industry." *China Quarterly*, no.128, pp.716-41.

< 통계 및 자료집 >

- 國家統計局人口統計司 編. 1985. *中國1982年人口普查資料*.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國務院人口普查辦公室, 國家統計局人口統計司 編. 1991. *中國1990年人口普查10%抽象資料*.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庾德昌 主編. 1992. *農戶經濟行爲及勞動時間利用調查資料集*.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計劃生育年鑑*.
- 中國農業年鑑*.
- 中國人口統計年鑑*.
- 中國社會統計資料*.
- 中國統計年鑑*.
- 中國鄉鎮企業年鑑*.
- 中國農村家庭調查組 編. 1993. *當代中國農村家庭: 14省(市)農村家庭協作資料匯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China Rural Statistics (CRS).

Putterman, Louis, ed. 1989. *Hebei Province, Dahe Commune/Township Data Sets and Codebook*. Ann Arbor: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Statistical Yearbook of China (SYC).

World Development Report (WDR).